교과서연구

제 52호

2007. 12

차 례

권두언

성공적인 교육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과 권리 / 류해일 ····· 4

특별 기획

지식 정보화 사회의 교과서상(像)

미래의 교과서 : 편찬의 자율화와 매체의 다양화 / 조난심 ····· 6

바람직한 교과서 개발을 위해 외국 교과서로부터 시사점 얻기 / 이용숙 ····· 13

검정 제도하에서의 국어 교과서 개발 / 이삼형 ····· 21

수학 교과서 : 어떤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인가? / 류희찬 ····· 27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의 나아갈 방향 / 권오량 ····· 33

지식 정보화 사회의 바람직한 사회과 교과서의 미래상 / 서태열 ····· 40

현장 교육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략을 통한 창의적 사고 능력 향상 / 이용애 ····· 47

논 단

교과용 도서와 저작권 / 최종철 ····· 50

연 재

핀란드의 교육 제도 / 김정영 ····· 54

● **발행처**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발행인** / 곽현수
● **편집기획위원장** / 김만곤
● **편집기획위원**
김병규, 금용한, 김정호, 윤광원, 최해홍, 홍후조
● **편집협력위원**(시·도 교육청)
김광화(서울), 전미순(부산), 권충현(대구), 최은아(인천), 권도연(광주), 최재천(대전), 이종문(울산), 김국회(경기), 고경식(강원), 정진구(충북), 이희원(충남), 홍진석(전북), 박광춘(전남), 이진관(경북), 김영범(경남), 양영선(제주)

* **표지 글씨** : 신두영
* **편집·디자인** : 대한교과서(주) 편집팀

교과서 편집자의 변

교과서적인, 너무나도 교과서적인 / 김현용 ····· 60
'중간자'와 '윤활유'라고 / 전이순 ····· 64

단 상

반공 교육에서 통일 교육으로 / 한명희 ····· 68
명지고교형 학습 자료 / 안두환 ····· 72

탐 방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23) – 김홍석 / 청문각(CMG) 대표 ····· 76

자 료

제5회 교과서 관련 수필 공모 수상작 및 심사평 ····· 80
교육과정·교과서 주요 정책 공지 사항 / 교육인적자원부 ····· 91

■ 연구재단 소식 ····· 93
■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 96
■ 「교과서연구」 원고 모집 안내 ····· 97
■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 98

• **「교과서연구」**는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 1 동 1018-2 세원빌딩 4 층
• 홈페이지 : www.ktrf.re.kr
• 전화 : (02) 2651-1950, 팩스 : (02)2651-1954, E-mail : editor@ktrf.re.kr

권두언

전근대 사회에서 교육 제도라는 것은 오로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스스로 담당해야 하는 시기였다. 국민 교육에 대한 국가의 관심은 전혀 존재하지 못했던 사회이다. 그러나 점차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국가는 국가 만들기 및 국민 만들기를 위하여 국가가 자녀 교육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하여 국가가 학교를 설립해서 부모 대신 자녀를 교육하고, 교육을 통하여 국민 의식을 고취시키는 장소로 활용하였다. 그 이후, 사회적 인적 구성이 출신 신분에 의하지 않고 학교 교육을 통해 양성됨으로써 학교 교육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국가가 학교를 설립하고 독점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 중심의 교육 제도에서는 교육에 관한 학부모의 교육 역할이 축소됨과 동시에 학부모는 자녀를 단지 학교에 보내 뒷바라지하는 단순 역할로 바뀌게 되었고, 자녀 교육에 대한 교육적 참여도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만 대응하는 소극적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교육 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으로 열거할 수 있다.

성공적인 교육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과 권리

글 **류해일**(한국교과서연구학회 회장 공주대학교 교수)

즉, 교사는 학생을 공정하게 대하고 학습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능력을 계발하기보다는 모든 학생들을 표준화하고 집단화시켜 교육을 하게 되었으며,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표준화된 교육에 단순 적응하고 노력하는 수동적 입장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국가가 주도하는 학교 교육은 획일화된 교육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결과적으로,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학교에 의존하거나 방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자신의 아이에 대한 능력과 소질에 대한 관찰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가정의 교육 관심도 점차 소잔되어 결국 교육 경쟁력이 상실되고, 국가 미래를 위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 귀결되어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하는 획일적인 교육 제도 보완책으로서 등장한 것이 지방 교육 자치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의 교육 독점과 개입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교육의 중심에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 사회가

참여하여 차별화된 양질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구현한 제도이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가 발전과 학생들의 효율적 학습 능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 자치 제도에 학부모들이 적극 개입하여 학생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역할과 권리를 행사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여기서 학부모의 역할을 예로 든다면, 학부모는 실질적인 가정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자녀가 지니고 있는 능력과 적성 및 특기를 발견하여 그것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자녀가 소기의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과 지표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학부모의 참여도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즉, 학부모는 지역 사회의 교육에 관한 관심과 교육 목적 달성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사회 단체들로부터 교육 재정 지원과 관심을 이끌어 내어 지금까지 학교에만 의존하던 공교육 풍토를 지방 자치 단체와 협력하여 경쟁력 있는 교육력 회복에 나서야 한다. 이 밖에도 학부모는 학교 및 교사에 대하여 자녀의 교육과 관련한 학습권의 요청, 즉 수업 참관, 학교 행사, 학교의 교육 사업, 학교 및 학급 운영 등에 참여하여 내실 있는 학교 운영이 되도록 감독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 밖에도 학부모는 교육 수요자로서 학교 평가 및 교사 평가에 참여하고, 학교의 교육 활동 및 성과에 관한 교육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교는 자녀를 위탁하는 학부모가 학교의 의사 형성에 관여하고, 학부모의 교육 의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인정해야 한다.

학부모의 참여와 권리는 연관되는 것으로서, 학부모가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기초하여 자녀를 공공 교육 기관으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에 관한 권리를 뜻하므로, 국가와 지방 공공 단체 및 학교는 학부모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학교 교육에서 가능한 한 학부모의 의사를 반영해서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국가가 주도하던 교과서의 콘텐츠 및 교육과정 개발에도 일정 부분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성과 덕성을 갖춘 새로운 양상의 교육과정 개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공교육뿐만이 아니라 사교육 시장의 무분별한 교육과정 및 교재의 선정 등에 학부모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 학교(교사)－학부모－지역 사회가 연계된 교육 중심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충분한 재정적 지원하에서 나의 자녀만을 잘 키우려는 것보다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신개념의 교육 중심 공동체가 구축되어져서 가장 경쟁력 있는 학교 교육을 구현하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개별화 교육 제도로 정착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개인과 국가 교육의 성공적인 교육 목표를 지향한다면, 더 좋은 학생과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 교과서 내용 및 교육과정 개발 등에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의 교육 제도상에서 새롭게 인식되어져야만 한다.

지식 정보화 사회의 교과서상(像)

미래의 교과서 : 편찬의 자율화와 매체의 다양화

글 조난심(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연구본부장)

Ⅰ. 미래의 학습자들은 어떤 자료로 공부하게 될까?

컴퓨터 업계의 선두 주자인 미국의 빌 게이츠(Bill Gates)는 '2020년대의 평생 학습 비전(A Vision for Lifelong Learning-Year 2020)'이라는 글에서 조만간 학습자들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용 콘텐츠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였다.

유치원부터 8학년에 이르는 기간에 활용될 것으로는 주로 사회적 협동과 정보를 걸러 내는 기능(filtering)을 적용한 '집단적 상호 작용이 가능한 콘텐츠 제공(Auto-recommended Group Formation)', '학생이 저작도 할 수 있는 상호 작용적인 전자책(Student Generated Interactive e-Books)', '사이버 교사 / 튜터(Virtual Mentors) 등장'을 예시하였다. 그리고 중등학교 단계에 활용될 것으로는 증가된 커뮤니티 의사 소통을 적용한 '프로젝트 학습을 위한 개인용 디지털 도서관 활용(Personalized Digital Libraries in Project Based Learning)', '몸에 부착된 인터넷 장치 활용(Internet on Your Ear)', '학생이 조절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화면(Ubiquitous Student Controlled Interfaces)', '학습 양식에 맞춘 서비스 (Learning Style Adaption)' 등을 예시하였다.

빌 게이츠의 아이디어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이 가까운 미래에 가져올 학습 자료의 커다란 변화를 예견하는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와 같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수 학습 자료의 변화를 예견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불과 몇백 년 전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하여 일반 대중은 성경의 내용도 성직자가 말해 주는 것만 접해야 했고, 중요한 학습 자료를 손수 필사를 하여 사용했던 과거의 교육 상황에 비하여 천지개벽할 정도로 발달된 것이 교육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교수 학습 자료와 교육용 콘텐츠의 백화난만(百花爛漫)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첨단 기술과 교수 학습이 만남으로써 이러닝(e-Learning)이나 유러닝(u-Learning) 콘텐츠가 개발되고, 머지않아 가상 현실(virtual reality)을 활용한 교육용 콘텐츠가 학생들에게 제공될 것이다. 곧 3차원 콘텐츠를 활용한 박물관 학습(virtual museum), 열대 우림 학습(virtual tropical rain forest) 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가까운 미래의 변화를 예측해 보면, 서책형(paper-book) 중심의 현재의 교과서 편찬 및 활용 제도는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미래 예측을 듣고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이른바 전통적인 '서책형 교과서'는 사라

교육 내용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 내기에는 교과서 제도의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 해석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 교육과정 –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 – 교과서 검정 기준' 등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하는 교과서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상세하여 이러한 다양성을 구현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어떤 이들은 종이 책이 사라지는 미래를 점치고 있기도 하다. '미래'를 어느 시점에 착안하여 논의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 예를 들어, 2030년경까지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본다면, 서책형 교과서가 완전히 사라진다기보다는 서책형 교과서와 다양한 매체의 교수 학습 자료, 교육용 콘텐츠 등이 공존하면서 각기 나름대로 학생과 교사의 교수 학습을 도와주는 형태로 활용될 것 같다. 이 글에서는 서책형 교과서와 교육용 콘텐츠가 공존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교과서를 편찬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우리 교과서의 현실은 어떠한가?

(1) 교과서 제도 변화의 지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국민의 정부 시절에 이미 교과서 제도의 점진적 자율화를 교과서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해 왔다. 여기서 '자율화'란 교과서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줄이고 민간의 교과서 편찬 참여를 확대한다는 의미이다. 곧, 국정 교과서를 점차 검정 교과서로 전환해 나가고, 일부 교과목의 교과서는 인정 교과서 또는 교과서 없이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6월에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에는 그동안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중등 국어, 도덕, 국사 교과서의 검정화, 초등 일부 교과 교과서의 검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러한 제도 개선의 큰 진전을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내용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 내기에는 교과서 제도의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 해석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 교육과정 –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 – 교과서 검정 기준' 등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하는 교과서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상세하여 이러한 다양성을 구현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를 편찬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적정한 속도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과서 제도의 변화가 지체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2) 교과서에 대한 이중적인 관점

교과서 제도를 자율화하여 국가의 관여를 점차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함에 있어서 그 변화 속도를 제한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우리 사회의 교과서에 대한

이중적인 관점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사회에는 교과서를 보는 관점이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해석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는 학습 자료라는 교과서에 대한 '교수 학습 위주'의 관점이 있다. 이는 효과적인 교수 학습을 위해 교과서 집필자나 교사, 학부모 등의 교육 철학, 교육의 전략 등에 따라 다양한 교과서가 필요하고, 교사와 학생들은 그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 선택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교과서는 국가에서 관여하여 획일적으로 편찬하기보다는 가능하면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로 편찬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이 보기에는 현재의 교과서 제도는 여전히 국가의 관여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교과서를 보는 관점은 이러한 '교수 학습 위주'의 관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교과서에 대한 또다른 관점은 바로 교과서를 '경전(經典)'으로 보는 것이다. 교과서는 표준적 지식과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하며, 오류가 없어야 하고 공정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주체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이 존재하는 한 교과서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없애거나 줄여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에서 사소한 교과서의 오류나 오탈자도 심각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책임으로 부각시키거나 때로는 교과서에 담겨 있는 다양한 가치 지향들을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서 나름대로 해석하여 교과서의 이데올로기 문제를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경향 등은 모두 이러한 교과서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학문 발달의 속도가 매우 빠른 오늘날, 우리 사회에 알맞은 교과서관의 정립이 요구된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양하고 열린 교과서관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이 바로 그것이다. 교과서 제도의 변화와 다양한 교과서의 출현은 바로 이러한 교과서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함께 추진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교과서의 현실적 존재 조건

우리가 오늘날 실제로 접하는 교과서는 이상과 같은 편찬 제도의 틀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교과서는 구체적인 산출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단지 이상적인 아이디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교육 내용의 해석을 드러내고, 문장과 문단의 구성들을 보여주며, 삽화와 사진의 질과 북 디자인의 결과가 반영된 '종합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달리 말하여, 우리가 만족스러운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더 나아가 전문적인 역량을 쏟아 부을 수 있도록 교과서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교과서의 존재 방식은 우리가 교과서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불만스러운 점을 토로하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쉽사리 변화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4) 학생들에게 소홀시되는 교과서

현존하는 우리의 교과서는 이상과 같은 제도적 틀, 교과서에 대한 관점 및 현실적 존재 조건을 반영하는 산출물이다. 이러한 현재의 교과서에 대해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서두에서 살펴본 미래의 모습이 오늘 당장 완전하게 실현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 학생들이 접하는 학습 자료는 그 이전의 세대들이 상상

오늘날 우리 학생들에게 교과서는 '북한 책' 같아서 낯설기도 하고, 정보가 빈약하여 다른 보조 자료를 보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가고 있다. 한 마디로, 학생들에게 교과서가 소홀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도 교과서의 한계와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보충하기 위해 각종 교수 학습 자료를 찾아서 쓰거나 직접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풍부해졌다. 서책형 자료도 그 종을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 교육용 콘텐츠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편재(遍在)되어 있는 교수 학습 자료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학생들에게 교과서는 '북한 책' 같아서 낯설기도 하고, 정보가 빈약하여 다른 보조 자료를 보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가고 있다. 한 마디로, 학생들에게 교과서가 소홀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도 교과서의 한계와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보충하기 위해 각종 교수 학습 자료를 찾아서 쓰거나 직접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고등학교 수업 장면을 보면 교과서를 덮어두고, 교사가 프린트물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을 토대로 수업을 전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국가 및 시 도 교육청 수준에서는 이러한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많은 교수 학습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교과서 1권으로 모든 학습 자료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는 학생들의 주된 학습 자료의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교과서가 주된 학습 자료로서 학생들에게 소홀시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래의 교과서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Ⅲ. 바람직한 미래의 교과서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바람직한 미래의 교과서 편찬과 활용 방향은 한 마디로 '다양하고 질 좋은 교과서의 개발과 보급'에 두어야 할 것이다. 종래와 같은 획일화된 교과서에 의해서는 21세기의 지식 기반 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수월성을 지닌 인재를 길러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과서의 질 개선이 없이는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학습 자료'에서 '다양한 학습 자료 중의 하나'라는 교과서 위상의 변화로 인해 질이 낮은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외면당하는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바람직한 미래의 교과서를 위한 조건들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교과서 편찬의 자율화 : 교과서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국가 관여의 최소화

급속하게 발전하는 학문의 변화를 반영하고, 교육 내용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했던 교과서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점차 교과서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한다. 교과서의 개발과 편찬은 관계 전문가와 출판사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교과서의 채택과 활용은 지역 교육청, 학교, 교사 등이

요즈음 우리 교육계에서는 디지털 교과서가 과연 서책형 교과서를 대체하는 것인지, 보완하는 것인지 등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의 관계 설정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필자는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디지털 교과서가 병용되는 형태가 가장 적절하고 현실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마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보지만, 여전히 종이 신문이 발행되고 활용되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주도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과서 제도의 자율화를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교과서들이 개발되어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수월성을 지닌 인재들을 학교에서 교육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의 개선은 우리 사회의 교과서에 대한 관점이 좀 더 유연하게 변화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과서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교육과정을 계기로 확대된 중등과 초등 교과목들의 교과서 검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교과 교육 관계자들이 교과서 개발에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학교에서는 이들 중에서 선택하여 활용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교과서의 질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한다.

그리고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에는 초등학교 교과서도 대부분 검정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에서 개발한 단 한 권의 교과서를 전국의 교실에서 가르치는 구조를 바꾸어 나가도록 한다. 또, 일부 학생들만 배우는 전문 과목의 교과서 등은 교육과정과 교수 학습 과정안 정도를 제시하고,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좀 더 시의성 있고 실제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교육인적자원부의 교과서 편찬의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한다. 또, 교육인적자원부는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교과서 정책을 수립 지원하고, 미래 지향적인 교수 학습 자료의 개발, 보급 및 활용을 위한 정책 개발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교과서 매체의 다양화 :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의 병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는 교과서 매체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 정책이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머지않아 우리의 교과서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곧, 서책형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교과서 정책이 디지털 교과서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의 교과서의 개념은 완결형 서책형 교과서에서 좀 더 유연하고 가변적인 교수 학습 자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진화하였고, 고도정보화 사회로 접어든 오늘날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교육용 콘텐츠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10년 전 제7차 교육과정이 고시되던 시점에는 단일하고 획일적인 교과서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교과서의 개념을 '교수 학습 자료'의 개념으로 확장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준별 교수 학습 자료들이 개발되어 활용되었다. 그런데 이제 교수 학습 장면에서 컴

【표 1】 디지털 교과서의 기능

교수 학습 기능	자원 연계 기능	상호 작용 기능	학습 관리 기능	교수 학습 보조 기능
· 동기 유발 · 학습 내용 제시 · 학습 자료 제시 · 교수 학습 방법 제시 · 평가 및 피드백	· 하이퍼링크 · 자료 탐색 및 색인 · 외부 자원 연결	· 학습자와 콘텐츠 · 학습자와 학습자 · 학습자와 교수자 · 학습자와 외부	· 학습 진도 관리 · 평가 및 성적 관리	· 문서 작성 및 편집 · 그래픽, 작곡 등 · 페이지 이동 보기 · 각종 사전

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특히 새로운 세대들의 정보 기술 친화력이 높아지면서 교과서의 개념도 서책형이나 교수 학습 자료의 수준을 넘어 '디지털 교과서'로 확장된 것이다.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 내용을 디지털화하여 전자 매체에 수록한 뒤 유 무선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한 교과서를 말한다. 디지털 교과서는 현재 개념이 생성되고 있고, 개발이 진행 중이므로 향후 좀 더 구체적인 의미 규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개발 중인 디지털 교과서의 주된 기능은 위의 표 1과 같다.

이러한 디지털 교과서의 개념과 기능은 종래의 서책형 교과서의 개념과 기능을 크게 확장하여 학습과 교수의 통합, 교과서 내의 자료와 교과서 밖의 자료의 연결, 교과서 학습자 간의 연계와 상호 작용 등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임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미래에는 디지털 교과서의 상용화를 포함하여 바람직한 교과서 개발과 활용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요즈음 우리 교육계에서는 디지털 교과서가 과연 서책형 교과서를 대체하는 것인지, 보완하는 것인지 등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의 관계 설정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필자는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디지털 교과서가 병용되는 형태가 가장 적절하고 현실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마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보지만, 여전히 종이 신문이 발행되고 활용되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교수 학습 상황에서는 학습자와 교수자의 취향과 학습 스타일, 배우는 교과목이나 내용의 특성에 따라 그것에 알맞은 교과서의 형태를 취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음악과의 다양한 감상곡은 디지털 교과서에 수록된 참고곡들을 감상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지만, 문학 시간에 읽는 참고 작품은 서책형 교과서를 통해 배우는 방식이 그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와 같이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를 병용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교과서 편찬과 활용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교과서의 질적 심화 : 내용 구성과 디자인에 대한 연구 개발

그런데 미래에 우리 교과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매체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교과서 내용의 질적 심화이다. 다시 말하여, 교과서를 통해 학습자들이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과의 '큰 그림(big ideas)'에 초점을 맞추어 교과서를 구성하고, 정합적인(coherent) 내용 조직을 제시하며, 학생의 경험과 흥미와 연관시켜 내용을 기술하고, 질 높은 문장 기술을 통해 교과서가 집필되어야 할 것이다. 곧 교과서 내용 자체의 질적인 제고와 심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과서 구성은 곧바로 높은 수준의 심

【표 2】 교과서 내용 설계의 요소들

교과서 내용의 구성	주 제	요 소	연계성
이해 가능성	친숙한 내용 흥미 있는 내용 일관성 있는 문장 구조	단원/장의 구성 단어 문장 단락	수사학적인 양식들 : 주제망, 매트릭스, 선형 연계, falling dominos 내용 연계
교육과정	전문가의 관점 모형 원리들	지식 기술 태도	인과 관계 기술
교수법	학생 중심적 탐구 공동체 구성주의 줌렌즈	연계(connections) 조직(organizations) 반성(reflection) 확장(extension)	융통성

※ Marilyn J. Chambliss & Robert C. Calfee(1998), *Textbooks for Learning : Nurturing Children's Mind*, Blackwell, P. 76의 표를 재구성한 것임.

화된 학습으로 연결될 수 있다. 내용 구성의 방향은 서책형 교과서든 디지털 교과서든 관계없이 질 높은 교과서라면 당연히 보여 주어야 할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곧, 교과서 내용 구성의 기본이 되는 텍스트의 이해 가능성(comprehensibility), 전문가의 시각에서 해석된 교육과정, 학생-중심적 교수 학습 방법의 구현 등이 중심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의 교과서 편찬과 개발의 과정을 보면, 대체로 짧은 시간과 한정된 인력 등의 제한 조건 속에서 교과서 집필이 이루어지고, 또 이를 세세하게 심의하는 체제 속에서 교과서의 질적인 심화는 크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이러한 교과서 내용 구성과 디자인에 대한 연구 개발은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미래에 우리가 질 높은 교과서로 교육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과서 내용 구성과 디자인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연

지식 정보화 사회의 교과서상(像)

바람직한 교과서 개발을 위해 외국 교과서로부터 시사점 얻기

글 **이용숙**(덕성여자대학교 열린교육연구소 소장)

I. 외국 교과서로부터의 시사점은 왜 중요한가 ?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는 과거의 교과서에 비해서 여러 면에서 크게 개선되었다. 특히, 외형적 체제의 개선, 학생 일상생활과 연계된 활동의 제시, 개인차 반영을 위한 심화 학습 내용의 제시, 더 흥미 있고 풍부한 학습 내용의 제시를 위하여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이용숙 김영미 전영미, 2002).

그러나 이상과 같은 영역에서도 아직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큰 개선이 시도되지 않은 영역도 상당히 남아 있다. 2007년 2월 교육과정 부분 개정이 고시되어서, 이미 새 교과서의 개발 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교과서가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작업 중의 하나는 외국 교과서 분석 결과로부터 시사점을 얻는 것이다.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 교과서로부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점에서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다.

첫째, 필자는 1986년, 1995년, 2002년 세 차례에 걸쳐서 본격적인 교과서 국제 비교 연구의 책임을 맡았으며, 6개국 교과서가 분석되었다. 이 세 차례의 교과서 분석 과정에서 항상 가장 큰 시사점을 준다고 판단되는 교과서는 이 세 나라의 교과서였다.

둘째, 이 세 나라는 모두 치열한 교과서 출판사 간의 경쟁을 수십 년 거치면서, 수십 개의 출판사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4~6개 정도만 살아남을 정도로 생존 경쟁을 해 왔다. 교사들에게 채택되는 교과서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광범위한 연구와 준비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참여가 점차 확대되어 왔다(단원의 집필, 편집, 학년 내용 간의 연계성이나 일관성의 검토, 자문, 교과서 실험 학교 또는 실험 학급으로서의 참여 등).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1980년대에 이미 40만 명 이상의 교사들이 교과서의 상당 부분을 집필하였다고 한다(Newton, 1990 : 9). 또, 영국 콜린스 출판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이용숙 외, 1995 : 59)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를 위하여 출판사에서 교사들로 구성된 교과서 자문단(in-service advice)을 조직해서 요청하는 교사에게 파견하기도 한다. 한편, 교과서 채택을 위해서 교과서 카탈로그의 개발, 교사를 위한 교과서 세미나와 워크숍 개최, 교과서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교수 학습 자료의 개발과 보급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쟁과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교사들의 다양한 형태의 참여는 이들 나라의 교과서가 수업에서 사용하기에 편하면

서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쉽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구성이 되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이 세 나라의 교과서는 모두 우리 나라에 비해서 개발 기간이 길고, 개발비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훨씬 많은 인원이 개발에 참여한다(예를 들어, 프랑스 나땅사의 경우 초등학교 3학년 역사-지리 교과서 한 권에만 집필자 이외에 사진 담당 1명, 지도 제도사 2명, 삽화가 4명, 윤문가 2명, 레이아웃 전문가 1명이 참여). 한 학년 교과서의 공식적 집필 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교육과정 공포 2년 전에 이미 교과서 저자 선정을 끝내고 있다.

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중간 중간 입수하여 교과서 초안을 교육과정 공포 이전에 이미 완성해 놓은 후에 교육과정이 공포되면 필요한 수정만 하는 방법으로 2년 이상에 걸쳐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이다(나땅사의 사례). 또, 자유 발행제인데도 반드시 학교 현장에서 실험 적용을 하도록 규정되기도 하며(예 : 플로리다 주의 모든 과목, 프랑스의 국어 읽기, 수학, 외국어), 실험 학교 적용이 강요되지 않는 경우에도 프랑스와 영국 출판사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별 학교와 실험 학교 계약을 맺어 실험 적용을 하기도 한다(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이용숙 외, 1995의 제I장 참조). 이러한 개발 환경을 갖고 있는 나라들의 교과서가 우수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넷째, 2007년 2월 말에 공포된 교육과정 개정의 특징을 보면, 1) 학교와 교사 재량의 다양한 개별화 수업의 실천 강조, 2)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권한과 자기 주도적/상호 작용적인 학습자 중심 학습의 강조, 3) 교육 내용과 방법 평가의 다양성 강조, 4) 통합적 학습의 강조, 5) 학습자의 학습을 돕는 데 주목적을 두는 과정 평가 강조의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이용숙, 2006). 영국, 미국, 프랑스의 교과서는 모두 이미 1980년대부터 이러한 다섯 가지의 방향으로 내용 구성이 되어 있었으며(이용숙 외, 1986), 이후 새로 개발된 교과서에서 이러한 다섯 가지의 방향은 더욱 강조되었다(이용숙 외, 1995 : 이용숙 김영미 전영미, 2002). 따라서, 새 교육과정의 정신을 살리는 교과서 개발을 위해서 이들 세 나라의 교과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으려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II. 외국 교과서로부터 시사점을 효과적으로 얻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맞는 교과서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외국 교과서로부터 효과적으로 얻으려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항을 고려한 교과서 비교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 가능한 한 여러 나라의 교과서를 분석하되,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교과서의 구성 방식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여 초점이 분명한 비교를 하도록 한다.

그동안 외국 교과서로부터 우리나라 교과서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으려는 시도는 주로 한 나라의 교과서만 우리 교과서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 '한 나라'도 주로 일본과 미국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영국과 프랑스 교과서도 매우 우수하며, 그 밖에도 독일과 일본 등 많은 나라의 교과서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또, 한 나라의 교과서만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학교 문화나 교육 현실 등에서 주요한 차이가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를 간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미국 교과서가 사용하는 종이의 재질이 좋고 매우 튼튼하게 하드커버로 만들어졌으

**여러 나라 교과서를 폭넓게 분석하되,
이 경우 비교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산만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교과서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할 필요가 있다.
즉, 각국 교과서의 장점은 무엇이며, 그러한 장점이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나
교육 문화에서도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며, 이는 한 교과서를 몇 년씩 물려서 사용하는 교과서 대여제로 인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교과서도 대여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 연구들이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교육 문화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교과서에 필기해야 하며, 숙제나 시험 공부를 위해서 교과서를 집에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현실을 간과한 주장이다. 또, 여러 나라 교과서를 비교해 보면, 같은 교과서 대여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국 교과서는 우리나라 교과서보다 얇으며, 앞에서 언급한 나라들 중에서 미국 이외에는 프랑스만이 하드커버로 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나라 교과서를 폭넓게 분석하되, 이 경우 비교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산만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교과서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할 필요가 있다. 즉, 각국 교과서의 장점은 무엇이며, 그러한 장점이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나 교육 문화에서도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교과서의 제도나 외형적 체제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과서 내용 구성 방식의 비교는 더욱 중요하다.

그동안의 교과서 국제 비교 연구는 교과서 자체의 분석이 아닌 교과서 제도나 정책의 비교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교과서 자체를 분석하는 경우에도 외형적인 비교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이런 연구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주제의 비교는 이미 상당히 이루어져서 크게 새로운 내용이 많지 않은 반면에, 교과서 내용 구성 방식의 비교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서 아직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많지 않다. 또, 앞으로 교과서 내용 구성 방식에 대한 비교가 많이 이루어지게 된 경우에도 내용 구성 비교는 계속되어야 한다. 교과서 제도나 외형과는 달리 교과서의 내용 구성은 개편될 때마다 계속 변하기 때문이다. 한편 제도나 정책, 외형 등은 사회 구조나 재정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많으므로, 외국으로부터 시사점을 얻는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서 내용 구성은 교과서 개발자들이 합의만 하면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시사점대로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3) 교과서 국제 비교 연구는 수업에서의 활용 방식에 대한 관찰과 면담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의 모든 내용은 수업 시간에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교과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서구의 교과서는 우리나라 교과서처럼 '성전'과 같은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학교

전체 또는 교사 개인이 교과서 없이 나름대로의 자료들을 복사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교과서를 사용한다고 해도 모든 내용을 다루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전체 내용의 80% 이상만 다루었으면 많이 다룬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이용숙 외, 1986, 1995). 또, 교과서를 다루는 경우에도 읽기 자료로만 사용하고 활동은 교사가 만들어서 실시하거나 다른 자료와 함께 통합해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 교과서가 우리나라 교과서와 같은 지위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외형적 체제나 내용 구성 방식을 비교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과서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수업 관찰과 면담을 실시하는 것이다. 수업 관찰이 어렵다면 최소한 면담은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교사만이 아니라 학생, 교과서 출판사 관계자, 교장, 장학사, 학부모 등 다양한 관련자들과의 면담이 이루어질수록 제대로 된 시사점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4) 교과서 내용 구성 방식의 비교는 구체적일수록 좋다.

교과서 내용 구성 비교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하는 방식의 비교는 큰 의미를 주지 못한다. 예를 들어, "어느 나라의 교과서가 우리나라 교과서보다 학습 활동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 구체성의 정도는 어느 정도이며, 단원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등을 알기 어렵다. 가능한 한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실제 사례를 몇 개 제시해야 시사점을 얻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 구체적인 차이점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차이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논의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실제 교과서 개발자들이 시사점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래에서는 같은 미국 국어 교과서〔Holt, Rinehart and Winston 출판사에서 2000년 출판한 〈문학의 요소 : 첫 번째 과정(Elements of Literature : First Course)〉(중학교용)〕로부터 시사점 제시를 간단하게 하는 방식과 구체적으로 실제 사례와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비교해 보도록 한다.

(가) 미국 국어 교과서로부터의 시사점 제시 방식 A – 간단한 분석 사례

미국 국어 교과서에는 우리나라 교과서에 비해서 언어 기능 학습 요소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개별화를 위한 자료가 풍부하게 제공되고 있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구체적 절차가 제시되어 있다. 각 소단원에 제시된 활동인 작가와의 만남, 의미 만들기('처음 생각', '이해하기', '본문과 관련짓기', '텍스트 확장하기'의 네 부분으로 구성), 선택 : 포트폴리오 만들기, 언어 연결 : 미니 수업과 '문학의 요소'(2쪽), '읽기 기능과 전략' 등은 대부분 2쪽 이내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다. 또, 각 단원 마지막의 의사 소통 워크숍('말하기 듣기 워크숍', '작가로서의 워크숍', '문장 워크숍', '삶을 위한 독서', '삶을 위한 학습' 등 다섯 가지)에 제시되어 있는 1~5쪽의 자료들도 번갈아 제시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나) 미국 국어 교과서로부터의 시사점 제시 방식 B – 구체적인 분석 사례

미국 국어 교과서를 우리나라 현행 국어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에 특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 중의 하나는 미국 교과서에서 언어 기능 학습 요소가 훨씬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중에는 우리나라 교과서의 현행 편집 체제로 보아서 분량 때문에 제시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비

교과서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수업 관찰과 면담을 실시하는 것이다. 수업 관찰이 어렵다면 최소한 면담은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교사만이 아니라 학생, 교과서 출판사 관계자, 교장, 장학사, 학부모 등 다양한 관련자들과의 면담이 이루어질수록 제대로 된 시사점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교적 적은 지면만 할애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요소들의 예로는 '의미 만들기', '선택 : 포트폴리오 만들기', '읽기 기능과 전략', '의사 소통 워크숍', '작가와의 만남', '언어 연결 : 미니 수업'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의미 만들기〉는 '처음 생각', '이해하기', '본문과 관련짓기', '텍스트 확장하기' 의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처음 생각' 에는 작품 속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 보는 질문이 제시되어 있고, '이해하기' 에는 본문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이를 토대로 한 추론, 비교, 분류 등의 고차원적 언어 기능을 포괄하는 질문이 제시되어 있다. '본문과 관련짓기' 와 '텍스트 확장하기' 는 심화 과제의 일종으로서, 본문 내용을 토대로 한 학생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 만들기〉의 첫 번째 특징은 학생들로 하여금 본문 내용을 다시 생각하고 의미를 재구성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삶, 경험과 관련되게 만든다는 것이다. 즉, 구성주의적 학습관을 반영한다. 두 번째 특징은 심화 과제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과제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수준별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모든 질문을 언어적 기능과 관련시켜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래의 표와 같이 질문의 앞에 '연결', '추론', '숙고', '반대', '분류' 등의 언어적 기능이 제시되어 있어, 교사와 학생들이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돕고 있다.

연결	처음 생각 1. 만약 당신이 영국 학교에서 진의 입장에 있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비교	이해하기 4. 진이 중국에서의 미국인의 삶에 대한 글을 자서전이 아닌 백과사전에 싣는다고 가정하자. 이야기는 어떻게 다르게 되나? 어떤 종류의 글쓰기를 더 좋아하나?
분류	5. '향수병' 에서 사실의 예와 의견의 예를 하나씩 들어라.

'선택 : 포트폴리오 만들기'에는 네 가지 정도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혼자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아이디어 모으기, 연구/설명문 쓰기, 그림 그리기, 드라마틱하게 읽기'의 네 가지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이 중에서 아이디어 모으기의 '향수병' 작품의 예를 보면, 우선 이 활동이 자서전적 사건을 위한 아이디어 모으기라는 것을 설명한 뒤에 이에 대한 배경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즉, '향수병' 작품에서 주인공은 중국 소년이 자신을 '외국인 악마'라고 부른 후 나중에 '미국 친구'라고 부른 사건으로 5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갔음을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일어났던 평범하지 않은 일들을 돌아보도록 유도하고, 그 기억들이 때로는 매우 행복한, 또는 매우 슬픈 기억일 수도 있음을 설명한다. 정확히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하기 위하여 사람, 시간,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회상해 보고, 어떤 사건이 기억되는지, 그때의 감정은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육하원칙을 응용하여 〔1) 무엇이 일어났나?(북캐롤라이나로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갔고, 길을 잃었다)-2) 누가 있었나?-3) 어디에서 일어났나?-4) 언제?-5) 왜?-6) 그 때의 감정은? 지금의 감정은?〕을 생각해 보도록 박스 처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를 지도하는 교사를 위해서는 교과서에 딸려 나오는 15개의 교수 학습 패키지의 일환으로 제시된 '포트폴리오 운영 체제'나 '워크숍 자원'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학생들을 돕게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소단원 다음에 제시되는 '문학의 요소'는 이 단원 내 모든 작품을 포괄하는 문학 작품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 부분으로, '나는 누구인가?' 단원의 경우 논픽션에 대한 설명이 재미있는 만화와 함께 2쪽 분량으로 다음과 같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 논픽션은 무엇인가, 픽션과 논픽션의 차이는 무엇인가, 논픽션에는 어떤 글들이 포함되는가, 주관적 논픽션과 객관적 논픽션은 어떻게 다른가, 논픽션의 장점은 무엇인가, 논픽션의 주제는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이처럼 첫 번째 작품을 공부한 후에 이후의 작품들까지 포괄하는 문학의 장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 것은, 첫 번째 작품으로 단원의 주제 및 단원을 포괄하는 문학 장르를 학생들에게 간단히 맛보게 한 후에 이 장르에 대한 집중적인 설명을 제시하여, 이후에 제시되는 작품들에 대한 본격적인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읽기 기능과 전략' 역시 '문학의 요소'에 이어서 첫 번째 소단원의 뒤에 제시되는데, 이는 단원 내의 전 작품 공부에서 강조되어야 할 읽기 기능 및 이를 위한 전략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고르기 위해서는 가게 안의 많은 물건을 비교하고 대조해야 한다는 재미있는 설명과 함께, 비교하고 대조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 소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차이점과 유사점을 분석해 내는 방법, 그리고 시와 소설에서 비교하고 대조할 때에 유의해야 할 점들에 대한 설명이 매우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교수 학습 자료로서의 교과서관을 엿볼 수 있다.

각 단원의 마지막에는 '말하기 듣기 워크숍', '작가로서의 워크숍', '문장 워크숍', '삶을 위한 독서', '삶을 위한 학습' 등 5개의 의사소통 워크숍이 제시되고 있다. 2쪽의 '말하기 듣기 워크숍'은 문학 작품에 대한 생각을 교환하는 소그룹 토론을 하도록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실제로 소집단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누구인가' 단원의 경우, 소그룹 토론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는 설명을 시작으로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소그룹 토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즉, 효율적으로 말하고 듣기 위해서는 구성원

중에서 중재자, 기록자와 같은 역할을 맡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 왜 말하고 들어야 하는지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는 것, 자료 수집을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이 유용하며, 이를 위해서는 몇 분 간 모든 학생들이 생각할 기회를 주기 위해 조용히 서로 돌아가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말해야 한다는 것, 다른 사람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합의에 도달할 것, 그리고 다른 소그룹 학생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아이디어 및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할 것 등을 매우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작가로서의 워크숍'은 학생 자신이 작가가 되어 보는 활동으로서, 글쓰기 절차와 자료를 우리나라 교과서보다 훨씬 상세히 제시하면서 자신의 경험에 대한 글을 써 보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전문 모델'이라고 하여 특히 잘된 글의 한 부분을 사례로 제시하고, 글 쓰는 순서에 따라서 이 글이 어떤 점이 잘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박스 처리하여 제시한 후에 4쪽 분량으로 쓰기의 방법과 절차가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예를 들어, 쓰기 노트가 있다면 이를 더욱 발전시켜 쓰고, 쓰기 노트가 없다면 다른 주제로 써 볼 것과 그 경우 다양한 주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으며, 맨 첫 문장은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다. 이 밖에도 주제 선정, 주제 선정 이유, 초고 쓰기, 정교화하기, 동료와 자기 평가를 통해 수정하기 순으로 자세히 설명하면서, 중간 중간에 자서전적 사건의 틀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야기 구성 방법의 힌트, 초고 정교화의 방법, 평가 준거 등이 박스 처리되어 제시된다. 즉, 별도의 자료 없이도 학생들이 충분히 글을 써 볼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교과서와 차이가 있다.

'문장 워크숍'은 문장을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창의적 글쓰기를 할 때에 놓치기 쉬운 정확한 문장 구성법을 교과서 본문에 제시된 글의 사례 및 친구가 '작가로서의 워크숍'에서 쓴 글을 재료로 하여 학습하게 한다. 이런 구성으로 인해서 문법적인 설명이 쉽게 느껴지고 친구의 글을 분석해 보는 과정에서 글쓰기 능력이 더욱 향상되도록 만들고 있다. 독서를 일상화하는 전략을 제시하는 '삶을 위한 독서'와 한 단원의 최종 마무리 과제에 해당하는 '삶을 위한 학습'은 모두 교과서에서 학습한 내용을 일상에서 활용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한 단원의 마무리가 될 만큼 심도 있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누구인가' 단원에서는 상업적 광고 하나를 선정하여, 그 광고가 어느 대상을 위한 것인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인지, 광고의 주장이 현실적인지 등을 평가해 보는 활동, 광고의 주장이 현실적인지 평가해 보는 활동, 실제 광고를 만들어 보는 활동, 소비자의 입장에서 광고에 대한 소감을 써 보는 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중략〉

이상에서 살펴본 다양한 활동들의 예를 보면, 미국 교과서에서 단순히 다양한 활동을 선택할 수 있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활동을 혼자서도 충분히 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친절한 안내와 함께 제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미국 교과서에서는 국어 교육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교과서 내용의 의미를 스스로 구성하는 법'을 학생들이 습득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되, 그 활동을 하지 않고 지나갈 가능성을 줄이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어 교과서 중에서 가장 상세한 학습 절차가 제시된 편인 중학교 〈생활 국어〉 교과서의 경우 때로는 5~6 단계로 나누어진 활동이 제시되기는 하지만〔예 : 1) 글 쓰는 목적 정하기 – 2) 주제 정하기 – 3)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지 생각나는 대로 쓰기 – 4) 정리한 내용을 토의하기 – 5) 글에 필요한 중심 내용과 뒷받침하는 세부 내용 선정하기 – 6) 한 편의 글 완성하기〕 각 활

동에 대한 설명의 구체성은 미국 교과서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다. 특히,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의견을 말해 보자.', '이야기해 보자.', '써 보자.' 라는 식의 간단한 지시만 제시되고 곧장 활동에 들어가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실제 수업에서는 그 활동을 하지 않고 지나갈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수업 관찰 결과에서 그러한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미국 교과서와 같이 상세한 절차와 풍부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에게 어렵지 않게 지도, 학습할 수 있다는 인식을 주어야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들이 실제로 실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새로운 언어 기능을 처음으로 학습하거나 논설문 이해, 글쓰기 등 비교적 어려운 활동을 할 때에 더 쉽게 느껴지도록 하는 구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 교과서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이 교과서에 대한 더 상세한 분석 결과는 이용숙 김영미 전영미, 2002와 이용숙, 2005 참조).

(5) 분석 결과와 함께 교과서의 단원을 한 개 이상 번역한 전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앞에 제시한 사례로부터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실제 사례와 함께 제시해야만 교과서 개발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분석 결과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앞의 〈사례 B〉에서 "소그룹 토론이 다양한 장점을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는 정확히 어떻게 표현했다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이러한 궁금함의 해소를 위해서는 실제 교과서 내용을 읽어 보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 따라서, 모든 교과서 개발진이 읽을 수 있도록 분석 교과서의 대표적인 단원 1~ 2개씩은 전문을 번역해서 부록으로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

참고 문헌

- 이용숙 김영준 백은순 이근님 조덕주 김소연. 『교수 학습 자료 활용 실태 및 교수 학습 방법에 관한 인류학적 국제 비교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보고서, 1986.
- 이용숙 김영준 양미경 박순경 이근님 최성욱. 『교과서 정책과 내용 구성 방식 국제 비교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보고서, 1995.
- 이용숙 김영미 전영미. 『교과서 내용 구성 및 체제 개선의 방향성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열린교육연구소 연구 보고서(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후속 지원 연구 과제 답신 보고서), 2002.
- 이용숙. 『제7차 중학교 국어과 교과서와 미국 교과서 내용 구성 체제 비교 분석』. 교육과정 연구 23(2), 2005.
- 이용숙. 『열린 교육과 교육과정/평가』. 한국열린교육학회 2006년 동계 학술 대회 〈왜 열린 교육은 지속되어야 하는가?〉 발표 논문, 2006.
- Daniel. K.(ed.).『*Elements of literature : First course*』. N.Y. : Holt, Linehart and Winston.(미국 중학교용 교과서), 2000.
- Newton, D.P..『*Teaching with text : Choosing, preparing and using textual materials*』. London : Kogan Page, 1990.

지식 정보화 사회의 교과서상(像)

검정 제도하에서의 국어 교과서 개발

글 **이삼형**(한양대학교 교수)

Ⅰ. 들어가며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국어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에서 검정 교과서로 전환하게 된다. 이는 국어 교과서 변천사에서 오래 기억될 사건임에 틀림없다. 국어 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뀐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우선 국정 교과서로서 누리던 권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국어 교과서는 신성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국어 교과서가 교수 학습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여 왔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국어과 교사들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과서대로 가르쳤으며, 자연스럽게 시험도 국어 교과서를 벗어나지 않았다. 국어 교과서가 검정 교과서가 되면 이러한 권위를 누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검정 교과서로의 전환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국어 교과서가 유일본이 아니라 여러 본이 존재하게 되어 그만큼 다양성을 띠게 될 것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고, 국어 교과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여건은 교과서 제작자들에게 창의성을 발휘할 여지를 제공하여 국어 교과서의 발전에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검정 교과서로의 전환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이 바로 이런 점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검정 교과서로의 전환이 핑크빛 전망만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기존에 한 권의 개발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자연스럽게 흩어져 여러 권을 개발해야 하므로 질적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잘못하면 상업적 논리가 교육적 논리보다 우선될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어 교과서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점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Ⅱ. 국어 교과서의 기본 방향

(1) 의미 있는 언어 활동이 이루어지는 교과서

언어 능력은 실생활과 관련하여 다양하고 실제적인 목적을 갖고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활동을 통하여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실에서는 의미 있는 언어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의미 있는 활동이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활동이어야 함을 뜻한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언어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 사용이 유목적적인 활동이듯이 교실에서의 언어 활동이 유목적적이어야 하며, 언어 활동이 언어 사용자의 욕구, 필요에 의한 것이듯이

학습자의 흥미, 욕구, 능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언어 교육에서 의미 있는 활동은 1980년대 이후에 일고 있는 총체적 언어 교육(whole language) 운동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총체적 언어 교육에서는 '살아 있는 언어'를 다룸으로써 종래의 교실에서만 사용되는 언어를 중심으로 한 언어 교육을 반대한다.

의미 있는 언어 활동, 살아 있는 언어가 무엇인지를 예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001년 9월 11일에 미국 뉴욕에서 세계를 경악시킨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슬람 문명에 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한다. 이는 분명 9월 11일 사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지어 왜 이슬람 과격 단체들이 미국을 적으로 삼고 있을까, 그들은 왜 자신들이 성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며 죽음도 불사하는 것일까 등등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이슬람 종교 또는 문명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독서는 흥미와 관심 속에서 이루어져야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이 된다.

그렇다면 국어 시간의 읽기는 그 사정이 어떠한가? 우리의 국어 교과서는 읽기 자료가 아무런 맥락 없이 학생들에게 던져진다. 우리 국어 교과서의 단원 체제가 '단원의 길잡이-소단원-단원의 마무리'로 되어 있고, 읽기 기능이 단원의 목표가 되는 목표 중심으로 단원이 구성되어 있어서 맥락적 읽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이슬람 문명에 관한 글이라도 학생들이 이슬람 문명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성이 있고 관심이 생겼을 때, 그 글은 살아 있는 글이 되고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활동은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어 교육의 언어 활동이 의미 있는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맥락적인 활동이 되어야 하며, 앞으로 개발될 국어 교과서는 이러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2) 언어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과서

현재의 국어 교과서의 편성은 목표를 중심으로 대단원을 구성하고 있다. 목표 중심 편성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언어 기능을 분절화해서 학습한다는 점이다. 목표 중심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읽기 단원이 요약하기, 내용의 전개와 조직, 글의 주제 등으로 나누어지고, 이는 읽기 학습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읽기 학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나아가 목표 중심의 학습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기능을 분절화하기도 한다. 현재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가 분책되어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굿맨(Goodman)은 무엇이 언어를 배우기 쉽게 또는 어렵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언어가) 단편과 조각으로 쪼개어질 때에 어렵게 만든다고 하였다. 굿맨은 언어 교육이 쉬울 때와 어려울 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K. Goodman, 이화자 역, 5~6쪽)

〔쉬울 때〕

(언어가) 실제적이며 자연스러울 때, 전체적일 때, 의미가 있을 때, 흥미 있을 때, 학습자와 관련이 있을 때, 학습자에게 속할 때, 실제 사건의 일부분일 때, 사회적 유용성이 있을 때, 학습자의 목적을 지닐 때, 학습자가 사용하기로 선택할 때, 학습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때, 학습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때

〔어려울 때〕

(언어가) 인위적일 때, 단편과 조각으로 쪼개어질 때, 무의미할 때, 지루하고 흥미가 없을 때, 학습자와 무관할 때, 다른 사람에게 속할 때, 상황 밖의 일일 때, 사회적 가치가 없을 때, 타인에 의해 떠맡겨졌을 때, 학습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없을 때, 학습자가 권한이 없을 때

**앞으로 개발되는 국어 교과서는
기능이 분절적이지 않으면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언어 기능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가능하면 문학이나 문법 영역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서의 단원을 목표 중심으로 편성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목표를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것은 단원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단원을 목표 중심으로 구성한 의의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읽기 능력의 신장'과 같이 뭉뚱그려진 전체는 단원의 목표가 될 수 없고 학년 목표 또는 국어 교육의 목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목표 중심 편성은 체제 분석(system－analysis) 또는 과제 분석(task－analysis)에 기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과제 분석 이론은 뭉뚱그려진 전체는 한꺼번에 가르칠 수 없다고 보고, 복잡한 개념이나 기능은 구성 성분으로 잘게 나누고 분석된 개념이나 기능들을 단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과제 분석 이론의 기저에는 구성 요소들의 합은 전체가 되며, 개별적으로 학습한 지식이나 기능은 통합적 문제 해결 상황에서도 적용된다는 가정을 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목표 중심 편성이 기저로 하고 있는 과제 분석 이론의 기저는 최근의 인지 심리학적 연구에 의해 부정되고 있다. 전체는 각 부분의 합보다 많다(이성은, 1994, 428쪽)는 것이나, 특수 전략을 가르쳤다고 해서 일반 전략이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성진 조석희, 1987, 83쪽)이 이것을 뒷받침한다. 굿맨이 제안하고 있듯이 언어가 전체적일 때 배우기 쉽고, 단편과 조각으로 쪼개질 때 어렵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굿맨을 비롯한 새로운 언어 교육 주창자들이 총체적 언어 교육(whole language) 운동을 주창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앞으로 개발되는 국어 교과서는 기능이 분절적이지 않으면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언어 기능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가능하면 문학이나 문법 영역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교과서

언어 교육의 최근 동향에 두드러진 점은 언어 활동의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동향은 읽기란 독자가 글을 읽으면서 의미를 구성해 가는 과정이고, 쓰기는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조직하여 표현해 나가는 과정임을 밝혀 낸 읽기와 쓰기에 대한 연구 결과에 힘입은 바 크다. 이렇게 보면 읽기나 쓰기나 모두 의미 구성 과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이는 물론 말하기와 듣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언어 활동에서 기호화된 말과 글은 결과가 되고 의미 구성 과정은 과정이 된다.

지금까지의 국어 교육은 과정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두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에 대한 반성의 소리도 매우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결과보다 과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반성에

아직도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이루어지는 교과서가 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 날개와 처마 형식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정보에서 그치고 만다. 진정한 의미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가 되기 위해서는 학습의 인지적, 정의적 과정을 학습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와 장치가 주어져야 한다.

도 불구하고 교과서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학습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학습 활동〉 이 소설의 주제를 말해 보자.

이와 같은 형태로 제시된 학습 활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교실에서의 국어 수업은 교사가 이와 같은 문항을 묻고 학습자는 답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쉽다. 여기에서는 주제를 파악하는 과정, 그것이 왜 주제이며 학습자는 어떤 과정으로 그것을 주제로 생각했는지가 고려될 여지가 적다. 결국은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시되는 것이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학습 활동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학습 활동〉 이 소설의 주제와 그것이 주제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해 보자.

새로운 교과서는 명목상으로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정을 중시하는 그런 교과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함양하는 교과서

학교에서의 교육은 가르치는 행위와 학습이 함께 이루어지므로 흔히 교수와 학습을 붙여서 교수 학습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학습보다는 교수의 측면을 더 강조하여 왔다. 수업 목표를 정하고 내용을 계열화하는 과정이 모두 교수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자에서는 교수보다는 학습을 강조한다. 학생은 더 이상 교사가 제공하는 지식을 단순히 수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외부의 자극을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에 입각하여 해석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능동적인 존재이며 창조자로 파악한다. 이는 학습의 구성주의적 관점과 일치한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학습은 자극과 반응 현상이 아니다. 학습에는 자기 숙고와 추상화를 통한 개념 구조의 틀을 재구성하는 행위가 요구된다.

구성주의적 학습관에서는 학습자를 지식의 단순 수용자로 보지 않고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에 입각하여 역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창조자로 파악하며 학습자들의 흥미, 욕구,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 구성주의적 학습관에서는 자기 생성적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동기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본다. 즉, 학습자들은 자기 스스로 과제를 선택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맛보게 되고 새로운 학습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이다.[1)]

지금까지 국어 교과서 개발에 관련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가 강조되어 왔다. 자율 학습이 가능한 국어 교과서 모형이 개발되기도

하였으며, 현재 국어 교과서의 날개와 처마 형식의 출현은 자율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모형 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이루어지는 교과서가 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 날개와 처마 형식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정보에서 그치고 만다. 진정한 의미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가 되기 위해서는 학습의 인지적, 정의적 과정을 학습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와 장치가 주어져야 한다. 새로운 교과서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숙제인 셈이다.

Ⅲ. 정보화 사회와 국어 교과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를 정보화 사회라고 부른다. 앞으로 개발될 교과서는 정보화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교과서이어야 한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정보화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교과서란 어떤 것일까? 아마 비판적 문식성, 창의적 문식성이 강조된 교과서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비판적 문식성, 창의적 문식성은 정보화 사회에서만 강조되어야 할 덕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문학 작품을 주어진 해석대로 감상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해석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국어 교육의 모습이고, 이러한 국어 교육이라면 이는 비판적 문식성, 창의적 문식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시로 배우고 가르치는 시 교육은 비판적 문식성, 창의적 문식성이 실종된 교육이다. 그러나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임이 가시는 사건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며, 그러한 사건을 가정한 진술은 이별의 정한을 이야기했다고 할 수 없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비판적 문식성이다. 우리의 시 교육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제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그러한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고 흘러왔다. 즉, 비판적 문식성과 창의적 문식성의 강조는 정보화 사회 이전부터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을 뿐이지 정보화 사회가 도래했다고 그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화 사회와 관련되어 우리가 새롭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정보의 표현 방식과 소통 구조이다. 즉, 매체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성 언어로 정보가 소통되던 시대에서 정보가 문자로 기록되는 대변화가 있었다면, 현재는 정보들이 언어, 사진, 동영상, 음악 등이 결합되어 표현되고 유통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요즈음 각 포털 사이트에서 UCC 관련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변화와 무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아울러 텍스트의 양식도 바뀌어 가고 있다. 하이퍼텍스트가 얼마나 진화될 것인지는 아직 속단할 수 없지만 텍스트 표현 양식에서 변화는 분명 일어나고 있는 중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변화를 국어 교과서는 무관심하고 있어야 하는가? 아마 그렇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교육과정에서도 매체 부분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아직 그 반영이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매체를 활용한 활동이 아직도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런 조심스러움의 표현이다. 그러나 매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전면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변화에 국어 교과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는 앞으로의 과제임에 틀림없다.

Ⅳ. 나오며

국정 교과서에서 검정 교과서로의 전환이라는 제도적 변화가 국어 교과서에 어떤 모습으로 작용할 것인지는 국어 교육 관계자들 모두에게 초미의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좋은 국어 교과서를 갖는 것이다.
좋은 교과서로 우리의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교과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
단기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현재의 교과서 개발자와 출판사의 관계로는 크게 개선될 것을
바라는 것은 무리이다. 단기간 개발은 아이디어 경쟁에 불과하다. 그것이 아니라
교과서 개발과 관련된 기초 자료와 연구 결과들에 바탕을 둔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한다.**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는 미래 국어 교과서의 모습을 결정할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소에 교과서에 관심이 없다가 교과서 검정 시기가 되면 너도 나도 교과서 개발에 열을 올리는 현재의 양태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그렇다고 수시 검정이 대안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짧은 안목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좋은 국어 교과서를 갖는 것이다. 좋은 교과서로 우리의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교과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단기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현재의 교과서 개발자와 출판사의 관계로는 크게 개선될 것을 바라는 것은 무리이다. 단기간 개발은 아이디어 경쟁에 불과하다. 그것이 아니라 교과서 개발과 관련된 기초 자료와 연구 결과들에 바탕을 둔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면서 교육 목표에 적합한 작품은 어떤 것인지 조사되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은지 연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들에 출판사가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교과서를 개발한 출판사에게는 적정한 이익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출판사들은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선순환의 체제가 성립되기를 이번 검정 교과서 체제로의 변화와 함께 기대해 본다. 연

1) 읽기에서도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수정하며 능동적으로 의미를 재구성하는 독자를 능동적 독자(active reader)라고 한다.

참고 문헌

- 노명완.「교과용 도서 내적 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04-01, 2004.
- 이삼형.「목표 중심 체제 국어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제4회 연구 발표회 자료집, 2001.
- 이삼형. 작문 과목 교과서의 개발 방향, 한국작문학회, 2007.
- 이재승.「과정 중심의 쓰기 교재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99.
- 정혜승.「미국의 국어 교과서 분석 연구」.『독서 연구』14집. 한국독서학회, 2005.
- 최미숙.「정보화 시대의 국어 교과서 개발 방향 : 매체를 중심으로」.『국어 교육학 연구』10집. 국어교육학회, 2000.
- 최영환.「효율적인 국어과 교재 구성 방안」.『국어 교육학 연구』16집, 국어교육학회, 2003.
- Goodman. K., 이화자 편역.『전체 언어에서 전체란 무엇인가』. 한국문화사, 1993.

지식 정보화 사회의 교과서상(像)

수학 교과서 : 어떤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인가?

글 **류희찬**(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어떤 나라 어떤 사회에서도 교과서는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교과서는 학교 현장의 모든 활동에서 '바이블'로 받아들여지며, 모든 수준의 모든 종류의 교수 학습 및 평가 자료 개발이나 교육 연구에서 철저한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심지어 교육과정에 의해 만들어진 교과서가 교육과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서라고 인식되고 있다. 내용이 단순히 나열되어 있는 교육과정에 비해 교과서를 보면 교육 내용의 전개 과정이나 지도 방안을 잘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과서는 '보다 잘 조직화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교사들의 수업과 학생들이 학습을 위한 자료라는 점에서 좋은 수학 교과서의 특징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수학 교수 학습 과정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교수 학습 과정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과서가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에 다름 아니다.

이 글은 먼저 최근의 전 세계적인 수학 교육 개혁 운동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간략하게 진술한 다음, 그러한 측면에서 교과서가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최근 교과서를 둘러싼 기술적 이슈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진술하고자 한다.

Ⅰ. 수학 교수 학습 과정의 새로운 방향

(1) 자연과 사회 현상의 모델링 강조

수학을 학습하는 중요한 이유는 수학적 지식이 학생들 생활 주변의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예측하고 통제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개념적 도구를 배우는 것이다. 매우 무질서한 자연이나 사회 현상이 매우 규칙적인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인식하고, 그 패턴을 탐구하는 가운데 자연이나 사회 현상을 더 잘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수학 수업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의 소재는 실생활이나 자연 및 사회 현상이나 다른 교과와 관련되어야 한다.

(2) 생소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안목의 개발

생산적인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생소한 문제 상황을 극복하는 문제 해결 능력과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종류의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는 안목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주변의 생활 문제에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한 문제 해결 기법을 배우는 '좁은 의미'의 실용적 측면보다는 생소한 문제 장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를 찾는 능력이나 관점을 터득하는 정신적 성장을 중시하여야 한다.

(3) 합리적인 수학적 의사소통에 대한 강조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능력은 다른 사람과 협동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푸는 능력이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만드는 의미의 많은 부분을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함으로써 얻는다. 의사소통은 합리성을 기르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학생들에게 동료들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경청하고 절충하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4) 문명 발달 과정에서 수학의 역할 음미

수학은 측량, 수량 관계 등 우리의 삶과 결부된 일차적인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적 학문에서 출발하여 표현 체계가 발달해 감에 따라 자연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하여 이들 현상을 통제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인류의 문명이 그 찬란한 빛을 발하는 데 기여하였다. 인간의 삶의 방식으로서 수학을 음미할 수 있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들에게 수학이 인류의 문명 발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이 왜 수천년 동안 모든 학문의 여왕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알게 하고 인간 이성의 찬란한 금자탑으로서 수학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진리를 추구하는 지성적인 인간, 수학을 통해 자연의 신비를 탐구하는 합리적인 인간의 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5) 상황을 조작할 수 있는 탐구 활동

오늘날 수학이 생성되고 응용되는 방법이 현대화되면서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수학적 아이디어나 수학적 입장도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원동력은 컴퓨터의 보급이다. 컴퓨터의 도입으로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가능해졌으며, 문제를 푼다는 의미가 변화되고 있다. 수학의 방법도 많이 달라졌다. 연속적인 것에서 이산적인 것으로, 정확한 것에서 근사적인 것으로,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이론적인 것에서 경험적인 것으로, 사변적인 것에서 실험적인 것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컴퓨터는 수학적 아이디어와 응용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한다.

(6) 귀납 및 연역 추론의 강조

수학 교육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학생들의 논리적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수학 교육에서 귀납은 연역과 같은 정도로 다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인 다양한 예로부터 법칙을 학생들 스스로 발견하는 귀납이 연역적 증명에 앞서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의미와도 관련이 있다. 학습 내용이 의미가 있음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창조적 활동과 학습 내용이 일치되어야 한다. 지식을 생산해 내는 귀납적 과정에 대해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연역 활동과 타인의 연역 활동의 결과를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연역적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남이 해 놓은 연역적인 추론 과정을 설명하거나 설득하기보다는 학생들 자신의 입장에서 주어진 명제를 정당화하는 활동이 강조되어야 한다.

(7) 바람직한 수학적 성향에 대한 강조

수학의 학습은 단순히 개념이나 절차 및 그 응용을 학습하는 것 이상의 것이다. 수학적 성향, 즉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을 뜻한다. 학생들의 수학 성향은 과제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자신감, 다른 대안을 찾으려는 자발성, 지속성, 흥미, 자신의 생각을 반성하려는 경향에서 나타난다. 현재의 수학 교육은 인지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 수학적 성향도 교육을 통해 길러 줄 수 있다는

전통적으로 우리의 수학 교과서는 개념적인 요소와 기능적인 요소를 많이 강조하여 왔다. 이보다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 보며, 이를 다른 사람과 논의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수정해 가기 위한 문제 해결력이나 추론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좋은 소재들을 개발하고 제시해야 한다.

믿음이 필요하다. 긍정적인 수학적 성향은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수학을 학습한 결과, 학생들은 그들 주위의 새로운 문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수학적 지식이나 능력을 사용하는 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수학은,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을 행하는 것이 곧 평범한 인간 활동이라는 것을 실감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또, 학생들로 하여금 주변의 문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자기 자신이 사용하는 수학적 지식이 점점 늘어 감을 느끼도록 해야 하며 모든 학생들이 수학적 탐구 활동을 통한 즐거움을 경험하고, 자신이 흥미를 갖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수학을 응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Ⅱ. 수학 교과서의 기능

수학 교육의 이러한 방향을 간단히 요약하면, 수학적 의미의 강화와 수학적 사고력의 신장이라고 할 수 있다. 수학 교과서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첫째, 좋은 수학 교과서는 학생들의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요소를 가능한 한 많이 제시해야 한다. 수학 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단순히 사회에 잘 기능하도록 만드는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 그 이상이어야 한다. 구성원들이 사회를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비판력이 필수적인 바, 이를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 내용을 교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수학 교과서는 개념적인 요소와 기능적인 요소를 많이 강조하여 왔다. 이보다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 보며, 이를 다른 사람과 논의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수정해 가기 위한 문제 해결력이나 추론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좋은 소재들을 개발하고 제시해야 한다. 학교에서 길러진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은 사회를 건강하게 발달시키기 위한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갖춘 인력을 배출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좋은 수학 교과서는 수학 교과의 본질을 잘 전달하여야 한다. 수학의 본질은 수단이다. 수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인지적 도구이다. 그렇다면 수학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예들이 교과서에 풍부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수학을 의미 있는 과목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재가 실생활이나 자연 및 사회 현상이나 다른 교과와 관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받는 것은 '수학적 모델링' 활동이다. 모델링 과정은 다음의 과정을 바탕으로 한다. ① 현상을 관찰하고, 현상의 고유한 특성을 문제 상황으로 기술하며, 문제에 영향을 주는 변수와 같은 요소를 찾아낸다. ② 현상에 대한 모델을 얻기 위해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추측하고 그 관계를 수학적으로 해석한다. ③ 그 모델을 적절하게 조작하거나 분석한다. ④ 결과를 얻고 그 결과를 사용하여 현상을 해석함으로써 결론을 끌어낸다. 현재의 수학 교육은 이 모델링 과정의 세 번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머지 단계에 좀 더 강조를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방정식을 능숙하게 풀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나 자연현상을 방정식으로 나타내기까지 과정이나 방정식의 해를 사용하여 원래의 현상을 해석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셋째,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들의 구성적인 활동을 뒷받침하는 탐구나 활동을 많이 제시하여야 한다. 전통적으로 교사는 교과서의 내용을 전달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러한 방법은 앞으로도 골격은 크게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여전히 상당한 정도까지 교사는 언어적 설명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무조건 백안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제는 교사에 의한 언어적인 전달만이 아니라 활동적인 수업 전개가 점차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본다. 학생들이 개념을 귀납하고 직접 확인하는 교구 활동은 교과서의 요소요소에 자주 제시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활동 자체와 활동을 수학 교육 차원에서 음미하는 활동과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활동거리의 제시 자체가 학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교과 차원에서 마무리함으로써 사고의 비약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흔히 교과서를 평가할 때 외형적인 활동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 그 활동이 교과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러한 의미가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음미되고 있느냐의 관점에서 점검될 필요가 있다.

넷째, 교과서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주요한 변화에 교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행 평가나 열린 교육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교육의 변화를 이끌었던 교육 방법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이 학교 현장에서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힘든 이유는 관련 자료들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과서는 교사들이 교과서를 열린 교육에 맞게 활용하기 쉽게 만들어 주어야 하며, 교사들이 수행 평가를 해야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수행 평가 문항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과서의 개발 없이 정책이 졸속 시행됨으로써 좋은 아이디어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본다. 교사들이 논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면 적절한 논술 과제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교과서는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학교 현장의 적용 방안이 잘 드러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보 전달 기능만을 가지는 교과서는 좋은 교과서라고 보기 힘들다.

다섯째, 교과서는 수학이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학문이며, 그 응용 범위가 매우 넓은 인간적인 학문임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많은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으며, 수학이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매일 수학 문제를 풀고 있으면서도 수학을 재미없고 딱딱하고 지루한 과목으로 오해하고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의 문화적 힘을 체득하게 해야 한다. 학생들은 수학적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수학을 행하는 것이 평범한 인간 활동이라는 것을 실감하도록 하며, 주변의 문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자신들의 수학적 지식이 점점 늘어감을 느끼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물리학과 지질학, 생태학과 같은 자연 과학이나 경제학이나 경영학과 같은 사회 과학뿐만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개인차를 중시하여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한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수학과의 경우, 상 중 하로 수준별 수업을 위한 세 가지 종류의 교과서를 만들어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이들이 교육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에 수학과의 경우
학생들 수만큼의 수준이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수준을
반영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아니라, 음악, 미술, 스포츠, 패션 디자인 등의 예체능 분야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수학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학의 활용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읽을거리가 교과서에 제시되어야 한다.

여섯째, 좋은 교과서는 현실적이어야 한다. 학교 현장이 따라 갈 수 없는 내용이나 방법의 제시는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사고를 이끄는 것을 목표로 좋은 탐구 자료를 제시하여도 현장에서 필요한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거나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예를 들어, 수학 교육에서 구성주의가 최근 이론이라면 수학 교과서는 구성주의를 반영하는 조작성을 강조하여 교구를 활용한 탐구 자료가 요소요소에 제시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비판적 의식화를 강조하여 의사소통 자료가 많이 제시되어야 하지만 이상에 치우친 나머지 현장 교사들이 잘 적응할 수 없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Ⅲ. 몇 가지 이슈

(1) 수준별 차이를 반영한 교과서

우리나라와 같이 다양한 수준의 능력을 가진 학생이 혼재되어 있는 다인수 학급에서는 교사가 수업의 대부분을 다수를 대상으로 설명식 위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는 방식이 주가 되면서 교사들이 수업의 일부를 할애하여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다소 열어 주는 정도의 단일 교과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론적으로는 개별화된 특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개인차를 중시하여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한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수학과의 경우, 상 중 하로 수준별 수업을 위한 세 가지 종류의 교과서를 만들어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이들이 교육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에 수학과의 경우 학생들 수만큼의 수준이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수준을 반영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물론, 단일 교과서보다 학생들의 수준을 반영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여전히 문제는 계속된다. 하 수준의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이 상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학교 교육 이외의 특단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이므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2) 교과서 편집상의 제한

편집진들의 창의성이 어느 정도로 보장되어야 하는 점은 교과서 집필 시에 가장 첨예한 논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라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창의성의 정도가 허용되어야 하느냐 편집자의 자유로운 구성을 허용해야 하느냐의 논의는 쉽게 판단될 수 없지만 당연히 후자여야 한다고 본다. 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정 체제로 변화된 배경은 당연히 다양성의 추구 때문이었다. 그러나 제7차 교과서의 경우 검정을 통과한 많은 교과서가 거의 차이가 없다. 다양한 교과서 개발이라는 종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용의 수준이나 범위, 전개나 외형 등에서 창의성이 허용되어야 한다. 교과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교과서 페이지나 판형의 한계로 인해 사장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과감한 발상의 전환으로 기존의 틀을 허물어야 한다. 출판사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시장이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 교육을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교과서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3) 교과서와 웹 페이지와의 연계

교과서는 교사에게 교수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참고 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과서는 교사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자료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교사라면 누구나 교구나 매체의 활용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어떤 단원에 어떤 교구를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답을 교과서가 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 공학을 이용한 자료의 경우 대표적인 예들이 필요한 경우 빠짐없이 등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과서는 무한정의 페이지를 가질 수 없으므로 지도서를 잘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지필에서의 지도서는 역시 공간적인 제한이 있으므로 웹 페이지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과서는 웹 페이지와 한 세트로 간주되어야 한다.

Ⅳ. 결 어

그동안의 수학 교육은 우리의 삶이나 진리를 보는 안목과는 관계없이 매우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관점에서만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수학 교육으로는 이러한 바람직한 수학 학습의 모습을 보여 주기 어려우며, 기능적 차원이 아닌 '인간적 차원'에서 새롭게 수학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설정되어야 한다.

수학은 수학을 통해 진리의 모습을 보고 자연의 질서를 탐구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에 매료되고 명철한 논리적 사고를 하는 인간을 도야시키는 차원으로서 교육되어야 한다.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대학 입학 시험 준비를 위한 과목으로만 인식하고 있으며, 대학 진학 후에 수학을 계속 공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 생활에서 수학이 더욱더 필요하게 되었으며, 직업이 세분화되고 점차 전문화되어 감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수리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하는 능력과 생소한 문제 장면에서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고차원적인 수학적 사고력을 가진 인력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고력 신장으로서의 수학 교수 학습 방향을 관철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과서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일이다. 교과서는 교사들이 의존하는 중요한 교육 매체로서 수학이라는 교과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고, 수학적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으며, 학생들의 수학적 흥미를 유발시키고, 수학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좋은 내용과 소재를 담고 있어야 한다. 연

지식 정보화 사회의 교과서상(像)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의 나아갈 방향

글 권오량(서울대학교 교수)

I. 서 론

데이빗 호킨스(Hawkins, 1967)는 교육의 3대 구성 요소로 교사, 학생, 교육 내용을 들고 있다. 이때 교육 내용은 교과서라는 형태로 제시된다. 따라서, 교과서는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교사와 학생을 이어 주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볼 수도 있다.

교과서는 누가 사용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가진다. 크게 국가적 차원에서는 통치자의 통치 이념 구현과 사회 통제의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이것은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개발에 통치 이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과정에서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하는데, 이것이 국가 이념을 반영하고 있고, 교과서 심사 기준에도 국가 이념이 반영되고 있다. 교육 행정가에게는 교과서가 교육 현장 통제, 조정 및 확인의 도구로 기능한다. 한 지역 사회나 학교에서 어떤 교과서를 채택하며, 어떤 정도의 진도를 나가고 있는지 등에서 교육감이나 장학사, 교장 등이 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를 가장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교사와 학생에게는 교과서의 기능이 보다 구체적이다. 교사가 교과서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교과서의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 교사가 교과서를 절대적인 경전과 같은 것으로 보고, 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는 교과서의 비중이 절대적이지만, 교과서를 단지 교육을 위한 하나의 보조적인 자료라고 보는 경우에는 그 비중은 낮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입장의 양극단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다. 교사가 교과서를 어떻게 적절히 잘 활용하느냐의 문제는 교과서 자체의 질적인 문제 못지않게 중요하다.

학생의 경우는 교사의 경우보다 교과서의 비중이 더 높을 수 있다. 물론, 현재 사교육으로 인해 학교 교과서 이외의 자료를 학생들이 많이 접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교과서는 학생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자료이다. 교과서의 내용이 풍부하고 학생 수준에 맞아야 함은 물론이고, 제시 방법이 학생의 흥미와 탐구심을 자극하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이처럼 교과서는 교육 현장의 안과 밖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은 교육 개선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영어 교과서의 발달을 역사적으로 잠시 조감하고, 현재 영어 교과서의 중요한 특성들을 논한 다음에 개선 방향을 논해 보기로 한다.

II.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의 발달에 대한 역사적 조감

우리나라에서 정식 영어 교육은 고종 황제의 명으로 설립된 동문학(同文學)에서 1883년에 시작되었다. 1870년대 이전, 우리나라에 소개된 영어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저자와 발간 연대는 미상이나, 중국에서 만들어져 1870년대에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환영도(環瀛圖)' 라는 세계 지리서에 영어 알파벳의 모양과 읽는 법이 한문으로 소개된 자료가 있다(현재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에 소장).

동문학에서 어떤 교재가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청나라의 영어 교재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김명배, 2006). 그 후 한성외국어학교, 배재학당 등에서는 미국의 초급학교 교재인 『New National Readers』 시리즈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한성외국어학교 교관이었던 프램톤(G. Russell Frampton)은 1909년 『First Steps in English Spelling and Reading』을 발간하여 교과서로 사용하였는데, 이 책은 낱말의 철자와 발음 및 뜻을 익힌 다음, Reading Exercise와 Questions를 통하여 말과 글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었다(김명배, 2006).

일제 강점기의 영어 교과서는 조선총독부의 관리 아래 출판되거나 인가 보급되었다. 1912년에는 11권의 영어 교과서가 인가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 개정 소학 영어 독본, Kanda's New Series of English Reader, Penmanship, The Step in English, Useful Knowledge on Popular Science, Dialogue Readers, Pushing to the Front, Industrial English Readers, Standard Choice Readers, New National Readers, Out-lines of the World's History

그리고 3년 후인 1915년에는 이 중에서 일부가 바뀌고 총 10권의 교재가 인가되었다. 이후에도 이들 인가 교과서의 목록은 조금씩 바뀌었으며, 새로운 영어 교재들이 계속 발간되었으나, 일제 강점기 말기에 영어 교육이 금지되면서 교과서도 운명을 같이 하게 되었다.

광복 후, 초기 교수 요목기의 영어 교육은 회화력, 작문력 양성, 번역과 문법 등을 통한 독서력 증진, 발음, 철자법, 어법 등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는데, 영어 독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교과서들이 사용되었다.

당시는 검정 교과서 체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경우, 김손기의 『The National English Readers』(민교사), 이양하의 『The New Living English Readers for Middle Schools』(민중서관), 권중휘의 『The Modern English Readers for Middle Schools』(현대사) 등이 발견되고, 고등학교 교과서로는 이양하의 『The New Living English Readers for High Schools』(민중서관)이 눈에 띈다.

이들 교과서는 광복 이후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의 효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데, 책 이름에 'Readers' 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대개 단원 구성이 비슷하였는데, 먼저 독해용 본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법과 연습 문제, 내용 이해 문제 등이 나온다. 대화형 글도 조금 나오고, Oral Exercises 등도 들어 있다.

이후, 제1차 교육과정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영어 교과서는 때로는 국정 교과서로, 때로는 검정 교과서로 발간되어 왔는데, 교육과정의 변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전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까지는 교수 요목이 이른바 문법적 교수 요목을 채용하였으므로 교과서도 문법 구조 중심으로 내용이 단계화되었다. 그리고 영어 교육 이론

**우리나라의 영어 교과서는 때로는 국정 교과서로,
때로는 검정 교과서로 발간되어 왔는데, 교육과정의 변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전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까지는 교수 요목이 이른바 문법적 교수 요목을
채용하였으므로 교과서도 문법 구조 중심으로 내용이 단계화되었다.**

에서 주된 경향이었던 청화식 교수법의 영향으로 문형 연습이 교과서에 많이 다루어졌다. 물론, 제5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에서는 'Communication'이라는 이름이 붙은 활동이 다루어지기는 했지만, 교육과정 자체가 여전히 문법적 교수 요목이었으므로 문법 구조의 소개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러다가 제6차 교육과정에서 이른바 의사소통 기능 중심의 교수 요목이 채택되면서 교과서에서도 명시적인 문법 사항은 사라졌고, 대신 의사소통 예시 구문에 암시적으로 내포된 문법 구조를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의사소통이라는 측면이 특히 강조되면서 과업 중심(task-based) 교재로의 모습을 갖추려고 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틀은 제6차 교육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제6차에서는 이해 기능을 기반으로 표현 기능을 개발한다고 제시하였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도 듣기, 읽기 부분을 먼저 제시하고 말하기, 쓰기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되었으나, 제7차에서는 이해-표현이라는 측면과 음성 언어-문자 언어라는 측면을 교차해서 2×2의 틀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네 기능 제시의 순서가 조금 더 자유로웠다. 그리고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문법 구조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제7차에서는 문법 구조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도 문법 사항을 명시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그러나 제5차 교육과정 이전의 경우처럼 학년별로 문법 구조를 세분해서 교육과정에 제시하지는 않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법 구조를 일괄해서 제시하였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문법 구조 제시가 좀 더 융통성을 띠게 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는 제6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와 달리 컬러를 사용하게 되면서 보다 생생한 사진과 그림을 사용하게 되어 교육 효과가 높아진 점이 중요한 변화이다. 이 변화는 사실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교과서 역사상 매우 중요한 발전임에 틀림없다. 과거에 우리나라와 영국, 미국 등의 국기를 소개하면서 색깔에 대한 설명을 하는 텍스트 밑에 흑백으로 국기를 보여 주었던 것을 생각하면 컬러를 사용한다는 것이 교육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제6차에 비해 의사소통을 위한 활동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읽기의 경우에도 읽기 전 활동(pre-reading activities), 읽기 중 활동(while-reading activities), 읽기 후 활동(after-reading activities) 등으로 세분하여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영어 교육 이론이 보다 구체적으로 교과서에

반영된 점이다.

영어 교과서에 문화 부분이 차츰 강조된 것도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도 교육과정에서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교육 목표 중의 하나였으나, 제7차에서는 이 부분이 보다 더 강조되었고, 교과서에서도 culture tips와 같은 형태로 작은 공간에 어떤 문화적 차이나 특성을 소개하는 것과 아울러, 단원 내용조차도 문화적 차이에 관계된 내용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문화마다 다른 제스처, 각국의 인사법, 명절 등을 정식으로 다루기도 한다.

이처럼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발달에 따라 발전해 왔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발달은 교육 이론의 발달에 따라 발전해 왔다. 이제 제7차 교육과정이 다시 개정되고, 그에 따른 교과서가 개발되고 있다. 개정 교육과정은 기본 골격이 제7차 교육과정을 유지하기 때문에 교과서가 큰 변화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간의 교육 이론의 발달이 좀 더 세밀하게 반영된 교과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III. 영어 교과서에서의 진정성 문제

근래 외국어 교육과 평가에서 중요한 화두의 하나가 진정성(authenticity)의 문제이다. 가르치거나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텍스트 내용, 표현, 상황 등이 실제의 언어생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어야 진정성이 있다. 지금까지의 영어 교육은 이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고, 현재도 진정성 문제는 나타날 수 있다. 과거 청화식 교수법에 영향을 받은 교과서에 사용된 문형 연습은 진정성이 없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 진정성 문제는 현실감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다.

Madsen과 Bowen(1978)은 이 진정성 문제를 현실감(realism)이라는 말로 풀어 주었다. 그들에 의하면 현실감에는 상황적 현실감, 언어적 현실감, 현실감 있는 구두 표현이 있는데, 이 중에서 마지막의 현실감 있는 구두 표현은 실제로 교사가 교실에서 교과서의 영어를 얼마나 잘 구두 언어로 실감있게 구현하는지 하는 문제이고, 처음 두 가지 현실감은 교과서 저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상황적 현실감은 교재에 제시된 상황이나 내용이 현실감이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학생의 흥미에 부합하는 상황인가 하는 문제와 상황적 개연성(probability)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상황적 개연성이란, 교과서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실제 생활에서 과연 일어날 개연성이 얼마나 있는지 하는 것이다. 이 상황적 개연성 문제는 우리의 교과서들에서 간과되어 온 부분이다.

다음은 제5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나오는 대목인데, 상황적 개연성 면에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중학교 1학년 백인 소년이 자기보다 어린 백인 소녀와 방 안에 서서 대화를 하는 그림이 제시되어 있다.)

John : Sue. (수우!)
Sue : Yes. (응.)
John : I am your brother. I am a student. (난 네 오빠야. 난 학생이야.) This is my book. Right? (이건 내 책이지. 그렇지?)
Sue : Right. Your are my brother. (그래. 넌 내 오빠야.) You are a student. It's your book. (넌 학생이야. 그건 네 책이지.)
John : Good. Thank you, Sue. (좋았어. 고마워, 수우.)
Sue : You're welcome, John. (천만에, 존.)

(나건석, 1995, pp. 26~27.)

근래 외국어 교육과 평가에서 중요한 화두의 하나가 진정성(authenticity)의 문제이다. 가르치거나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텍스트 내용, 표현, 상황 등이 실제의 언어생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어야 진정성이 있다. 지금까지의 영어 교육은 이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고, 현재도 진정성 문제는 나타날 수 있다. 과거 청화식 교수법에 영향을 받은 교과서에 사용된 문형 연습은 진정성이 없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과연 이런 장면이 실생활에서 일어날까? 오빠가 동생을 향해서 "난 네 오빠야. 난 학생이야. 이건 내 책이지. 그렇지?" 하고 묻는 일이 있을까? 만약 있다면 그것은 동생이 오빠의 책에 낙서를 하거나 훼손해서 오빠가 화가 나서 그렇게 물었을 것이다. "왜 오빠의 책인데 네가 함부로 건드렸니?" 하는 말일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동생의 대답은 더욱 현실감이 없다. 동생은 오빠의 말을 주어만 바꾼 채 거의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동생이 저능 아이거나 오빠를 약 올리려는 고약한 아이가 아니라면 이런 대답을 할 리가 없다. 더욱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에 대한 오빠와 동생의 대응이다. 오빠는 동생의 앵무새 같은 반복에 대해 "좋았어. 고마워, 수우." 하고 동생에게 감사하며, 동생은 "천만에, 존." 하고 천연덕스럽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적 개연성의 측면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6차,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도 이처럼 상황적 현실감이 떨어지는 내용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상황적 현실감 못지않게 사회 언어학적으로 현실감이 떨어지는 표현이나 문장들도 매우 많다. 예를 들어, 그동안 많이 보았던 "I am a boy.", "I am a student."라는 문장을 보자. 현실에서 "I am a boy."라고 말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아마도 본인의 성 정체성에 대해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나 이런 말을 할 것이다. 아니면, 어떤 소년이 "나는 사내 아이니까 계집애처럼 울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I am a boy."라고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I am a student."라는 말을 할 경우도 실생활에서는 매우 드물다. "I am a student."라는 말은 누가 자신에게 학생인지 아닌지 정말로 궁금해서 물을 때 하는 대답일 텐데, 요즘 세상에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1학년 정도 나이의 소년 소녀를 보면서 "네가 학생이냐?"라고 궁금해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현실감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몇 가지 어려움을 준다. 대표적인 것이 등장인물의 딜레마와 장소의 딜레마이다. 등장인물의 딜레마란, 교과서에 누구를 주된 인물로 등장시킬까 하는 문제이다. 모두 한국 학생을 등장시키면 "왜 한국 학생들끼리 우리말로 대화하지 않고 영어로 말하지?"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고 모두 외국인 학생을 등장시킨다면 "이것이 과연 한국 학생들의 흥미에 부합하는가? 이것이 어느 나라의 교과서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그렇다고 외국 학생과 한국 학생을 적당히 섞어서 등장시키면 "과연 우리나라 현장에서 그런 상황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 나온다. 이것이 바로 등장인물의 딜레마이다.

이와 같은 딜레마는 장소에서도 생긴다. '어떤 장면에서 등장인물이 나오는가?' 하는 문제인데,

대학 입학 시험을 비롯하여 학교에서의 시험이 말하기, 쓰기 등의 언어 수행을 평가하지 않고 선다형 객관식으로 듣기, 읽기 시험을 하게 되니까 의사소통 훈련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정보차 활동이 교과서에 들어가야 하고, 이것이 교육에 반영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 안의 장면이라면 이상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 안에서 왜 영어를 쓰지?" 하는 질문이 나올 것이고, 외국의 장면을 제시하면 "과연 한국 학생이 몇이나 외국에 가서 그렇게 생활하나?"라는 질문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많은 교과서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인 자녀들과 한국 학생들이 어떤 특수한 학교나 이웃에서 서로 만나고 대화하는 상황을 설정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자연스럽지는 않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교과서를 현실감 있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언어적 현실감은 사용된 영어가 문법적으로도 맞고 현실에서도 사용되는 언어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 교육과정의 제약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어색한 영어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IV.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의 나아갈 방향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까? 이것은 교과서 내적인 측면과 교과서 외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교과서 내적 문제

교과서 내적인 문제는 어떤 교육적 접근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하는 점이다. 지금은 모든 외국어 교육이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교과서는 의사소통 활동을 많이 넣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어 교과서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늬만 의사소통 활동이지 사실은 문형 연습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진정한 의사소통 활동은 정보차 메우기(information gap filling) 활동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교과서에 제시된 대부분의 활동은 주어진 어구를 빈칸에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서 대화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된 근본 이유 중의 첫 번째 문제는 학생들의 수준이 낮아서 완전 개방식의 의사소통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보니 학생들은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책에 있는 문장에 필요한 어구를 골라서 넣거나 직접 채워 넣은 다음, 이것을 교대로 읽는 수준에서 대화를 하고 만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아마도 시험 형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대학 입학 시험을 비롯하여 학교에서의 시험이 말하기, 쓰기 등의 언어 수행을 평가하지 않고 선다형 객관식으로 듣기, 읽기 시험을 하게 되니까 의사소통 훈련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정보차 활동이 교과서에 들어가야 하고, 이것이 교육에 반영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현재까지도 교과서에는 읽기 자료가 좀 무겁게 들어간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교

과서는 모두 앞부분에 듣기, 말하기 활동을 준 다음에 읽기 자료가 길게 한 번 나오고, 그에 대해 이해 확인 활동을 하고 나서, 문법, 쓰기 등의 활동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긴 읽기 자료를 한 번에 제시해야 할 필요는 없다. 저학년의 경우는 한 단락 수준의 짧은 글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토론하고 써 보는 활동을 하며, 다시 한 단락 수준의 짧은 글을 읽고 토론하고 써 보는 활동을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천편일률적인 패턴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 안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좀 더 자유롭고 다양한 형태로 연계되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을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네 기능의 연계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약간은 내용 중심의 영어 교육이 가능하도록 영어 교과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에 관한 단원이라면, 아인슈타인에 대해 철저히 영어로 탐구하고 발표하고 쓸 수 있도록 단원이 편찬되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읽기 자료가 아인슈타인에 대한 것인데 듣기, 말하기, 쓰기 활동은 별개의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2) 교과서 외적 문제

교과서 외적 문제로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은 검정 교과서의 검정 방식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앞으로는 교육과정도 수시 개정한다고 하니, 교과서 검정도 수시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에 일정한 기준을 통과하는 교과서는 모두 합격하게 해야 교과서 개발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창의성 있는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잘 따르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창의적인 활동을 하려고 해도 심사 규정이 신경 쓰이고, 불합격에 대한 염려 때문에, 모나지 않고 감점을 면하는 쪽으로 교과서가 개발되는 경향이 있다.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여서 소비자인 학생과 교사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V. 결 론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는 그동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교과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현실적인 제약 등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 앞으로 우리 교과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계와 정부가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연

지식 정보화 사회의 교과서상(像)

지식 정보화 사회의 바람직한 사회과 교과서의 미래상

글 서태열(고려대학교 교수)

Ⅰ. 서 론

우리 교육에서 교과서는 수동적으로 이해해야 할 대상에서 학습을 통해 새롭게 해석하거나 발견해야 할 대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으며, 학교 교육에서 교과서를 성전(bible)과 같이 보는 관점에서 교수 학습을 돕는 자료라는 관점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도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것이고,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구현을 위한 기초 수단이므로, 교과서의 역할을 교육과정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만, 교과서관은 보다 유연해야 하고 학습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교과서와 관련하여 그동안 나타난 주요한 문제점들을 보면(김정호 외, 1998, 45), 교과서관의 문제 외에도 내용상의 문제점과 외형상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어 왔다. 내용상의 문제점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학문 중심의 추상적이고 어려운 내용들로 구성되고, 교과에 대한 학습자의 관심과 성취도를 떨어뜨리며, 다양한 원천에서 나오는 정보를 충실하게 수집하지 못하여 사회 변동과 학습자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과 같은 것들이다. 그리고 교과서 외형 체제 면에서는 교과서의 크기, 색도, 지질 등의 측면에서 떨어진다는 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교과서관의 문제, 내용의 문제, 외형의 문제들은 교과서를 교과서 그 자체로서 보는 데서 기인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교과서를 그 자체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교육과정의 목표를 실행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본다면 이러한 문제점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교과서는 매우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좀 더 거시적인 사회적 차원에서 교과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사회의 변화는 교육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고, 교육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교육, 새로운 교육과정, 그리고 이를 위한 새로운 교과서를 요구하게 된다.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한 하나의 교수 학습 자료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최종적 과정인 교실 수업에 있어서 교과서는 중대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 자료들과 더불어 특정한 시기나 특정한 시대의 시대상뿐만 아니라 교육의 상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바로 이 점에서 교과서는 사회와 시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와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교과서의 모습

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지식 정보화 사회의 바람직한 교과서의 미래상을 파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거시적인 차원에서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한 논의와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살아 있는 사회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하였다.

Ⅱ. 바람직한 사회과 교과서의 모습에 대한 탐색 : 외적 요인(지식 정보화 사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반영이고, 교육과정은 학문과 사회의 반영이다. 즉, 교과서가 사회적 변화에 따른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면서 해당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과 가치를 다루게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1세기는 지식이 사회의 핵심적 가치로 부각되는 지식 기반 사회라고 불리며, 과거와는 다른 성격의 지식들이 요구되고 이에 따라 교육도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변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다루는 교육 내용이나 가르치고자 의도하고 있는 지식 및 가치도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게 된다. 즉,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의 성격 및 지식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의 특성을 토대로 지식 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교과서의 내용이 무엇이고 교과서의 바람직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검토할 수 있다. 허경철 등(2000, 58~66)과 강창동(2003, 120~138)은 지식 기반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지식 기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상뿐만 아니라 지식이 주는 사회적 파급의 긍정적, 부정적인 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식 기반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의 특성을 다음의 6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이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지식 기반 사회의 바람직한 교과서의 모습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첫째,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의 특성은 상대성이다. 즉, 지식 기반 사회에서의 지식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정당화시키고, 사회의 탈중심화를 촉진하는 실질적 역할을 하게 되므로, 미래 사회는 어떤 지식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경쟁력에서 비교 우의의 기준이 된다. 이러한 지식이 상대성이 강조되는 환경에서는 적응력이 뛰어난 기능적 인간보다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는 창조적 인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교과서는 과거의 지식의 전수와 전달을 중심으로 하는 교과서보다 지식의 생산과 창조에 유익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

또, 지식 기반 사회에서의 지식의 생성은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것을 말하며, 지식은 일정한 체계를 갖춘 사회적 의미망이다. 사회의 변화는 의미의 변화를 뜻하며, 새로운 의미의 생성을 나타내므로, 지식 기반 사회의 환경 조건은 지식의 의미 변화, 즉 새로운 의미 탄생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는 지식을 다룸에 있어서도 구성주의적이어야 하며, 다양한 의미의 생성과 변화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식을 닫힌 지식, 그리고 저장된 지식을 다루기보다는 흐르는 지식, 즉 유연하게 끊임없이 변하는 지식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지식 기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의 특성은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것이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은 머릿속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행되고 실천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지식에서 중요한 것은 실천성과 실용성이 문제이며, 지식은 삶에 구체적으로 유용하게 쓰여야만 의미가 있게 된다. 따라서, 지식 기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은 삶과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것을 다루는 것이어야 하고,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식을 다루는 교과서 또한 삶과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을 다루어 주어야 하며, 실행과 행동과

관련된 것들이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지식 기반 사회의 지식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강한 실천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지식이 생활 현장에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해야 하고, 인간의 삶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어야 하며, 스스로 행동을 증명한다는 실천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식 기반 사회에서 지식은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지식 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교과서는 지식의 전달, 전수보다도 적용과 활용을 통하여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지식 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은 경제적인 것이어야 하며, 교환의 가치가 높은 것이어야 한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 경제적 가치의 핵심은 교환 가치이며, 교환 가치의 극대화는 곧 지식의 고부가 가치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에서 새로운 지식의 생성은 경제 가치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식 기반 사회에서 지식은 교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용적 재화이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 지식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기존의 지식을 이용하여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 기존의 지식을 변형, 발전시켜 가치를 높이는 것, 새로운 지식의 생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강창동, 2003, 132). 그러므로 지식 기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교과서는 기존의 지식을 이용하고 적용하는 기회, 기존의 지식을 변형하고 발전시키는 기회,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넷째, 지식 기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은 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지식의 생성이 자유롭고 빨리 일어나며, 이에 따라 지식은 일정한 학문 체계 안에서만 고립될 수 없으며, 지식은 다른 지식과 연결되면서 자유롭게 이동하게 된다. 지식의 경계선이 부정되고 지식의 자유로운 이동이 일어나며, 이는 다시 새로운 지식 생성의 원천이 되므로 이러한 생성을 위해서 지식의 통합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식 기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은 고정된 지식이 아니며 틀에 박힌 것이 아니다. 지식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하여 탄력적이고 생동감이 있어야 하며, 교과서는 이러한 지적 활동들을 장려하거나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지식 기반 사회에서 지식은 전문적인 것이어야 한다(허경철 등, 2000, 58~66). 지식 기반 사회에서 지식의 사회적 가치를 주도하는 지식은 대부분 첨단적 위치에 있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전문적 지식이며, 새로운 지식의 생성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궁극적으로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전문성을 통해 누가 먼저 질이 높은 지식으로 고도화시키느냐에 따라 경쟁력의 비교 우위가 결정된다(서태열, 2002). 따라서, 지식 정보화 사회의 교과서는 질 높은 지식을 생산할 수 있으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여섯째, 지식 기반 사회에서 지식은 인문적 관점을 요구한다. 즉,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사회 권력의 수평화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인문적 지식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식 정보화 사회의 교과서는 풍부한 감성, 윤리, 도덕, 인간관 등 다양한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지식 정보화 사회의 특성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식 정보화 사회의 지식의 특성을 고려하는 교과서가 필요하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 지식은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력과 같은 고차적인 사고 능력을 키울 것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지식은 통합적이고 결합성이 강하며, 유연한 연성 지식(flexible knowledge)이라고 불린다.

김성재(1999)는 전통적인 사회와는 다르게 지

식 기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은 정보의 폭발적 증가에 대응하고, 지식의 신속성, 다양성, 복잡성, 중첩성 등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연계망적 지식 또는 문제 해결적 지식이라고 구분하였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이러한 지식들을 키워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식들이 갖고 있는 속성들을 잘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식 정보화 시대의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식이 다루어져야 한다.

첫째,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의 지식에 대한 재개념화가 요구된다(소경희, 이화진, 2001, 13). 독일의 교육 연구부(김성재, 1999, 16)는 일반적인 기초와 문화 능력, 그리고 정보 기술의 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도구적 능력, 개인의 경험적 지식과 지식을 처리하는 개인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개인적 능력,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능력, 시사 문제에 대한 사실적 지식과 일상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기본적 사실에 관한 능력과 같은 것을 보편적으로 가져야 할 하나의 일반 지식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들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에 대한 정의는 기존의 전통적인 지식의 정의와는 매우 다른 것이므로 지식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식의 성격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다룰 지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식 정보화 시대에 학교에서 다루는 지식은 파편적 지식이 아니라 총체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다른 지식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행동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는, 그리고 삶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의 체제' 속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이돈희 외, 1999, 28).

셋째, 무엇에 대한 명제적 지식이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와 관련되는 방법적 지식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지식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학습 혁명 요소는 문제 인식과 해결 방법으로 교과서는 이러한 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학생들이 지식 소비자가 아니라 지식 생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자기 주도적인 학습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Ⅲ. 바람직한 사회과 교과서의 모습에 대한 탐색 2 : 내적 요인 (살아 있는 사회과)

이혁규(1998)는 내용 전개 체제 면에서 사회과 교과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점들이 여전히 있어 왔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즉, 단원 형식의 경직성, 내용과 관계없이 모든 단원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단원별로 접근하도록 유도하여 인간 경험의 총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며, 통합적 접근에 가장 좋은 요소가 많으나 통합적 접근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고차적 사고의 성장을 어렵게 하는 단편적 지식 위주의 서술이 나타나며, 많은 내용을 다루는 관계로 매우 압축된 형태를 지니고 있어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읽어서 이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교과서가 되고 있다. 이는 사회과 교과서가 다양한 관점보다 고정된 하나의 관점만을 제공하며, 모든 내용을 일률적으로 배우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흥미나 적성에 따른 선택적 학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의 기회도 제한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용규(1998, 43~44)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내용 구성 면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신장을 돕는 교과서를 강조하면서, 이를 위하여 주제, 문제 중심의 통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선정하고, 교과서 외의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와 연계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이 실효성을 거두고 교과

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제안들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바람직한 사회과의 모습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러한 논의들은 교과서의 체제나 형식에 대한 일반 논의의 연장선에 있는 것인데, 바람직한 사회과 교과서의 상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는 '바람직한 사회과' 또는 '살아 있는 사회과'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Maxim의 '살아 있는 사회과'에 대한 논의는 매우 의미 있는 논의이다.

Maxim(2003, 36~58)은 바람직한 사회과의 모습을 '살아 있는 사회과'로 보았는데, '살아 있는 사회과 교육'의 중요한 구성 요소를 기능적 내용, 방법적 기능, 내재적 동기, 범교과 간 통합,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다섯 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그림 1 참조). 이 다섯 가지 구성 요소는 NCSS(1981)가 모범적인 사회과 교육 프로그램의 본질적 요소로 제시한 네 가지, 즉 지식, 민주적 신념, 사고 기술, 참여 기술을 변형시킨 것으로, 기존의 사회과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잘 반영하고 있어서 '살아 있는 사회과 교과서'가 되기 위한 조건을 파악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살아 있는 사회과의 첫 번째 구성 요소이자 조건은 기능적 내용인데, 이는 문제를 인식하고 확인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공급하는 의미 있는 지식의 핵심을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사회과 교과서는 사회과와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지식의 핵심을 담고 있어야 한다. 즉, 사회과 교과서는 사회과와 관련된 탐구력을 자극하고 사회과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독창적인 일을 하도록 해 주는 사회과 교육 내용의 배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과 교과서는 사회과 탐구를 통해 더 많은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두 번째 요소인 방법적 기능은 사회과의 배경이 되는 역사, 지리 및 제 사회 과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아는 것인데, 사회과 교수의 '무언가 특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과 교과서는 역사, 지리 및 제 사회 과학과 관련된 정보를 이해하고, 그 정보의 출처가 무엇이며, 그 정보에 대해 던져야 할 질문의 종류, 그리고 그 질문을 탐구하는 방법을 알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과학적인 과정에 해당된다고 간주되는 전략, 습관, 능력, 태도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과 교과서는 교실의 학습자 공동체에게 의미 있는 내용을 제공하고, 사회 과학 학문을 탐구할 수 있게 해 주는 과정을 활용하도록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 수반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구성 요소인 내재적 동기 부여는 활동을 하도록 자극하거나, 어떤 활동 속으로 우리들을 몰입시키는 내재적 동기 부여 또는 내면적인 충동이 생기도록 하는 것으로, 사회과 교과서는 내재적 동기 부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활동만으로는 내재적 동기를 제공하지 못한다. 외부의 압력이나 보상에 의해 동기화되어 힘을 불어넣는 외재적 동기화에 비해, 내재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때 흥미, 즐거움, 그리고 만족도가 커질 뿐만 아니라, 그 활동에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참가하도록 만들어 준다.

따라서, 사회과 교과서는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자극하고 그 활동 속으로 몰입시킴으로써 흥미, 즐거움, 만족도를 높이는 내재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과 교과서는 내재적 동기 부여를 위하여 흥미와 기쁨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기 자신의 필요를 느끼도록 하여 자기 결정에 의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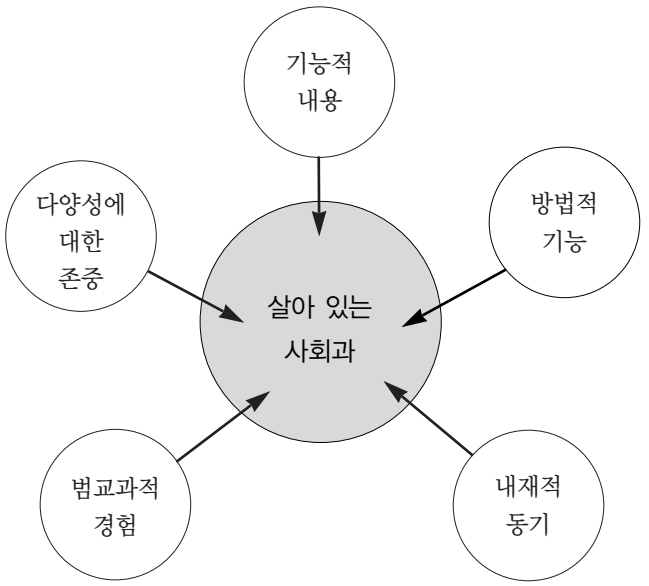
네 번째 구성 요소인 범교과 간 통합, 즉 범교과 경험의 장려는 사회과가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한 영역을 통합하고 결합하여 모든 과목에 걸친 다양

사회과 교과서는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자극하고 그 활동 속으로 몰입시킴으로써 흥미, 즐거움, 만족도를 높이는 내재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과 교과서는 내재적 동기 부여를 위하여 흥미와 기쁨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기 자신의 필요를 느끼도록 하여 자기 결정에 의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최근의 학문적 경향뿐만 아니라 교육에서 범교과의 경험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 사실 사회과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들이 교과의 영역이나 경계만을 지키는 것보다 지식의 확장과 사고의 유연성을 위하여 교과 간에 넘나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되어지고 있다(이른바 지식의 통섭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어진다.).

다섯 번째 구성 요소인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사회과의 핵심적인 관심 거리가 되고 있는 바, 인종이나 민족, 언어, 성 또는 특수성 때문에 차별을 경험해 온 집단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자 이들을 배려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사회과 교과서는 다양한 집단들을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가정적 배경, 언어, 그리고 능력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의 논의에서처럼 살아 있는 사회과, 바람직한 사회과의 다양한 요소들을 잘 반영하고 충족시킬 수 있을 때, 사회과 교과서는 교과의 본질에 충실하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살아 있는 사회과 모형(Maxim, 2003, 38)

Ⅳ. 결 론

이 글은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한 논의, 그리고 살아 있는 사회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식 정보화 사회의 바람직한 교과서의 미래상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그 논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식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교과서는 지식을 다룸에 있어서도 구성주의적이어야 하며, 다양한 의미의 생성과 변화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이때 지식은 닫힌 지식, 그리고 저장된 지식을 다루기보다 흐르는 지식, 즉 유연하게 끊임없이 변하는 지식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식 정보화 사회는 지식의 전달, 전수보다도 적용과 활용을 통하여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교과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의 지식을 이용하고 적용하는 기회, 기존의 지식을 변형하고 발전시키는 기회,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과서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지식 정보화 시대에 사용되는 지식은 전통 시대의 것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교과서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으로서 지식에 대한 재개념화가 요구된다. 또, 파편적 지식이 아니라 총체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와 관련되는 방법적 지식이어야 하고, 문제 인식과 해결 방법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살아 있는 사회과를 담아 내는 사회과 교과서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과 교과서는 살아 있는 사회과의 다섯 가지 조건인 기능적 내용, 방법적 기능, 내재적 동기, 범교과 간 통합,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회과 교과서는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자극하고 그 활동 속으로 몰입시킴으로써 흥미, 즐거움, 만족도를 높이는 내재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사회과 교과서는 자기 자신의 필요를 느끼도록 하여 자기 결정에 의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교과의 영역이나 경계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확장과 사고의 유연성을 위하여 교과들 간에 넘나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되어야 한다. 연

참고 문헌

- 김성재. 「하나의 세계 체제와 지식 기반 사회의 도래」.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를 대비한 국가 발전 전략과 교육 개혁』. 대통령 자문 새교육 공동체 위원회. pp.7~20, 1999.
- 김정호 외. 『교과서 모형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8.
- 김정호. 「교과서의 쟁점과 발전 전략」. 『창립 총회 및 학술 대회 자료집』. 한국교과서연구학회. pp. 21~49, 2007.
- 서태열. 지리 교육과정에서 '내용'으로서 '지식'에 대한 논의.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제10권 제1호. pp. 13~25, 2002.
- 소경희 이화진. 『지식 기반 사회에서의 학교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기초 연구(I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
- 이용숙 외. 『수준별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과서 내용 구성 방안 세미나』. 덕성여대 열린교육연구소, 1998.
- 허경철 조덕주 소경희. 「지식 생성 교육을 위한 지식의 성격 분석」. 『교육과정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교육과정학회, 2001.
- Maxim, George, W.(최용규 외 공역). 『살아 있는 사회과 교육』. 학지사, 2003.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략을 통한 창의적 사고 능력 향상

글 이용애(용인성복초등학교 교사)

Ⅰ. 들어가며

헬렌 버클리가 쓴 '한 소년 이야기' 속의 소년은 미술을 아주 좋아한다. 어느 날 선생님은 "내일은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 소년은 마음속으로 "좋았어!"라고 외친다. 그는 그림 그리는 것을 무척 좋아했고, 사자, 호랑이, 병아리, 소, 기차, 배 무엇이든 잘 그릴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년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그때 선생님은 "기다려! 아직 시작해서는 안 돼, 다른 모든 아이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라고 한다. 선생님은 "이제부터 꽃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다. 소년은 "좋았어." 하고 외쳤다. 그는 꽃 그리기를 매우 좋아했으니까. 핑크색, 오렌지색, 파란색으로 꽃을 그리려고 한다. 그러나 선생님은 "기다려! 내가 꽃을 어떻게 그리는지 보여 줄 거야." 그리고 칠판에 초록색 줄기에 빨간색 꽃을 그린다. 그리고 "이제부터 꽃을 그리세요."라고 한다.

다음 찰흙 시간에도, 그 다음 그리기 시간에도 선생님은 "기다려. 내가 만드는 것을 보여 줄게." 한 후 "이제부터 만들기 시작해."라고 한다. 소년은 오래지 않아 기다리는 법과 지켜보는 법을 배웠고, 선생님과 똑같이 그리고 만드는 법을 배웠고, 그리 오래지 않아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시간이 흐르고 소년은 다른 선생님을 만났다. 그 선생님도 "오늘은 그림을 그리겠어요."라고 말한다. 소년은 "잘됐군!" 생각하며 선생님의 지시를 기다린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다리고 있는 소년에게 다가온 선생님은 "넌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니?" 하고 질문을 한다. 소년은 "무엇을 그릴까요?" 하고 물었다. 선생님은 "네가 그리기 전까진 나도 모르겠구나." 한다. "어떻게 그려야 하나요? 무슨 색을 쓸까요?" 소년은 또 묻는다. 선생님은 "아무 색이나 네가 사용하고 싶은 색을 쓰렴. 만약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그림을 그리고 같은 색을 칠한다면 누가 무엇을 그렸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니?" 소년은 핑크색과 오렌지색과 파란색 꽃과 둥글지 않은 접시를 그리고 만들기 시작했다.

미래 학자 피터 드러커에 의하면, 과거의 경험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잠재된 가능성의 발견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는 학교를 향해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해답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학교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간을 교육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학교는 아직도 한 소년에게 제공했던 전자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가 여기에 소개하고자 하는 '창의성 교육 사례'는 학생들에게 때로는 파란색 꽃을 그릴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고 전략의 일례이다.

Ⅱ.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략

고학년 학생들이 주장하는 글을 보면 많은 학생이 '우리는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둘째, .' 와 같이 정형적인 글쓰기를 한다. 물론 이러한 형식도 글쓰기 초기 단계에서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학년이 진급되면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보편타당한 결론에 초점을 맞추어 진술함으로써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이 부족한 '답안지용' 글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략' 은 학생들의 정형화된 사고 패턴에 변화를 주어서 자신의 생각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글을 쓰는 목적과 읽을 대상, 글의 형식, 말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창의적인 읽기' 와 '창의적인 글쓰기' 를 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학습 활동이다. 이 전략을 읽기에 활용하면 학생들은 글 속의 인물이 되어 그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어떤 형식으로 나타내면 좋을지를 생각하며 글을 읽게 된다. 또, 내가 등장인물이 되어 읽은 글에서 느끼고 생각한 것을 이 전략에 따라 글로 나타낸다면 보다 생생한 자기 글을 쓰는 데 효과적이다.

(1) 활동 단계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략 이해하기	학습 주제와 관련하여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를 탐색한다.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정하기	글을 읽으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를 정한다.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로 쓰기	선택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로 글을 쓴다.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감상하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에 따라 쓴 내용을 발표한다.

(2) 활동 사례

(가) 전략 이해하기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자.' 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하여 관련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를 탐색한다.

예 누가 : 훔침을 당한 물건이
누구에게 : 물건을 훔친 아이 어머니에게
무엇을 : 아이가 왜 물건을 훔쳤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 편지로

(나) 글을 읽으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정하기

주제와 관련된 글을 읽으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를 정한다.

예 누가 : 썩은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

누구에게 : 썩은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은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도 있다는 것을

어떻게 : 생활 에세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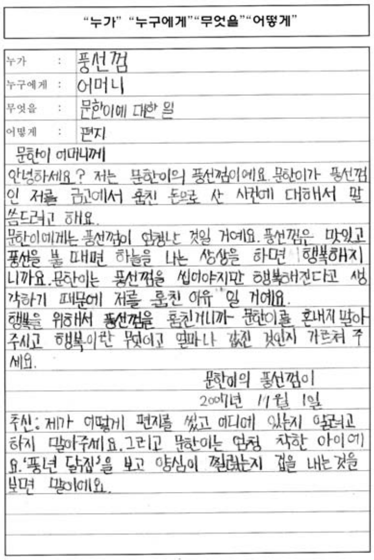
(다) 글쓰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에 따라 글을 쓴다.

(라) 발표하고 감상하기

발표는 직접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할 수도 있으며,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탑재한 후 답글을 통해 서로의 생각에 대해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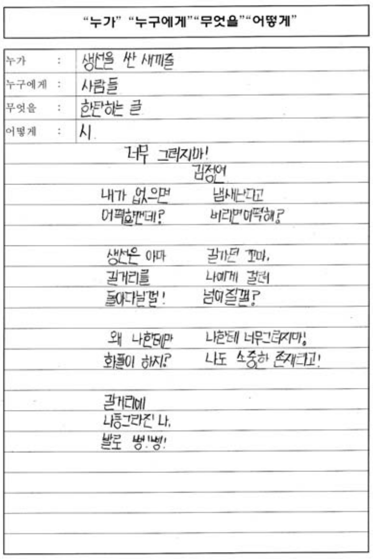
(마) 학생 작품의 예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누가 : 풍선껌
누구에게 : 어머니
무엇을 : 문한이에 대한 일
어떻게 : 편지

문한이 어머니께
안녕하세요? 저는 문한이의 풍선껌이에요. 문한이가 풍선껌인 저를 금고에서 훔친 돈으로 산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문한이에게는 풍선껌이 엄청난 것일 거예요. 풍선껌은 맛있고 풍선을 불 때면 하늘을 나는 상상을 하면 행복해지니까요. 문한이는 풍선껌을 씹어야지만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를 훔친 이유 일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풍선껌을 훔친거니까 문한이를 혼내지 말아주시고 행복이란 무엇이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가르쳐 주세요.
문한이의 풍선껌이
2007년 11월 1일
추신: 제가 어떻게 편지를 썼고 어디에 있는지 알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문한이는 엄청 착한 아이에요. '풍년 닭집'을 보고 양심이 찔렸는지 겁을 내는 것을 보면 말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누가 : 생선을 싼 새끼줄
누구에게 : 사람들
무엇을 : 한탄하는 글
어떻게 :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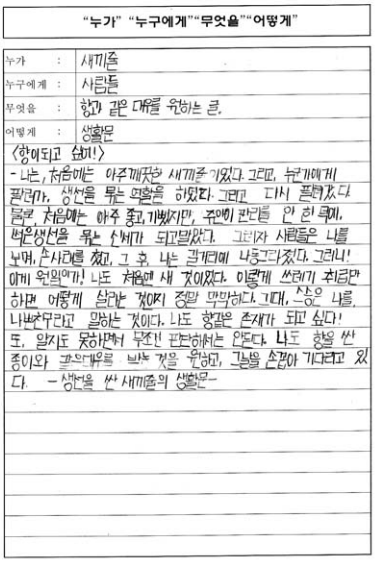
너무 그러지마!
김정연

내가 없으면 냄새난다고
어떡할건데? 버리면 어떡해?

생선은 아마 갈기던 꼬마,
길거리를 나에게 걸려
돌아다닐걸! 넘어질껄?

왜 나한테만 나한테 너무그러지마!
화풀이 하지? 나도 소중한 존재라고!

길거리에
나뒹그라진 나.
발로 뻥!뻥!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누가 : 새끼줄
누구에게 : 사람들
무엇을 : 향과 같은 대우를 원하는 글.
어떻게 : 생활문

〈향이되고 싶어!〉
- 나는, 처음에는 아주깨끗한 새끼줄이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팔려가, 생선을 묶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다시 팔려갔다. 물론, 처음에는 아주 좋고, 기뻤지만, 주인이 관리를 안 한 탓에, 썩은생선을 묶는 신세가 되고말았다. 그러자 사람들은 나를 보며, 손사래를 쳤고, 그 후, 나는 길거리에 나뒹그라졌다. 그러니! 이게 웬일이가! 나도 처음엔 새 것이었다. 이렇게 쓰레기 취급만 하면 어떻게 살라는 것이지 정말 막막하다. 그때, 세상은 나를, 나쁜존재라고 말하는 것이다. 나도 향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또,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판단해서는 안된다. 나도 향을 싼 종이와 같은대우를 받는 것을 원하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생선을 싼 새끼줄의 생활문-

Ⅲ. 나오며

미국의 생물학자 바버라 매클린턴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생각을 하지만 누구나 똑같이 잘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즉, 요리의 대가, 춤의 달인이 있듯이 '생각의 달인' 이 있다고 한다. 그는 여러 가지 지적 배경들을 가지고 맛을 내고 섞고 조합하는 것에 도통한 사람인 것이다. 그런 사고의 달인들이 말하는 사고의 기법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것이다.

우리는 헬렌 버클리가 쓴 시에 비추어 전자인가 후자인가, 또 무엇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는 '사고의 달인' 인가. 여기에 소개한 짧은 창의성 향상 전략 사례가 '어떻게' 를 위한 단초가 되었으면 좋겠다. 연

논단

교과용 도서와 저작권

글 **최종철**(문화관광부 행정사무관)

저작권 제도는 두 바퀴를 가진 수레와 같다. 저작권 제도가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이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어야만 잘 작동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작권 제도의 목적은 저작권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저작권 제도의 이러한 속성은 저작권을 저작권자의 온전한 권리로 남겨 두지 않고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보호 기간, 법정 허락 및 보호되지 못하는 저작물, 그리고 많은 경우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등이 그것이다. 이에 관한 학교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도 저작 재산권 제한을 하고 있는데, 교과용 도서에 대한 제한도 그러한 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즉, 교과용 도서에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사전에 저작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일단 교과서 제작에 저작물을 이용한 이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교육 목적의 교과서가 용이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익도 보전하는 것이다.

Ⅰ. 교과용 도서란?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에서는 교과용 도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교과용 도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429호)'에 있는데, 이 규정 제2조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란 교과서와 지도서를 말하며, 이를 다시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과용 도서의 요건으로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교육 목적상 사용되는 것으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된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다만, 도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서적류의 학습 교재와 달리 최근에는 음반, 영상 저작물 및 전자 저작물이 교과용 도서에 포함되었는데, 이를 저작권법상 교과용 도서로 해석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작권법상 교과용 도서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고 그동안 교과용 도서의 개념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상의 도서가 교과용 도서라는 판례를 감안할 때 동 규정에서 교과용 도서로 규정된 음반 및 영상 저작물을 저작권법상 교과용 도서로 해석하는 것은 기술과 저작물의 이용 환경에 저작권법이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Ⅱ. 교과용 도서의 저작권 문제

(1) 교과용 도서와 저작권의 관계

저작권법상 교과용 도서는 사전에 저작자의 허락을 얻을 필요가 없이 일단 저작물을 게재한 후 사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과용 도서와 저작권자 간에는 권리 침해의 소지 없이 채권적 청구권만 존재하게 된다. 교과용 도서 보상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저작권법 전면 개정 시 저작 재산권의 제한 절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나 문교부 장관이 저작권을 가지거나 문교부 장관의 검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사실상 교과용 도서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규정은 1994년 저작권법 개정 시 보상금 지급 면제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교육부의 요청으로 그 규정의 시행을 5년간 유예하면서 1999년부터 교과용 도서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과거에는 저작 인접권과 관련하여 교과서의 제작과 관련한 저작 인접권 제한 규정이 없어 멀티미디어 교과서 제작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2006년 개정법에서는 저작 인접권도 교과서 제작 시 권리가 제한되도록 개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은 해결되었다.

(2)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교과용 도서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사전에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저작자로부터 직접 저작물의 원본을 받아 이용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든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37조 및 제38조). 한편,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자에게 주어진 저작 인격권인 동일성 유지권은 어느 정도 제한되게 된다. 즉, 학교 교육 목적상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 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에 대하여 저작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법 제13조). 여기서 '표현의 변경'이란 어려운 표현을 쉽게 하거나 또는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반사회적 반도덕적인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변경이 허용되어 있고, 그것도 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3) 위탁하여 제작하는 경우

교과용 도서를 제작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함이 없이 교과서 발행 주체가 위탁하여 원고를 작성할 경우, 저작 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아니면 교과서에 사용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교과서에 싣는 것 자체는 큰 차이가 없으나 이후 참고서에 사용하거나 온라인상으로 이용 시 이용 허락의 주체가 달라지는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Ⅲ. 교과용 도서 보상금의 지급 및 분배

(1) 지급 및 분배 절차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서는 교과용 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 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9월 문화관광부에서는 이러한 교과용 도서의 지급 분배와 관련하여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를 관련 단체로 새로이 지정한 바 있다. 그동안은 어문, 미술, 사진 저작물에 대하여는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에서, 음악 저작물과 관련하여서는 (사)한국

음악저작권협회에서 각각 징수 분배하여 왔으나, 이번 지정을 통해 교과서 보상금 수령 단체가 일원화된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교과용 도서의 보상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는 매년 문화관광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교과서 보상금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교과서의 범위에 기존의 서적류 외에 음반, 영상 저작물 및 전자 저작물이 포함되었고, 전자 교과서에서는 음악 저작물을 실연한 것을 포함하거나 영화와 같은 영상 저작물을 포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상금 지급 기준에 있어서 저작물의 유형에 음악 저작물의 실연, 영화와 같은 영상 저작물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 보상금 지급 기준이 어문, 미술 사진, 음악 저작물로만 한정되어 있는 바 향후 음반, 영상 저작물을 이용한 교과서나 전자 교과서가 등장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분배의 문제

그동안 교과용 도서의 보상금은 해당 단체에서 분배하여 왔는데, 저작자를 알기 어려운 사진 분야에서는 상당 금액이 미분배 금액으로 남게 되었다. 2000년대 초반 보상금 지급액은 어문 저작물은 약 50%였으나 미술 저작물은 지급률이 20%, 사진 저작물은 지급률이 4% 정도로 미미하였던 바, 이는 각 저작물과 관련한 저작권협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도 한 원인이 된다는 의견도 있으나, 가장 큰 원인은 미술이나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 표시나 출처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교과서 편찬 시 최대한 저작자 명의나 출처를 확인해서 표시한다면 교과서 보상금의 지급률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본다. 특히, 과거에는 실연자의 경우 성명 표시권이 없어 실제 음반 등이 교과서에 이용되더라도 권리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희박했으나, 2006년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자에 대한 성명 표시권을 인정함으로써 앞으로 실연자에 대한 교과서 보상금이 발생할 경우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제도 도입 초보다는 보상금 분배율이 최근 다소 상승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많은 금액이 미분배 되어 일정 기간 법원에 공탁하였다가 그후에 국고에 귀속되는 형편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저작권법 개정 시 미분배금에 대하여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공익 목적이라 함은 저작권 교육 홍보 및 연구, 저작권 정보 관리 및 제공,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저작권 보호 사업, 창작자 권익 옹호 사업,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돕기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

Ⅳ. 교과용 도서의 이용

(1) 일반적인 이용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참고서 제작 등에 이용할 경우 권리 처리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얻으면 된다. 참고서의 경우에는 교과용 도서처럼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만큼 사전 사용 허락을 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교과서 발행 주체가 위탁 등에 의해 직접 작성한 저작물의 경우 교과서 발행 주체의 허락을 받으면 되고, 개별 저작자가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개별 저작자의 허락을 얻으면 될 것이다.

(2) 시험 문제로의 이용

교과용 도서에 실린 지문을 이용하여 시험 문제를 냈을 경우 이는 저작권법상 학교 교육 목적에 의한 면책인가? 시험 문제로서 복제에 따른 면책인가? 이에 대하여 학교 등의 교육 기관에서 학기말 시험 등 정기 고사는 시험 문제로서 복제 조항에 따른 면책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학교 교육 목적에 의한 복제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

한 시험 문제를 입시 학원 등에서 다시 사용할 경우 이용자는 누구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 원 저작자의 허락은 물론 시험 문제를 출제함에 있어 창작성이 있을 경우에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허락을 얻어야 할 것인데, 학교 시험을 위해 출제한 문제의 경우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른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되어 학교 등이 권리자가 될 것이므로 학교 등의 사용 허락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시험 문제 중에 창작성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 인용된 저작물의 원저작자의 허락만 얻으면 될 것이다.

Ⅴ. 기 타

교과서 발행 주체가 저작자로부터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는 것은 가능한가? 교과용 도서에 대한 보상금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교과서 발행자가 개별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와 이처럼 허락을 받아 사용한 저작물에 대해 다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사견으로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만 된다면 사용료든 보상금이든 저작자가 대가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을 보상금 제도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만일 사용 허락을 한 경우에는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편, 이럴 경우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보상금과 달리 보상금 기준보다 높은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고 지정 단체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이나, 실제 교과서 발행 주체에서 보상금보다 높은 가격의 사용료를 지불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므로 권리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상 금액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 교과서 발행 주체에서 무료로 사용 허락을 얻거나 교과용 도서 보상금보다 적은 금액을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저작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지양해야 할 것이다. 연

---

1) 이호흥. '교과용 도서와 보상금'. 교육마당 21. p. 52. 통권 제241호, 2002. 3.

2)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2.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 음반 영상 및 전자 저작물 등을 말한다.
3. '지도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 음반 영상 및 전자 저작물 등을 말한다.

3) 오승종 이해완. '저작권법 제3판'. 박영사. p. 263, 2004.

4) 정민택. '교과용 도서 발행에 따른 저작권법의 이해'. 교과서연구 제40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p. 56, 2003. 6.

5) 이장선. '교과용 도서의 저작권 보상금 업무, 문제점과 몇 가지 제안'. 저작권 문화 제24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pp. 20~21, 2004. 12.

6) 허희성. '저작권법 축조 개설(상)'. 저작권아카데미. p. 321, 2000.

핀란드의 교육 제도

글 김정영(헬싱키대학교 교수)

최근 OECD가 각국의 주요 교육 영역을 평가하여 발표한 피사(PISA :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보고서에서 핀란드가 읽기, 과학 영역에서 1위, 문제해결력과 수학에서는 2위로 평가되어 세계 최고의 교육 우수 국가로 알려지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많은 교육 정책 연구 관계자들이 끊임없이 방문하고 있다. 핀란드의 인구가 우리나라의 1/10 정도밖에 안 되는 520만으로, 전국의 교육이 평준화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실로 대단한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세계경제포럼(WEF : World Economics Forum)에서 발표한 전 세계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Index rankings)에서 국가 경쟁력 1위의 나라로 선정되어 강소국으로 그 면모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천연자원이라고는 숲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다 일년의 반이 겨울인 척박한 국토에서 인력을 자원이라고 믿는 핀란드가 GNP 3만 불이 넘는 강소국으로 입지를 굳히는 데에 있어 교육이 끼친 영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핀란드의 교육 제도는 어떠한지 아주 간략하게나마 알아보기로 하겠다.

핀란드 교육 정책의 핵심은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연령, 성별, 경제력, 주거 지역, 모국어와 상관없이—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교육은 모든 시민의 기본권으로 간주되며, 핀란드의 교육 제도는 취학 전 과정 1년, 의무 교육의 초중학교 9년, 일반 과정과 직업 훈련 과정으로 양분되는 고등학교 3년, 그리고 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인 대학교로 구성된다. 핀란드는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취학 전 과정부터 대학교까지 무상 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 취학 전 과정(Pre-School Education)

6세가 되어 그 이듬해 취학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며 의무 과정은 아니다. 보육 시설(Day Care Centre)이나 초중학교에 부설된 과정에서 담당한다. 6세에 이른 아동들 중에서 90% 이상이 취학 전 과정에 등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5%를 초중학교의 부설 과정에서 담당하고 있다. 함께 참여하는 각종 게임/놀이와 육체적 활동이 많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어, 단체 구성원으로서의 기능을 취학 전 과정에서부터 습득해 나가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나 아동 하나하나의 개별성을 대단히 강조한다. 한겨울에도 자율적인 실외 활동이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각 한 시간씩 포함되어 있어 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보육 시설이나 학교

마당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2. 초중학교(Comprehensive School)

이 과정은 국민의 기본 의무 교육으로 7세부터 16세까지 9학년 과정이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6년 과정에서는 학급 담임 교사가 모든 과목을 가르치지만, 중학교에 해당하는 상위 3년 과정에서는 과목별 교사가 가르친다. 상위 3년 과정은 초등학교의 연장으로 7, 8, 9학년으로 불려지기는 하나 6년 과정을 마친 후에 다른 학교로 옮겨 다니는 경우가 흔하다. 기본 이수 과목은 국어, 제2국어[1], 외국어, 환경, 보건, 종교나 윤리, 역사, 사회,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리, 체육, 음악, 미술과 공작, 그리고 가정 (또는 가사)이다. 외국어 교육은 3학년에 시작을 하는데, 교사는 거의 대부분이 핀란드 어를 모국어로 하는 자들이다. 대부분이 9년의 초중학교 과정을 밟은 후 졸업을 하지만 학습 성취도에 따라 10학년(추가 교육)으로 진급해 1년 과정을 더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

【표 1】 2005년도 전국 초중학교 각 학년 학생 수

〈단위 : 명〉

1	2	3	4	5	6	7	8	9	10(추가)
57,546	59,867	60,941	63,466	65,070	65,238	67,365	66,474	66,545	2,385

※ 출처 : Statistics Finland

초중학교 과정의 경우, 교과서는 학교에서 무료로 배급된다. 하지만 교과서 중앙 평가 절차가 1993년에 폐지된 이후로는 초 중 고등학교 모두 각 담당 교사가 자율적으로 교재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각 학교별로 명목상 정해 사용하는 교과서가 있기는 하지만, 교사의 재량껏 교재를 다양하게 준비해 활용한다. 예를 들면 언어 수업의 경우, 교과서에 충실하기보다는 인터넷이나 영화, 동화 등에서 발췌한 자료에 더욱 비중을 두어 수업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만을 위해 직접 교과서를 제작 출판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교과서의 내용은 교육부 직속 산하 기관인 교육정책위원회(the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에서 고안한 교안을 기준으로 한다. 학습서 전문 출판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WOSOY, Tammi, Gaudeamus, Gummerus 등 일간지를 발행하거나 일반 서적을 다루는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출판하고 있다. 초중학교에서는 교과서가 무료로 배급되는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수업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구입해야 한다.

3. 고등학교(Upper Secondary School)

9년 과정의 초중학교를 마치면 누구나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으며, 일반 고등학교와 직업 고등학교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교육은 그 해당 지역의 교육 단체와 협의하여 정해진 교과 과정의 틀 안에서 자유롭게 이행한다.

(가) 일반 고등학교(General Upper Secondary School)

학년제가 없는 일반 고등학교의 일 년 과정은 5~6학기로 나누어져 있다. 시간표는 매 학기마다 특정 과목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짜여지고, 각 반의 형성은 학생들이 수강할 과목을 선택한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75개 이상 되는 과목들은 필수 과목, 전문 과목, 응용 과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필수 과목들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학교 당국은 학생들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전문 과목을 개설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응용 과목은 다양한 과목들을 통합한 것일 수도 있고, 방법론이나 직업과 관련된 것 등이 될 수도 있다. 또, 응용 과목은 해당 고등학교 외의 다른 교육 기관에서 수강할 수도 있다.

일반 고등학교 과정 말에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졸업 고사를 치러야 한다. 졸업 고사는 네 개의 기본 과목인 국어, 외국어, 수학, 그리고 과학과 인문학을 포함하며, 봄과 가을에 두 번 시행된다. 학생들은 한 번에 전과목을 치를 수도 있지만 최대한 연속 세 번에 걸쳐 치를 수도 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고등학교 졸업으로 인정이 된다. 대학교의 학위 과정은 졸업식이 없는 반면, 고등학교 졸업식은 매우 중요한 행사로 여겨 특유의 졸업 모자를 구입해 졸업식장에서 쓰고 평생 보관하는 것이 보통이다.

【표 2】 2002~2004 학년도 전국 일반 고등학교 신입생 수와 졸업생 수

〈단위 : 명〉

구 분	2002	2003	2004
신입생	41,020	42,610	43,000
졸업생	36,200	35,170	34,620

※ 출처 : Statistics Finland

(나) 직업 고등학교(Vocational School)

직업 고등학교 진학 대상자는 초중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 외에도 이미 직장에 근무하는 성인들도 해당된다. 성인들의 경우 보통 학생들과 동일한 과정을 밟을 수도 있으나,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좀 더 차원 높은 직업 훈련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할 경우에는 이미 일반 고등학교 졸업 고사에 포함된 내용이 단축되기 때문에 좀 더 짧은 시간에 직업 고등학교 과정을 마칠 수 있다. 116개의 학습 프로그램이 있고 52가지 직종의 기술 자격(증)을 부여한다.

기술 자격(증)을 부여받으려면 총 120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 90학점이 기술 학습이다. 20학점은 일반 기본 과목, 그리고 나머지 10학점은 자유 선택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종에 상관없이 기술 자격(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일터에서 훈련을 받는 실습을 통해 2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1학점은 학교 수업과 자율 학습까지 포함해 40시간을 소요해야 한다.

학생 평가에는 그동안 기술을 얼마나 잘 연마했는지 실제 상황에서 시범을 보이거나 실질적인 과제물을 제출하는 것도 포함된다. 평가 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기본 교과 과정 내에 한하지만 기술 시범은 기업과 합력하여 고안한다.

【표 3】 2002~2004 학년도 전국 직업 고등학교 신입생 수와 자격 취득 졸업생 수

〈단위 : 명〉

구 분	2002	2003	2004
신입생	60,280	60,090	61,300
자격 취득 졸업생	32,440	35,220	37,610

※ 출처 : Statistics Finland

**초중학교 과정의 경우, 교과서는 학교에서 무료로 배급된다.
하지만 교과서 중앙 평가 절차가 1993년에 폐지된 이후로는 초 중 고등학교 모두
각 담당 교사가 자율적으로 교재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각 학교별로 명목상 정해
사용하는 교과서가 있기는 하지만, 교사의 재량껏
교재를 다양하게 준비해 활용한다.**

4. 대학교(Universities and Polytechnics)

대학교는 그 성격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하나는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가르치고 박사 과정까지 제공하는 일반 대학교(universities)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직업 세계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산업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전문기술대학교(Polytechnics)이다.

(가) 일반 대학교(Universities)

일반 대학교는 모두 20개로 국가에 소속되어 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개념의 종합대학교는 10개이다. 그 밖에 경영경제대학교가 3개, 기술대학교가 3개, 그리고 예술대학교가 4개이다. 일반 대학교의 운영 방침은 교육과 학문의 자유와 학교의 자율성이다. 본래 일반 대학교는 학사와 석사가 통합되어 있었으나, 2005년에 학제를 개편하면서 학사 과정 3년과 석사 과정 2년으로 분리되었다. 신입생 선발은 각각의 대학교가 자체적으로 치르는 입학 시험을 통해 해 왔으나 2008~2009학년도에는 선발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대학교들이 공동으로 입학 지원서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박사 학위는 일반적으로 4년 이상이 소요되며 논문을 완성하고 공개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표 4】 2002~2005 학년도 일반 대학교 학 석사 학위 과정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2	2003	2004	2005
입학생	21,876	20,936	19,931	20,084
학위 수여자	14,690	15,290	15,310	15,832
총 학생 수	144,310	147,090	149,170	151,824

※ 출처 : KOTA

【표 5】 2002~2005 학년도 일반 대학교 박사 학위 과정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2	2003	2004	2005
학위 수여자	1,220	1,260	1,400	1,420
총 학생 수	21,940	22,960	22,110	22,200

※ 출처 : KOTA

(나) 전문기술대학교(Polytechnics)

전문기술대학교의 임무는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의 요구와 발전에 부응하는 고등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을 전문 직업인으로 양성하여 배출하는 것이다. 또, 기업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응용 연구와 기술 개발을 수행한다. 이는 29개의 전문기술대학교 중에 18개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지방 자치 단체와 사기업의 공동 협력에 의해 운영되는 바를 통해서도 그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전문기술대학교의 석사 학위는 일반 대학교의 석사 학위와 동일한 수준이지만 전문기술대학교의 석사 과정에 지원하려면 전문기술대학교의 학사 학위와 더불어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표 6】 2002~2005 학년도 전문기술대학교 학사 학위 과정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2	2003	2004	2005
입학생	31,420	32,840	32,690	33,260
학위 수여자	20,480	20,500	20,670	-
총 학생 수	126,360	129,220	130,910	131,250

※ 출처 : AMKOTA

【표 7】 2002~2005 학년도 전문기술대학교 석사 학위 과정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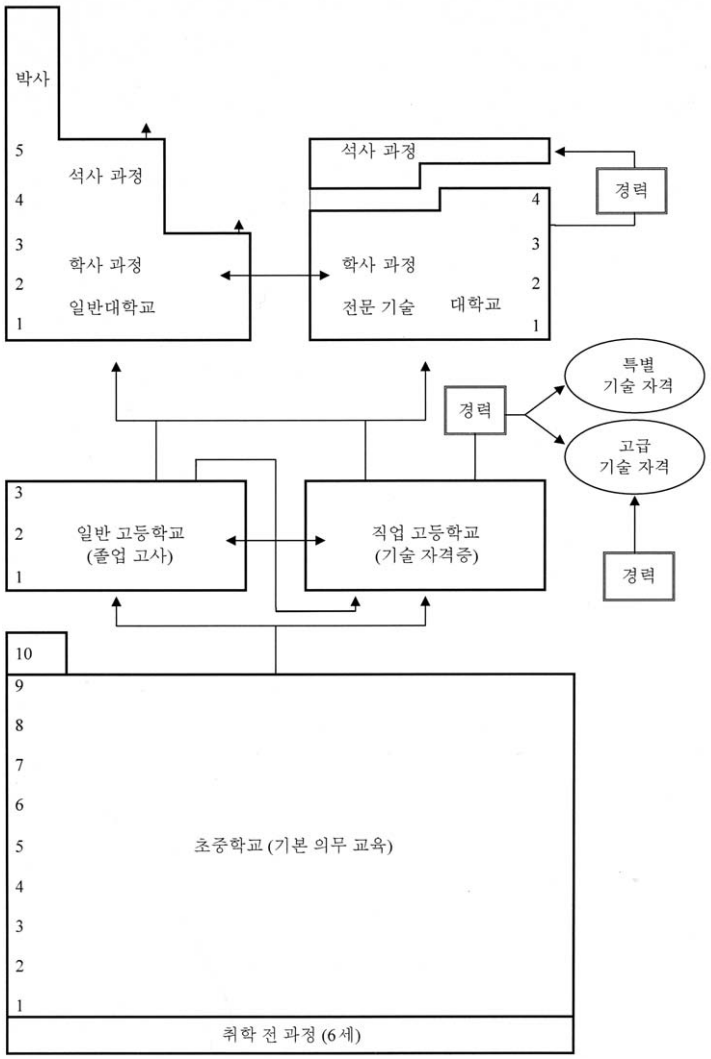
구 분	2002	2003	2004	2005
학위 수여자	160	310	240	630
총 학생 수	160	450	610	1,050

※ 출처 : AMKOTA

이상 핀란드의 교육 제도를 통해 취학 전 과정에서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대략적으로 알아보았다. 핀란드의 교육은 탁상공론식의 교실 학습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향하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의 자율성이 최대한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교육의 특성이 잘 준비된 사회 구성원의 양성을 가능하게 하고, 그 결과로 세계 국가 경쟁력 1위의 나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으리라고 생각해 본다.

1) 핀란드는 2개의 공식 언어—핀란드 어와 스웨덴 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주로 북쪽에 거주하는 사미족들의 언어인 사미 어도 국어에 포함된다. 따라서, 국어는 핀란드 어, 스웨덴 어, 그리고 사미 어를 총칭하며 제2국어는 핀란드 어나 스웨덴 어를 이른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핀란드 어를 국어로 선택하는 학생들에게는 스웨덴 어가 제2국어, 스웨덴 어를 국어로 선택하는 학생들에게는 핀란드 어가 제2국어가 된다.

핀란드의 교육 제도



※ 출처 : http://www.oph.fi/english/SubPage.asp?path=447,4699

교과서 편집자의 변

교과서적인, 너무나도 교과서적인……

글 김현용((주)금성출판사 차장)

"차장님, 이 그림은 어때요?"

팀 내 디자이너에게 차기 교과서에 들어갈 만한 삽화가 목록을 미리 뽑아 놓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인터넷을 뒤지다 괜찮아 보이는 삽화가가 발견되면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보라고 성화다.

"에이, 이게 뭐야. 교과서에 정말 이런 그림을 넣겠다는 거야?"

"그래요? 난 좋기만 한데……. 차장님, 그럼 이 그림은 어때요? 요즘 잘나가는 작가라는데, 역시 구도부터 좀 다르죠?"

"그림은 좋은데, 역시 교과서적은 아니야."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마우스를 움직이는 손놀림도 신경질적으로 변한 디자이너가 혼잣말처럼 툭 내뱉는다.

"쳇, 교과서적인 게 도대체 뭐람. 따분하고 고리타분한 그림을 찾아야 하나."

이 성질 급한 후배에게 교과서적인 것에 대하여 뭔가 설명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갑자기 머릿속이 멍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져 온다.

'그러게……. 교과서적인 게 뭐더라.'

나 역시 불과 8년 전에는 '교과서는 이래야 해.' 또는 '교과서니까 이건 안 돼.'를 입에 달고 다니며 괴롭히던 까마득한 선배님들 덕분에 나중에는 '교과서' 소리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킬 지경이었다. 도대체 교과서면 교과서지 뭐가 이렇게 까다롭고 제약도 많은지…….

교과서 편집자가 되겠다고 처음 금성출판사의 문을 두드릴 때만 해도, 교과서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을 뿐, 교과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 학생들에게 전달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걸까? 면접 중에 야근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괜찮겠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도 내심 코웃음을 쳤다. 전 직장에서 월간지만 3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 달에 열흘 정도는 으레 야근을 했고 마감 때는 사나흘 정도의 철야쯤 가뿐하게 해 왔다. 게다가 내가 편집하게 될 거라는 체육 교과서는 170여 쪽밖에 안 되는 얇은 책 달랑 한 권이었다. 매달 200쪽이 넘는 책을 뚝딱뚝딱 만들어 냈는데, 아무리 교과서라지만 일 년 동안 이 정도 분량을 못 만들겠는가 싶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콧대는 입사 후 한 달도 못 돼서 여지없이 꺾이고 말았다.

"이 책부터 읽으세요. 교과서의 뼈대가 되는 내용들이니까 외우다시피 해야 합니다."

입사 첫 날 주어진 첫 임무, 교육과정을 외우란다. 한 번 읽기도 지루한 딱딱한 문장을 읽고 또 읽어, 이미 딱딱하게 굳어 버린 머릿속에 생소한 체육 교과의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들을 각인시키느라 진땀을 흘렸다. 과거의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차이점과 특이 사항 등을 정리해 리포트로 제출하고, 그 교육과정에 따른 전체 구성안과 세부 구성안을

짜 보라는 숙제도 주어졌다. 도대체 편집자로 들어온 건지 대학원생이 된 건지 구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교육과정이 끝나자 이번에는 집필상의 유의점, 그 후에는 교육과정 해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각종 공문과 서류 뭉치들……. 모두 교과서를 만들기 전에 반드시 알아 두고 참고해야 할 사항들이었다.

가까스로 서류 뭉치들에서 해방되던 날, 이번에는 내 앞에 두꺼운 스크랩 파일이 놓여졌다. 구성 요소를 구안하거나 디자인을 할 때 참고하려고 선배님이 국내외 각종 서적에서 스크랩해 둔 자료들이란다. 교과서에 반영을 할 수 있든 없든 간에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편집자의 안목을 높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책들을 많이 보고 그 책들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한다면서, 그와 같은 스크랩을 만들 것을 지시하셨다. 막연하지만 당장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출판사에서 만든 교과서를 비롯해서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교과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스포츠 관련 서적과 기타 괜찮다고 소문난 단행본은 다 구해서 살펴보았다. 은행에서 잡지를 보다가도 괜찮은 레이아웃의 페이지를 발견하면 몰래 찢어 오기까지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모인 자료와 기초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을 바탕으로 세부 구성 요소를 구상하여 배치하고 견본 원고를 만들고, 몇 차례에 걸친 현장 적합성 검토까지 끝낸 후 비로소 저자 선생님들에게 집필 의뢰를 할 수 있었다. 이제 원고가 들어올 때까지는 좀 여유를 가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며 한숨을 돌리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일거리들.

먼저 디자인이 급했다.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감각 있는 디자인 회사에서 가져온 시안 세 개는 보기에는 매우 훌륭했지만, 교과서로 쓰기에는 부적합한 것들이었다. 서체를 지나치게 작게 사용하거나 자간과 행간을 너무 좁혀 가독성이 떨어지고, 색도 지나치게 화려하게 사용하여 학습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었다. 중요한 요소와 중요하지 않은 요소의 비중도 뒤죽박죽 섞여 있었다. 그렇다고 하나하나 짚어 가며 지적을 하면 예전 교과서와 다를 바 없는 구태의연한 디자인이 나올 것 같아 조심스러웠다. 결국, 세 개의 시안을 더 받아 보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세심한 조율을 거쳐 최종 디자인 시안을 만들었다. 물론, 최종 시안이 나온 후에도 디자인은 수시로 변화를 겪었다. 심지어 마무리 단계에서 검토진의 의견에 따라 본문 서체 크기를 전체적으로 1 포인트 키웠다가 너무 커 보여서 0.5 포인트 줄이고, 결국 0.25 포인트를 다시 올리는 엄청난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서체 크기를 바꾸면 행이 넘치거나 줄어들어 일일이 다 손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보통 머리 아픈 작업이 아니었다. 초짜인 내가 보기에는 0.25 포인트 차이 정도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왜 그런 고생스러운 작업을 해야만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선배님들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다. "교과서니까……." 학생들이 읽기에 조금이라도 편해진다면 세 번이 아니라 열 번, 스무 번이라도 기꺼이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서에 들어갈 사진과 삽화를 제작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다. 특히, 체육 교과서의 경우 제 6 차 교육과정까지는 대부분 운동 종목의 동작을 단순한 선화로 표현했지만, 색도가 4 도로 바뀌고, 디자인이 강조되기 시작한 제 7 차 교육과정부터는 사진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각 운동 종목의 사진을 찍으려면 먼저 그 운동 종목에 어떤 동작들이 필요한지 목록을 작성하고, 그 동작 하나하나를 어떻게 찍어야 할지 자세하게 기록한 콘티도 준비해야 했다. 그뿐인가. 사진을 촬영할 학교에 협조 요청을 하고, 모델을 선정하고, 동작을 지도해 줄 선생님과 사진 작가의 일정을 조정하고, 모델의 복장과 소품도 챙겨야 했다. 이렇게 단단히 준비를 하고 촬영을 나가도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는 했다. 예를 들어, 육상 경기의 달리기 종목 사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연속 동작으로 표현

새벽에 퇴근해서 두세 시간 눈 붙이고 아침에 퀭한 눈으로 출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집이 멀어서 왔다 갔다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직원들은 회사 근처의 여관에서 잠깐 쉬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기도 했다. 당시 한 달 야근 시간이 총 200여 시간쯤 됐던가. 새벽 두 시에 퇴근하면서도 남아 있는 다른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조심조심 가방을 챙겨야 할 정도였다.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아무리 연속 촬영으로 찍어 보아도 자연스러운 장면이 나오지 않았다. 제대로 찍으려면 레일을 깔고 카메라도 모델과 같이 움직이며 찍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할 수 없이 카메라 위치를 바꾸어 가며 모델을 여러 번 달리게 하여 연속 촬영을 했다. 나중에 동작마다 한 장씩 골라 컴퓨터에서 합성하여 대충 비슷한 연속 동작을 만들어 내기는 했지만, 덕분에 그날 모델은 진이 빠지도록 뛰고 또 뛰어야 했다. 뜀틀 촬영을 갔을 때에는 우리가 준비해 간 콘티가 부적절하다며 지도 선생님께서 이의를 제기해 애를 먹기도 했다. 기존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동작이라 별 생각 없이 포함시켰는데,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어도 가르치지 않는 동작이란다. 그러고 보니 체조 선수라는 모델이 하기에도 어려운 위험한 동작이었다. 부랴부랴 몇 개의 새로운 동작을 추가하여 무사히 촬영을 마쳤다. 스키 촬영을 위해 강원도의 한 스키장에 갔을 때에는 리프트를 타고 한참을 올라가 사진 촬영이 끝난 후 몇 시간에 걸쳐 걸어 내려온 적도 있다. 어찌나 춥고 미끄럽던지 넘어지고 구르며 간신히 내려왔을 때에는 눈물이 찔끔 나기까지 했다. 그날 처음 회사를 그만둘까 심각하게 고민했던 기억도 난다.

그렇게 약 6,000 컷의 슬라이드 사진을 찍었다. 찍은 사진들을 현상한 후 라이트 박스 위에 올려놓고 하나하나 검토하여 각 동작에 적합한 사진을 골라내어야 했다. 때로는 하나의 연속 동작을 구성하기 위해 2~300 컷의 사진을 검토하기도 했다. 결국, 교과서에 사용된 사진은 200여 컷, 나는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다 싶은데, 선배님은 마음에 들지 않는 몇 동작의 사진을 대체해야겠다며 새로운 일정을 잡으라고 했다.

삽화 역시 까다롭기는 마찬가지였다.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는 삽화가는 많았지만 각 운동 동작을 손끝에서 발끝까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삽화가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오랜 수소문 끝에 정밀 일러스트를 그리는 적당한 분을 찾아냈지만, 그분 역시 상상만으로 정확한 동작을 그릴 수 없다며 자료 사진을 요구했다. 할 수 없이 그림으로 들어갈 부분도 사진을 별도로 촬영하여 삽화가에게 제공해야 했다. 삽화를 의뢰하는 날이면 편집자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삽화가와 함께 직접 뛰어보기도 하고 수영하는 시늉을 하기도 하는 등 운동 동작을 직접 시연해 보이느라 사무실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는 했다. 정확한 그림을 제작하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썼지만, 삽화가가 그려 온 그림이 한 번에 통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수정에 수정을 반복하고, 수정이 불가능한 그림은 다시 그리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기도 했다. 편집자가 만족해도 저자 검토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다시 그리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 같은 그림을 여러 번 다시 그리는 일이 반복되자 삽화가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지만, 그런 삽화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었다.

"교과서에 들어갈 그림이잖아요."

원고가 들어오고, 교정지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업무량은 점점 많아졌다. 교과서를 시작할 때 많은 선배님들이 교과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는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려주었다. 교과서는 최소 10교 이상은 보아야 한다는 말도 들었다. 덕분에 조금 긴장하기는 했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는가 싶었다. 그런데 막상 작업에 들어가 보니, 10교로도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먼저, 내가 알고 있는 맞춤법 지식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 새록새록 깨달았다. 문장 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표준국어대사전을 서너 번은 뒤적거려야 했다. 편수자료와 띄어쓰기 용례집도 거의 끼고 살았다. 그래도 알 수 없는 것들은 선배님께 들고 가는 수밖에 없었다. 맞춤법뿐만 아니라 내용 검증도 보통 일이 아니었다. 교육과정에 맞는 것인지 확인해 보는 것에서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운동 용어와 규칙은 가장 최근의 것이 반영되었는지, 범교과 학습 내용을 골고루 반영했는지 등등 체크 리스트만 들여다보고 있어도 기가 질릴 정도였다.

야근하는 시간도 점점 늘어갔다. 새벽에 퇴근해서 두세 시간 눈 붙이고 아침에 퀭한 눈으로 출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집이 멀어서 왔다 갔다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직원들은 회사 근처의 여관에서 잠깐 쉬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기도 했다. 당시 한 달 야근 시간이 총 200여 시간쯤 됐던가. 새벽 두 시에 퇴근하면서도 남아 있는 다른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조심조심 가방을 챙겨야 할 정도였다. 몇 달을 그렇게 극한 상황에서 보내 웬만하면 대충 끝내고 싶은 유혹이 들 법도 한데 선배님들은 단어 하나, 그림 한 컷 쉽게 넘어가는 일이 없었다. 그 모습을 보며 몇 번이나 흐트러지는 마음을 다잡았는지 모른다. 그렇게 모든 작업을 끝내고 교과서를 제출한 후 며칠 동안은 맥이 풀려 멍하니 지냈다. 그 와중에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이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그로부터 8년이 지났다. 굳은 결심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2학년 체육 교과서와 문학 교과서 작업에도 참여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교과서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경력은 조금 쌓였지만, 첫 교과서 작업과 크게 다른 상황은 아닐 텐데 어쩌자고 그 험난한 길을 또 가려고 마음먹었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이번에는 후배들에게 어떤 것이 교과서적인 것인지 방향을 제시해야 할 책임까지 지고 있다.

솔직히 아직까지 난 교과서적인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교육과정에 충실한 것, 해당 분야에서 모범이 될 만한 것, 배우기 좋고 가르치기 좋은 것, 정확하고 아름답고 유용한 것……. 대충 이 정도가 떠오르기는 하지만 선택의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자신도 없다. 다만, 8년 전 최상의 재료로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려고 애쓰던 선배들의 모습, 오직 좋은 교과서를 만들려는 일념으로 개인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몸 상하는 걸 감수하며 목표를 향해 매진하던 그분들의 모습을 교과서 삼아 최선을 다할 각오를 다질 뿐이다.

교과서 편집자의 변

'중간자'와 '윤활유'라고……

글 전이순((사)한국검정교과서)

"여러분, 혹시 검정 교과서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검정 교과서라고 해서 검정고시용 책인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 맞다고요? 아니, 그게 아닌데. 그럼 간단하게 검정 교과서 소개부터 해 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중·고등학교용 교과서 중에서 영어, 수학을 포함한 교과서가 검정 교과서인데요. 혹시 국정 교과서는 들어 보셨나요? 아, 예. 들어 보셨다고요? 국정 교과서는 국가에서 편찬하는 국어, 도덕, 국사 등이 해당되고요. 그 밖에 대부분의 교과서가 검정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검정 교과서를 취급하는 곳이 바로 제가 일하는 한국검정교과서이고요." …… 상황 정리 끝.

아까와는 달리 눈여겨보는 눈빛들……. 하긴 중·고등학교 교과서 관련 일을 한다니 어느 정도의 환상을 심어 줄 만하지. 우리나라 사람치고 교과서 한번 안 거친 사람 없으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똑똑하고 전문적일 것 같고, 또 투철한 교육관과 도덕적인 인격까지 기대할 것이다. 예상과 다르지 않다. 교육 후 친목 모임에서 나에게 물어 보는 질문은 정확히 내 예감이 들어맞는다. 사실 이건 예감이 아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터득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언젠가 들은 옆 동료의 통화 내용에서도 내가 읊은(윗부분에 쓴) 반사적인 말들과 엇비슷해 설핏 웃었더랬다. 내가 몸담고 있는 한국검정교과서는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은 곳은 아니다. 부차적인 설명 후에는 어떨는지 몰라도. 교육인적자원부처럼 두드러지는 일도, 또 편집자들처럼 교과서를 직접 편찬하지도 않으니까. 하지만 뭐랄까. 교과서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 왜? 이제부터 내가 하려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그리고 그 물음에 두 가지 키 워드로 답하련다. 중간자와 윤활유라고…….

◎ 굴곡과 바탕이 만나 실물을 이끌어 내는 중간자 역할

이제 경력 5년차가 이런 글을 쓰기가 여간 쑥스러운 게 아니다. 뭔가 내놓을 만한 굵직한 성과물도, 또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일도 아직이기 때문이다. 글의 청탁이 들어왔을 때도 어찌나 고민이 되던지 추석의 긴 연휴가 끝난 후 월요병 같은 후유증은 이 글을 쓰는 고민으로 대신 채워질 정도였다. 한동안은 '자격여부'가 걸렸었고, 또 한동안은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로 시름했었다. 그러다가 오늘, 훌훌 털어버리고 '경력 5년짜리 수준의 글을 써 보리라.'라는 수월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 중이다. 마침 이번 10월이 내 경력이 5년으로 업데이트 되는 달이니 나름 5년사로 의미 있기도 하겠다.

내가 거쳐 온 팀은 기획부, 공급부, 기획총괄팀이다. 거기서 내가 맛볼 수 있었던 업무는 저작권과 수정 업무, 인터넷 주문에 대한 교과서 발송 업무, 장학 사업, 그리고 홍보 사업 등이다. 대충 짐작은 했겠지만 우리 법인은 여러 팀, 그러니까 11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

다. 나열해 보자면 기획총괄팀, 발행지원팀, 연구개발팀, 공급조직관리팀, 생산관리팀, 물류관리팀, 고객지원팀, 총무팀, 회계팀, 품질관리팀, 그리고 공장관리팀이다. 애써 일일이 팀명을 다 거론한 이유는 교과서 관련 회사라고 하면 교과서 관련 수정이나 문서 행정적인 부분들로 일축해 버리기 때문이다. 팀명을 봐서도 알다시피 우리 법인이 교과서에 손을 미치는 부분은 방대하다. 교과서라는 완성품이 나오기까지 어디 하나 안 거치는 곳이 없다. 그런 우리 법인이 대중들에게 그다지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것은 다소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002년 그때로 내려가 보자. 내가 입사한 연도이다. 그때는 한창 제 7 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신간 교과서가 나오던 시기였다. 그러니까 중학교 2 학년 재검정과 중학교 3 학년 본검정, 그리고 고등학교 기본 과목 재검정, 심화 과목 본검정이 적용된 책들이 첫선을 보인 때로 때마침 수정 업무를 하던 나는 수없이 반복되는 검토 작업으로 정확성을 배우고 몸소 실천하던 터였다. 수정 작업은 더한 꼼꼼함, 그리고 기계적으로 수차례 반복되는 검토 작업을 거쳐야 한다. 비록 표면적으로 굵직하게 드러나는 일은 아니지만 수정 업무 그것은 편집자와 편수관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지혜롭고 스피디하게, 또 꼼꼼하게 해내야 하는 멀티플레이어를 요구한다. 때로는 수천 장(바닥에서부터 쌓아놓으면 한 허리 높이)의 검토 의견서를 지우개를 이용해 세고 분류하는 인내력을 요구하는 단순, 반복적인 일들부터 시작해서 교과서 외형 체제의 전문가답게 색도 구분 및 조판료 등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또 기한에 맞춰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67 개사의 출판사들을 상대로 전화 작업부터 시작해 팩스·우편 작업 등을 일사천리로 끝내야 하는 민첩함까지 삼박자가 어우러져야 한다. 아직도 기억 저편에는 중·고등학교 전 교과서가 펼쳐진 회의실에서 수정 내역 조사와 수정 반영 여부를 확인하느라 하루 종일 교과서에만 뚫어져라 집중하던 기억들이 추웠던 입사 시절과 함께 있다. 그렇게 바지런히 움직인 결과 얻은 것이 있다면 수정 과정 중에 실수한 것들을 잡아내어 교과서에 수정·보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적인 주요 업무는 저작권 보상금 업무였다. 교과서는 공공재로서 저작권의 혜택을 받는다. 임의 게재가 그것이다. 공표된 어떤 저작물이건 임의 게재가 가능하고 후처리하면 된다. 그 후 처리의 중간자 역할이 또한 내 업무였다. 모든 주요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를 하지만 여기서의 실질 파트너는 출판사와 저작권 단체였다. 출판사에서 저작물 목록을 작성해 오면 우린 그것들을 취합한다. 이 취합 과정을 한번 보자. 그냥 간단히 두 글자로 써 버리기에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어떤 일은 너무나 많은 말들로 표현해 내어 그럴듯한 업무의 성격을 띠게 하지만 저작물 목록 작성지를 취합하는 일은 단 두 자로밖에 표현이 안 되니 답답할 노릇이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저작물 목록 작성지를 사진, 미술, 음악, 운문, 산문 등 각 저작물별로 67 개의 출판사가 각 사에서 편찬한 교과서를 모두 제출한다고 생각해 보라. 출판사에서 2 부씩 제출한 이 수천 장의 저작물 작성지(땅에서 허리 높이까지)를 우린 저작물별로 분류해 내야 한다. 그리고 이 두 세트가 각각 똑같은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혹 출판사에서 1 부씩만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건 다 2 부씩인데 어느 것만 1 부씩이든지 또는 분류 실수 등의 이유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건을 확인하면서 작성지들과 씨름하여야 한다. 그래서 최종 취합이 완료되면 한 부는 저작권 단체에 주고 다른 한 부는 우리 업무용이 되는 것이다. 저작권 프로그램에 저작물 종류와 저작물명, 단가, 부수 등을 입력하면서 저작권 단체와 한건 한건 맞추는 업무는 실로 양이 방대해 아찔한 업무였다. 이렇게 확정된 저작물 목록과 금액은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하여 정가에 반영된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각 저작권 단체에서 4 개월간 저작권자를 찾아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법원에 공탁한다.(현재는 저작 재산권자 단체로 지정된 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함.) 덧붙여 저작권 보상금 지급 관련 신문 공고도 내야 하고, 교과서에 수정 사안이 발생할 때

교과서 발송 업무가 다른 쇼핑몰 발송 업무와 다른 점이 있다면 시간을 다투는 '필수 물품'이라는 것이다. 교과서가 없으면 시험 준비가 안 된다거나 수행 평가에서 뒤쳐지는 민감한 사안들이어서 원인 및 사후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였다. 택배 배달 시간까지 못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그 근처에 사는 직원들이 직접 가져다 주기도 했으며, 고객이 온다는 늦은 시간까지 기다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마다 이에 대한 저작물의 변경도 수시로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순환되는 저작권 업무는 교과서가 매년 발행되기 때문에 보상금 확정과 지급 공탁 업무가 한 해에 같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순환되는 저작권 업무 외에도 저작권 상담을 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 자신들의 저작물이 교과서에 실려 학생들의 교육에 쓰이는 것에 대해 보람을 느낀다던 저작권자들도 있었다.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높다고는 하지만 이는 좋게 이야기하면 교육의 필요성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 다른 어떤 것보다도 관심 있게 집중하는 열기가 아닐까. 아무튼 교과서에 무한한 관대를 보이셨던 그분들에게 창작의 기쁨은 아마도 필요자에게 보여 준 관대, 이로 인해 필요자가 느낀 감동, 이는 분명 창작의 원동력이 될 것이고 나아가 창작의 재생산 역할을 착실히 해낼 것을 예견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 물 흐르듯 진행시키는 윤활유 역할

이후 나는 공급부로 발령을 받아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빠질 수 있었다. 앉아서 책상과 씨름하던 전 부서와는 달리 이곳은 현장 부서로 교과서가 수정, 생산 단계를 거쳐 완성품이 나오면 이를 전국의 중·고등학교를 상대로 공급을 주도하는 부서이다. 공급의 단계는 대략 이렇다. 각 지역의 교육청과 학교로부터 주문 부수를 취합·집계하여 해당 부수를 인쇄소 및 제본소에 생산 발주를 하고 생산이 완료되면 이를 전국 115개의 공급소에 관할 지역의 주문량만큼 발송하여 각 지역의 공급소들의 학교 공급이 이루어지게 한다. 덧붙여 인쇄소와 제본소, 각 지역의 공급소와 교과서 판매 서점, 발송업체들과 관계하고 이들 사이에서 물 흐르듯 진행시키는 윤활유 역할을 충실히, 그리고 묵묵히 해 온 곳이 바로 우리 법인이고, 또한 자랑할 만한 역사이다. 본 공급은 교과서 일 년 농사 마무리 작업으로 무사히 학교 공급이 완료되면 '이번 한 해도 잘해 주었구나!' 라고 스스로를, 그리고 전직원들을 격려한다. 어느 순간부터 본 공급을 기준으로 한 해가 가고 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는데 이는 비단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본 공급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큰 화물 트럭과 넓고 높게 적재된 교과서, 그리고 현장에서 발로 뛰어다니는 일용 근로자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 슬며시 법인 내에 활기가 찾아들고 전국의 학교 공급이 실감나는 순간이다. 언젠가 파란 가을 하늘 아래로 일용 근로자들이 박스를 들고 발로 뛰는 건강한 모습들을 법인의 현장 스케치로 소개하는 난에 싣고 싶기도 했었다. 그 모습들이 퍽이나 인상적이었기 때문이다. 일용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젊은 학생들이 주를 이루는데 거의 대부분이 학비 마련이나 어학 연수 자금 등 실로 건전한 목적들이다. 처음엔 그들 간에도 서먹서먹한 기운이 돌고 일도 어설펐던 그들이 이제 막 익숙해질 때쯤엔 공급이 끝나 헤어진다. 그러나 내 업무인 '인터넷 주

문에 의한 교과서 발송' 으로 항시 주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용 근로자들 서너 명은 꾸준히 일할 수 있었다. 이들과 하는 업무는 시원시원했고 활기 있어 좋았다. 오히려 나보다 현장 감각이 뛰어나 많은 일을 하였지만 실적은 나에게로 와 많이 미안했다.

교과서 발송 업무가 다른 쇼핑몰 발송 업무와 다른 점이 있다면 시간을 다투는 '필수 물품' 이라는 것이다. 교과서가 없으면 시험 준비가 안 된다거나 수행 평가에서 뒤처지는 민감한 사안들이어서 원인 및 사후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였다. 택배 배달 시간까지 못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그 근처에 사는 직원들이 직접 가져다 주기도 했으며, 고객이 온다는 늦은 시간까지 기다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또, 배송은 택배 업체와 계약을 맺어 이루어졌는데 배송이 지연되거나 책이 왔는데 젖었다, 새우젓 냄새가 난다, 책등이 찌그러졌다는 등의 이유로 성화인 고객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교환해 주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그뿐만 아니라 교과서가 품절되면 우리들은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전화 업무에 시달린다. 여기서 잠깐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교과서 생산·판매에 대하여 언급해 보겠다. 교과서는 철저하게 주문에 의한 생산,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총 학생 수와 여유분을 포함한 주문 부수를 산출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한 부수만큼 생산한다. 그 부수는 전국의 학교에 교과서를 공급하고 여유분은 인터넷 주문이나 현장에서 이루어진 주문의 응대 물품이 된다. 교과서가 품절되면 수시로 추가 생산을 해 그에 대한 수요들을 충족시키고 있지만 기존 도서를 폐기시키고 신간 도서를 준비하는 시점, 그러니까 추가 생산을 할 수 없는 시점에도 고객들의 이러한 민원들은 쏟아져 이들을 이해시키기가 힘들 때가 많다. 또, 교과서는 나라에서 파는 건데 운송비를 왜 받느냐며 항의하는 이들도 더러 있어 이해시키기가 난감했었다.

때마침 원고 분량이 찼고 이제 마치려고 한다. 처음 쓰고자 했던 취지가 제대로 들어맞았는지 다시 읽어봐야겠다. 이 코너의 당초 취지가 '편집자의 변' 인 만큼 편집자가 아닌 내가 어떤 내용으로 같이 호흡할 수 있을까로 부담을 가지고 시작했던 이 글이 막상 쓰고자 덤벼드니 색다른 교과서 관계자의 입장에서 그래도 훌훌 써 내려져 갔다는 것에 감사한다. 시선에 따라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고, 5년을 같이 한 곳이니 나도 모르게 그곳의 자랑을 심어놨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글이란 쓰다 보면 어느 새 본인도 모르게 솔직해지는 법, 이에 충실하려 했다는 것을 믿어 주길 바란다.

요즘 언론들을 보면 끝도 없이 밀고 부딪히는 언론 플레이에 인상이 찌뿌려질 때가 많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과물을 눈에 괄목할 만한 성과물들로 보도 자료화하여 매체의 힘, 여론의 힘을 빌려서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아닌 계획하에 일어나는 갖가지의 보도 자료들과 경쟁처를 밀어버리고 다시 그들로부터 부딪히는 순환의 고리들, 그리고 뭐든 과대포장하고 말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그들을 보면서 보여 주는 것만이 다가 아닌, 보여 주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법인이 투박하니 소중하다. 어쩌면 이것이 그대들이 기대했던 교과서 만드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인격인지도 모르겠다. 연

단상

반공 교육에서 통일 교육으로

글 **한명희**(전 교육부 편수국장)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수백만의 인명 피해를 가져왔고, 우리 국토를 황폐화시켰다. 그런데 민족상잔의 최대 비극인 이 전쟁을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그냥 잊어가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모 월간지에서 6·25 전쟁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설문 조사를 하였더니, 전쟁이 일어난 시기도 모르고, 38선과 휴전선을 구별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반공 교육이 통일 교육으로 바뀌는 것은 당연하지만 안보 교육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냐고 의견을 물어 왔다.

같은 때, 평소부터 잘 알고 지내던 정치학 전공의 교수로부터 반공 교육이 통일 교육으로 바뀐 과정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다.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좋고, 한때 우리의 교육 이념으로 자리 잡았던 반공 교육이 통일 교육으로 전환된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주관적인 판단을 정리하여 보았다.

1. 반공 교육의 태동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이 공포되었다. 그리고 다음 해 6월 전쟁이 일어났는데, 마침 그 해는 신학년이 6월에 시작되었다.

새 교육 제도가 뿌리도 내리기 전, 새 학년이 시작되자마자 일어난 전쟁으로 우리 교육은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6·25 전쟁으로 학교 교육이 마비되자 문교부는 1951년 '전시하 교육 특별 조치 요강'을 발표하고, 전시 교육의 중점을 '멸공필승의 신념을 배양하고 전국(戰局)과 국제 집단 안전 보장의 인식을 명확히 하여 전시 생활을 지도하는 데 둔다.'고 했다.

그리고 전시 생활을 지도할 수 있는 초등학교용 '전시 생활 1(1, 2학년용), 2(3, 4학년용), 3(5, 6학년용)'과 중등학교용 '전시 독본'을 3회 발간하여 무상으로 배부하였다. 참고로 중등학교용 전시 독본의 내용을 살펴보면 '침략자는 누구냐?, 자유와 투쟁, 겨레를 구원하는 정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6·25 전쟁으로 우리 국민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그 고난 속에서 반공 정신이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리고, 반공 교육은 학교 교육의 중요한 교육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되고, 1954년 4월, 정부 최초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문교부령 제35호)이 공포됨으로써 도의 교육과 반공(反共) 방일(防日)의 정신을 교육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일부 자료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회 생활과에 배당된 시간 중에서 연 35시간 이상을 도의 교육에 충당할 것을 규정하였다.' 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시간 배당 기준령의 관계 조문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제10조, 도의 교육은 전 교과 및 기타 교육 활동 전반에 긍(亘)하여 행하되 각 학년 총 수업 시간 수의 범위 내에서 연 35시간 이상을 이에 충당하여야 한다.

〈중학교〉

제14조, 사회 생활과에 배당된 시간 수 중 연 최저 35시간은 도의 교육을 위한 활동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음 고등학교의 경우는 사회과의 정규 과목으로 '도덕' 과목이 설치되어 필수적으로 3년간, 주당 1시간씩 이수토록 되어 있다. 그리고 기준령 부칙에서 '고등학교에 대하여는 1955학년도의 제1학년생으로부터 시행한다. 단, 도덕과 특별활동에 대한 시간 배당은 1954학년도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도의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1956년도에 고등학교용 도덕(1, 2, 3학년용 3종)을, 1957년에는 초등학교용 도의(1, 2, 3, 4, 5, 6학년용 6종)와 중학교용 도의(1, 2, 3학년용 3종)를 국정으로 편찬 완료하였다.

1956년 도의 교과서 편찬에 앞서 발표한 '도의 교육 요항' 에서 제시한 도의 교육 목표에는 '애국애족의 사상을 공고히 한다.' 라는 대 제재 아래, 소 제재로 '반공 방일의 정신을 견지한다.' 고 되어 있다. 그리고 도의 교육과정의 구성에서는 그 영역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다섯째 영역으로 '반공 방일의 정신' 을 제시하고 있다. 이 시점부터 도의 교육과 반공 교육이 일원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2차 교육과정(1963. 2. 15.)에서는 초 중학교 도덕이 '반공 도덕 생활' 로 독립되고, 고등학교 도덕이 '국민 윤리' 로 개칭되면서 반공 교육 내용이 크게 강화된다.

1961년 516 군사 정변 시 발표한 혁명 공약 첫째 항은 '반공을 국시의 제1의(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다. 이렇듯 반공을 국시로 내건 군사 정부가 들어서면서 반공 교육이 강화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중학교 도의는 '민주 생활' 과 '승공 통일의 길' 두 책으로 편찬되었고, 고등학교 도덕은 '국민 윤리' 와 '자유 수호의 길' 두 책으로 그 내용이 확충되었다.

이때 작은 문제 하나가 생겼다. '승공 통일의 길' 이라는 교과서는 1979년 '민주 생활' 교과서와 통합되어 '도덕' 교과서가 된다. 그런데 1981년에 '승공' 이란 용어와 관련하여 민원이 접수되었다.

내용 요지는 민원인이 월남한 실향민인데, 북한에 있을 때도 '승공(勝共) 통일' 이란 머리띠를 두르고 승공 통일을 외치고 다녔고, 남한에 와서도 승공 통일을 외치고 있다고 하면서, '승공' 이란 단어 뜻이 '공산주의가 이기는 것' 이냐, '공산주의를 이기는 것' 이냐고 물어 왔다. 그래서 몇 분 학자에게 알아보니 답이 구구했다. 승(勝)자가 자동사(?)라 공산주의가 이기는 것이 옳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산주의 세력을 무찔러 이기는 것이 옳다는 사람도 있었다. 어느 해석이 옳은 것인지 결론을 얻지 못했다.

다만, 교과서 용어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4차 교육과정에 의해

**북한 괴뢰 집단이 북한 공산 집단으로,
괴뢰 괴수 김일성이 독재자 김일성 또는 김일성으로,
괴뢰 정권이 공산 정권으로, 괴뢰군이 공산군으로 바뀌어 기술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이 틀림없는 대결 상대이기는 하나 대화의 상대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수용한 것이다.**

1982학년도부터 사용한 도덕 교과서부터 '승공'이란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다. 아마 그 방침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을 것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어 사전을 보면 승공이란 단어가 없는 사전도 있고, 승공을 적극적으로 공산주의 세력을 무찔러 이겨 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사전도 있다.

1968년 12월 5일 선포된 국민교육헌장에는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라는 내용이 있다. 이 국민교육헌장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1969년 교육과정을 부분 개정하여 초 중학교의 경우, 주당 1시간으로 되어 있던 도덕 시간을 2시간으로 늘렸고, 고등학교 국민 윤리는 이수 단위가 4단위에서 6단위로 늘어났다.

제3차 교육과정(초 중학교 1973년, 고등학교 1974년)에서는 초 중학교의 경우, 반공 도덕 생활이 '도덕'으로 정규 교과가 됐고, 고등학교는 사회과의 한 과목으로 있던 국민 윤리가 사회과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교과가 됐다. 초 중학교에서 도덕이 정규 교과가 되면서 반공 내용도 자연스럽게 평가의 대상이 되어 반공 교육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제3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부터 북한에 대한 비판적 용어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1972년 발표된 7 4 남북 공동 성명의 정신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면, 북한 괴뢰 집단이 북한 공산 집단으로, 괴뢰 괴수 김일성이 독재자 김일성 또는 김일성으로, 괴뢰 정권이 공산 정권으로, 괴뢰군이 공산군으로 바뀌어 기술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이 틀림없는 대결 상대이기는 하나 대화의 상대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수용한 것이다. 하여간에 반공 교육으로 볼 때 큰 변화임에 틀림이 없다.

제5공화국 정부가 들어선 후에 개정된 제4차 교육과정(1981)에 의한 교과서 내용은 제3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와 큰 차이가 없다.

2. 통일 안보 교육

제5차 교육과정(초 중학교 1987년, 고등학교 1988년)에서는 반공 교육을 통일 안보 교육으로 용어를 바꾸고, 용어에 맞게 내용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통일 교육과 안보 교육을 양 날개로 하여 시대 상황에 맞게 내용을 조정하였다. 통일은 민족 번영을 위한 당위적 과제로, 안보는 민족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현실적 필요에서 함께 강조하였다.

이렇게 통일과 안보 교육의 균형과 조화를 위하여 교과서 용어와 내용도 바뀌었다. 우선 북한 공산 집단을 북한으로 바꾸어 그 실체를 인정하고, 독재자 김일성도 대부분 그냥 김일성으로 바꾸어

기술했다.

초등학교 도덕 4-1 교과서에는 '남쪽과 북쪽에 각각 서로 다른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북한 정권의 실체를 인정하는 큰 변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지나치게 적개심을 고취하는 내용이라고 일부 인사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던 초등학교 도덕 5-2 교과서의 '이승복 어린이'도 '통일봉'이라는 제재로 간단히 기술하는 등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1988. 7. 7.) 등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한 때문이다. 물론, 이 선언은 교육과정이 개정된 후에 발표되었으나 교과서는 교육과정이 고시되고 2~3년 후에 편찬되기 때문에 교육과정 고시 후의 변화도 교과서에 담을 수 있었던 것이다.

3. 통일 교육으로 전환

- ○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남북 협력 기금 설치(1990. 8.)
- ○ 한국과 소련 국교 수립(1990. 9.)
- ○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991. 9.)
- ○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1991. 12.)
- ○ 한국과 중국 국교 수립(1992. 8.)
- ○ 북한 김일성 사망(1994. 7.)
- ○ 국민교육헌장 사실상 기능 상실(1995.)

앞에서 열거한 사실 외에도 동구 공산권의 붕괴와 독일 통일 등 국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되고,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에서는 공산주의 이념 비판, 북한 공산 집단의 침략 책동 등 부분적으로 남아 있던 비판적 내용이 모두 빠지고 안보보다는 통일 지향적인 내용으로 편찬되었다. 대북 적개심을 고취하는 대표적 내용으로 지적받았던 '이승복 어린이'를 제5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통일봉'으로 바꾸어 그 비판 강도를 낮추었는데,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에서는 그 내용을 모두 뺐다.

그리고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국민윤리'가 '윤리'로 개칭되고, 교과서 명칭도 '윤리'로 바뀌었다.

제7차 교육과정(1997. 12.)에 의해 2002년부터 사용 중인 교과서에서는 김일성 주석(고등학교 도덕. P. 144), 김정일 국방위원장(중학교 2 도덕 P. 265)으로 공식 직함을 인용 부호 없이 그대로 기술하고 있다. '괴뢰 괴수 김일성'에서 '김일성 주석'으로 바뀌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정말로 큰 변화이다.

이러한 교과서의 변화는 북한을 제외하고는 공산권 국가가 사실상 붕괴되었고, 남북한 정상이 만나 이루어 낸 615 남북 공동 선언(2000. 6. 15.) 등 통일 교육 여건 변화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라는 당위적 과제 때문에 '안보'라는 현실적 필요를 지나치게 소홀히 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한마디로 안보 교육이 반 통일 교육으로 그릇 이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렇다고 안보를 내세워 통일 교육을 소홀히 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 통일 교육을 강화하고 내실을 기하는 것은 시대 흐름의 대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을 수 없을 것이다.

단상

명지고교형 학습 자료
- 우리의 서툰 몸짓 -

글 **안두환**(서울명지고등학교 교사)

"열강 없는 학교를 만들어 봅시다."

느닷없는 교장 선생님(대학 총장 출신의 박성수 교장)의 말씀을 듣고 있던 선생님들의 얼굴은 황당함 그 자체. '이것이 무슨 소리?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열강이 없는 수업을 해 보자니. 열강을 하라고 부탁해도 부족할 판에. 아직 학교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셔서 저러시나.' 어리둥절한 우리들에게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쥐어짜듯이 주어진 시간 안에 학생들에게 전해 주려니 눈을 부릅뜨며, 목소리를 높이고 싸움하듯이 강의하는 것이 아니냐. 그 속에서 학생들도 하나라도 더 보고, 듣고, 필기하려고 긴장하고 긴장하여 수업만 끝나면 파김치처럼 축 처져 힘들어하고. 그러니 쉽게 가르치고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스스로 읽기만 해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풍부한 교재를 만들어 제공해 주고, 교사는 공부한 것을 돌보아 주는 것이 지금처럼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학습 태도도 적극적으로 바뀔 터이고 효과도 더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교사들이 극도로 피곤해지는 일도 없어질 테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생들을 위하여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노력하시던 선생님께서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쓰러져 회복하지 못하고 과로사하여 학교 전체의 분위기가 침울하던 때의 이야기이다.

이렇게 우리의 명지고교형 학습 교재(일명, 自得型 教材)는 시작되었다. 교장 선생님 말씀에 동의했던 많은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여 '어떻게 하면 그런 교재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교과서처럼 핵심 내용을 압축하여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철저히 이해하도록 하는, 즉 교사의 설명 활동이 교과 교육의 중심이 되는 얇은 교재보다는 학습 내용을 구체적 내용까지 상세하게 서술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읽기만 해도 중요 내용의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이 주체적 활동을 하고 교사가 도와주는, 그런 설명형 형태의 교재를 만들기로 결론지었다. 그렇게 해서 첫째, 토의 중심의 교과 교육을 실천하고 둘째, 예습 등의 학생 주도적 교과 교육을 실천하고 셋째, 교사의 열강 중심의 교과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창조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해 보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교육 현장에서 획일화되어 있는 첫째, 주입식 교육을 넘어서고 둘째, 과외나 학원 수업의

필요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셋째, 모든 사교육의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진정한 교과 교육의 길로 가 보자고 결론지었다.

우선, 2003년에 교내에 교재 개발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각 교과별로 협의회를 열어 교과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1년 동안 모으기로 했다. 국내 도서 1,000종과 외국 교과서를 포함하여 각종 외국 도서 350여 권 등 각종 참고 서적을 사들이고 모아 분석하고 여름, 겨울에 걸쳐 전문가를 초빙해 세미나도 열었다. 2004년에는 1년 동안 모았던 자료를 기존의 교과서를 기준으로 풍부한 보충 자료를 추가해 새로이 편집 또는 개발하여 9월에 교재를 완성하였고, 2005년에 처음으로 명지고교형 학습 교재(10과목 32권 개발 : 국어, 수학, 영어, 국사, 일반 사회, 지리, 생물, 화학, 물리, 지구 과학)를 가지고 1학년 4개 반(남녀 2개 반씩)을 구성해 수업에 들어갔다. 이와 병행하여 2학년용 교재〔13과목 29권 : 문학, 국어 생활, 윤리와 사상, 한국 지리, 수학 1, 화학 1, 생물 1, 영어, 물리 1, 지구 과학 1, 한국 근현대사, 사회 문화, 쓰기(공통－국어과, 사회과, 과학과)〕를 개발하였다. 이 교재를 가지고 2006년도 1학년 8개 반, 2학년 5개 반(문과 2반, 이과 3반), 2007년도에는 1학년 10개 반, 2학년 8개 반이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 교재를 사용하는 반(과제반)의 선택은 철저히 학생들과 학부모의 선택 사항이다. 입소문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공부하려는 학생들과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학생들로 분리되어 우열반 비슷한 형식으로 편성되었고, 그 결과 본교 교재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의욕이 고취되기 시작하였고, 다른 학생보다 더 많이 공부하며 효과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다.

그런 결과는 우선 성적 향상으로 나타났다. 많은 양의 예습, 복습에 힘들어하면서도 학생들은 열심히 하였고, 그 결과, 1학기 5월 중간 고사와 7월 기말 고사 성적을 비교해 보면 일반반 학생들과의 성적 편차(평균 10점 이상)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여러 과목의 공부에 곧 지치기 시작했으며 많이 힘들어했다. 선생님들은 다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였고, 각 과목을 요일별로 돌아가며 수행 과제를 내 주고 예습하는 것으로 계획표를 작성하여 해결하였다. 지금은 어느 정도 틀이 잡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처음에는 매주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담임 선생님, 교과 담임 선생님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내 놓고 또 실행해 보고 .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다.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라 시행착오도 많았고 재미있는 일도 많았다.

학생들이 공부를 스스로 하게 하는 것도 문제였다. 예습을 해 오지 않으면 교재는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만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그래서 먼저 학생들 스스로 각자의 능력에 맞는 계획표를 짜도록 지도했다. 평일과 토요일, 휴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작성하도록 하였고, 철저히 지킬 수 있는 계획표를 만들어 학부모님께도 보여 드려 반드시 지키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전체 학생이 예습 노트를 만들어 활용하게 하였고, 오답 노트도 만들어 부족한 부분을 알고 공부하게 하였다. 담임 선생님들은 또 하나의 업무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학생들과 매주 면담하며, 확인하고, 지도하여 오히려 학생들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갔다. 게다가 학부모님과의 관계도 뚜렷이 개선되었다. 학생들의 변화에 만족하면서 관심이 많아져 학생과 학교, 학부모님과의 대화가 많아졌고, 더 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학부모 입장에서 제시해 주시기도 하였다.

또 다른 변화는 학원 및 과외 등 사교육과 사교육비에 대한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학원, 과외에 대한 의존도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 3월과 7월을 비교해 보니 대략 15%가 감소하여 실제로 학생들이 학원에 가거나 과외

〈자기 주도적 학습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6%
조금 도움이 된다.	34%
많은 도움이 된다.	40%

〈창의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3%
조금 도움이 된다.	30%
많은 도움이 된다.	47%

〈과외를 3개월 내에 한 적이 있는가?〉

과제반(3월)	45%
과제반(7월)	32%

〈학원을 3개월 내에 다닌 적이 있는가?〉

과제반(3월)	85%
과제반(7월)	70%

를 할 시간에 수행 과제를 하거나 예습을 하여 발표 및 토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밝혀져 자기 주도적 교과 교육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았다. (위의 표 참조-2007년도 1학기 기준)

이렇게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까지는 힘든 일도 많았다. 상당수 교사들이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 익숙하고 선진국형 교재를 접해 보지 못한 경우가 많아 본교의 학습 교재와 이를 활용한 교과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변화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 처음에는 참여를 꺼렸으나, 전문가를 초청한 세미나 개최, 연수, 과별 협의회 등 개발 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 토론 등을 통하여 구성원들의 이해를 이끌어 냈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를 극복해 나갔다.

한편, 이러한 교재의 개발은 교사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켰고, 또 교재 개발비의 조달 문제, 저작권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으나 재단의 도움과 교사들의 노력, 저작권 허용 범위 파악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 나갔다. 또, 더 나은 교과 지도에 대한 진단의 적중으로 21세기가 요구하는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교재들 역시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시도로 앞으로도 더 많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또, 본교의 학습 교재가 우리나라 교육을 위한 또 다른 길의 첫발을 내디딘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발전을 위하여 본교의 교사들은 힘쓸 것이다. 그것이 비록 작고 서툰 몸짓일지라도 .

다음은 명지고교형 학습 교재의 수업에 대한 적용 사례들이다.

첫 번째, 친절한 얼굴! 누구나 알기 쉬운 실제적인 개념 설명(수학)

어느 날, 수업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나는 학생들에게 수심이 평균적으로 140cm인 강을 키가 170cm인 사람이 건넌다면 익사할 확률이 있는지를 물었다. 학생들은 제각기 자신들의 생각을 이리 저리 쏟아 냈다. 어떤 학생들은 "수심이 140cm밖에 되지 않는데 빠져 죽을 턱이 없죠."라고 자신 있게 말했고 좀 더 신중한 학생들(또는 편차의 개념을 아는 학생들)은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빠져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라고 말했다. 이런 대답에 나는 웃으며 칠판에 강바닥이 평평하게 수심이 140cm로 동일한 강과 강바닥 굴곡이 올록볼록한 수심이 평균적으로 140cm 정도 될 법한 강 두 가지를 그렸다. 그리고는 지휘봉을 사람 삼아 강을 걷게 했다. 첫 번째 강에서는 사람 삼은 지휘봉은 물에 빠지지 않았지만 두 번째 강에서는 지휘봉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순간이 있었다. 여기서 학생들은 평균이 같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같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평균과는 다른 개념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이때, 나는 의기양양하게 학생들에게 명지고교형 학습 자료 ○○○ 페이지를 펴서 읽게 했다. 지금까지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느낀 새로운 개념이 중국 군대에

얽힌 일화로 쉽게 설명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그것이 편차임을 알게 되었다.

두 번째, 많은 것을 말하는 사연이 많은 얼굴!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제들(문학)

교재를 받자마자 학생들의 반응. "으악. 이것을 전부 공부해야 돼요?" 교과서 2권에 교재 6권. 총 8권을 받아든 학생들의 반응이었다. "그래. 18종 교과서에 각종 문제까지 2,000쪽이 넘는구나." 표현은 안 했지만 교사인 나도 '이걸 언제 다 보고 학생들을 지도하지?' 하고 걱정이 앞섰다.

'아, 암담하구나.'

중간고사가 멀지 않은 어느 날, 한 학생이 "선생님, 중간고사도 공부해야 하고 이틀 뒤에 있을 모의고사도 준비해야 하는데 도대체 뭘 공부해야 할까요?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겠어요."라고 나에게 질문했다. 이때, 나의 대답은 "이것저것 보려 하지 말고 그냥 명지고교형 학습 자료나 봐!" 그 학생이 나의 대답을 듣고 돌아서며 이렇게 말했다. "그것만 보다가 시험 점수 잘 안 나오면 어떡해요!" 이 말을 들은 나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 했지만 뜨끔하며 그 학생의 성적을 책임질 수 없는데 내가 너무 쉽게 말했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중간고사를 끝마치고 난 뒤, 첫 수업에서 그 학생은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님, ○○○ 페이지 ○번 문제랑 ○○○ 페이지 ○번 문제는 모의고사에, ○○○ 페이지 ○번 문제는 중간고사에 약간만 바뀌어 출제가 되었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 책만 보아도 괜찮은 것 같던데요." 이 학생의 말에 어떤 학생들은 그 문제들을 찾아보느라 정신이 없고, 또 어떤 학생들은 다른 문제 번호를 말하며 시험 유형과 비슷했다고 했다. 이렇듯 명지고교형 학습 자료는 매우 많은 자료를 담고 있어서 여러 유형의 문제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평등의 얼굴! 교사에 의한 수직적 주입식 수업이 아닌 수평적 수업 체제(영어)

학생 한 명이 교탁 앞에 나와서 수업을 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 페이지를 보세요. 이 글의 주제문은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경쟁적으로 손을 들기 시작한다. 수업을 진행하는 학생은 고민을 하다가 한 학생을 지적한다. "The health of our oceans is in a serious state.입니다." 한 학생이 자신 있게 대답한다. 수업을 진행하는 학생은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받는다. 그러고 난 후 중요한 문법 사항이나 어휘 등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한다. 때로는 유머를 섞기도 하고, 다소 난이도가 있는 도전적인 문제를 학생들에게 풀도록 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난 후 학생은 "여러분, 명지고교형 교재 ○○○○ 페이지부터 ○○○○ 페이지까지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할까요?"라고 말한다. 학생들은 열심히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 시간이 흐른 뒤, 조별로 앉아 있는 학생들은 서로 자신이 왜 이것을 답으로 골랐는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정답을 찾아낸다. 그뿐만이 아니다. 명지고교형 학습 자료에 실려 있는 교과서 내용과 관련된 읽기 자료를 읽고 토론을 하기도 한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교사는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나는 학생들의 수업을 듣고 미흡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고, 전체적인 학습을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한다.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23)

김홍석

-청문각(CMG) 대표-

기초 과학에서부터 응용 과학 전반의 양서 출판을 위해 묵묵히 힘써 온 청문각은 전문인들 사이에서는 과학 기술 분야에서 알찬 책을 꾸준히 출간하는 중견 출판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우수 과학 기술 도서의 출판을 통해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과학 기술 도서 전문 출판사가 되겠다는 포부로 약진하고 있으며, 중 고등 검정 교과서 출판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청문각의 김홍석 대표님과 짧지만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였습니다.

1 청문각은 과학 기술 분야의 양서를 출간하여 온 중견 출판사로 알고 있습니다. 청문각의 경영 및 도서 출간에 대한 이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청문각은 지난 33년 동안 기초 과학에서부터 응용 과학 전반의 양서 출판을 위해 묵묵히 힘써 왔습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베스트셀러는 없지만, 과학 기술 분야에서는 알찬 책을 꾸준히 출간하는 출판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이 분야의 독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면 그지없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첨단 과학이 발전하려면 무엇보다도 좋은 과학 기술 도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공학도로서 과학 기술 도서 출판에 남다른 애정으로 1975년 5월, 淸文閣(맑은 글 터)을 창립한 이래 현재까지 약 1,400여 종의 서적을 출판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학 기술 계통 종사자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과학 기술 도서가 부족함을 인식하고 선진국의 유명 출판사와 저작권 계약을 통해 양서를 번역 출판하였으며, 국내의 유수 석학들을 모시고 훌륭한 과학 기술 도서를 기획 발굴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주관하는 우수 학술 도서와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우수 학술 도서로 매년 수종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국내 간 경쟁이 아닌 글로벌 경쟁의 시대입니다. 또,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정보화의 시대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화 시대, 글로벌 경쟁하에서는 과학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과 국가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즉, 미래의 글로벌 성장 동력이란 과학 기술 연구 분야가 그 근간인 것입니다. 이처럼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저희

청문각은, 앞서 나가는 우수 인재의 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우수 과학 기술 도서의 출판에 계속 정진할 것입니다.

② 현재 우리의 교육계는 공교육의 질적인 상승과 사교육비의 절감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교과서 편찬인의 관점에서 이러한 과제를 풀기 위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경시하고 학원 등의 사교육 시장을 전전하고 있으며, 일선의 교사 역시 이 같은 풍조를 알면서도 체념, 방관하는 사실은 우리의 공교육이 심각한 기로에 서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차원에서 백년을 내다보는 혜안으로서 그 대책에 부심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공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사교육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데 대한 교과서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 드리려 합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학생과 교사가 수업을 통하여 함께 학습하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교과서를 통하여 수강과 강의의 흥미와 보람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교과서의 역할이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과 내용이나 형식을 일정 제한하고 있는 현 교과서 편찬 및 검정 기준이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그만큼 각 출판사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제한하는 것이 됩니다. 제한된 교과 내용에 얽매이지 않고 전문 출판사의 교육 이념과 노하우가 그대로 교과서에 반영될 때, 배움의 재미가 있으면서도 창의적인 교과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러한 다양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질 높은 교과서를 통하여 올바른 공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시청각 자료와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각종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덧붙이고 응용한다면, 2차원적 평면 교육에서 3차원의 입체 교육으로 한 단계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수십 년 쌓아온 교육에 대한 각 출판사의 노하우를 유감없이 교과서에 쏟아 넣으며, 질 높은 책을 위하여 기꺼이 연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닦여지기를 기대합니다.

③ 제7차 교육 과정의 고등학교 물리(Ⅰ, Ⅱ), 화학(Ⅰ, Ⅱ)에 이어,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중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 편찬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 분야의 도서 출간에 주력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서 청문각을 소개하면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미래의 사회는 국가 간의 무한 경쟁 시대가 될 것입니다. 과거 국내 기업 간의 경쟁에서 세계 기업 간의 경쟁으로 돌입한 지도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과학 기술의 연구와 개발입니다.

하나의 첨단 과학 기술은 수십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질적인 평준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독점적인 신기술은 제품의 경쟁력을 극대화시킵니다. 따라서, 개발에 뒤쳐진 기업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는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더욱이, 비좁은 국토와 빈약한 지하 자원을 가

검·인정 교과서 시장의 개방 정책에 따른
부적격 교과서의 우후죽순식 출간과, 일선 학교의 채택 위주로
교과서 시장이 개편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입니다.
모름지기 교육 정책이란 100년을 내다보아야 하며,
한 국가의 인재 양성의 기본서가 되는 교과서는 어느 기준치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출판사의 전문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진 우리에게 있어서 신과학 기술의 개발이란 국가적 성쇠가 달린 과제라고도 하겠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미래 사회의 경쟁 구도를 일찍이 깨달은 바, 세계를 선도하는 고급 과학 기술 인력 양성에 일생을 바치고자 하였습니다. 그 일생의 과업의 일환으로서 질 높은 전문 과학 교과서의 편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④ 청문각이 생각하고 지향하는 교과서는 과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지만, 청문각이 꿈꾸는 교과서는 '살아 있는 교과서' 입니다.

모름지기 교과서란 학생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다가설 수 있어야 하며, 그 흥미 속에서 자연스럽게 개념과 원리를 깨우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친 개념과 원리를 이용하여 각자의 개성 있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응용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심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문각에서 지향하는 교과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살아 있는 교과서' 입니다.

제한된(어느 정도 공통된) 교과 범위 내에서 청문각의 고유한 교육 이념을 담아내기란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어진 범위 안에서 학습자와 교육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과서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학생에게 흥미를 주지 못하는 교과서, 깨우친 개념과 원리를 확장하고픈 욕구를 주지 못하는 교과서, 가르침에 있어 교사에게 보람을 주지 못하는 교과서는 이미 죽은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교과서 편찬의 기획에 관련된 대외비적 성격이 있어 상세한 복안을 말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바라면서, 출간될 청문각의 교과서를 주목해 주십시오.

⑤ 현 검 인정 교과서의 출원에서 채택에 이르는 교육 행정 시스템에 대하여 개선의 여지나 아쉽게 여겨지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 정책이나 검 인정 교과서의 출원 및 검정은 담당 정부 부처에서 세부 계획에 맞추어 공정하게 진행하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이 있다면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검 인정 교과서 시장의 개방 정책에 따른 부적격 교과서의 우후죽순식 출간과, 일선 학

교의 채택 위주로 교과서 시장이 개편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입니다.

모름지기 교육 정책이란 100년을 내다보아야 하며, 한 국가의 인재 양성의 기본서가 되는 교과서는 어느 기준치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출판사의 전문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또, 일선 학교의 채택 위주의 시장 개편은 교과서의 질적인 면보다도 출판사의 지명도나 영업력에 의하여 채택의 결과가 판가름 나는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정부 부처 차원에서 검 인정 교과서를 출간한 각 출판사별 '교과서 설명회'의 개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각 교과서의 장점과 실교육에서의 활용 방안 등을 일선의 담당 교사를 상대로 홍보함으로써 진정으로 질 높은 교과서가 채택되고 학생이 배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식 홍보의 장을 통하여 과잉 경쟁에 따른 불필요 비용을 축소하고, 학습자와 교육자가 함께 만족하는 교과서를 선별하여 채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검 인정 교과서를 편찬하는 출판사를 과거 국정 교과서를 편찬하던 공기업과 같은 입장으로 접근하려는 정부의 태도입니다.

저희 청문각을 비롯하여 검 인정 교과서를 편찬하는 출판사는 이익을 극대화하여 사회에 이바지하려는 사기업입니다. 물론, 교과서를 기획 편찬하는 사명감과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전제하고 있지만, 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지 못하는 사업을 위하여 개발하고 투자하는 기업인은 없겠지요.

학생에게는 흥미를 주고 교사에게는 보람을 느끼게 하는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듦으로써 사기업인 출판사도 이익을 얻어 함께 발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적정 판매 이익을 보장하여 더 좋은 교재의 개발과 연구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출판사에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⑥ 끝으로, 청문각이 추구하는 출판 이념과 앞으로의 도서 출간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의 사회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현대의 기업간 국제적 경쟁 체제에서 이제는 개인으로서도 세계의 모든 이들과 경쟁하여 이겨 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 경쟁의 시대에서 과학 기술의 연구와 개발이야말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최후의 그리고 최선의 선택이며, 앞으로 이 나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소중한 성장 동력입니다.

이에 저희 청문각은 신과학 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통하여 블루오션을 선점할 수 있는 인재의 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우수 과학 기술 도서의 개발과 출간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정진할 것입니다. 연

▣ **대담** / 최해홍(한국교과서연구재단 사무국장)

자 료 1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주최 – 제 5 회 교과서 관련 수필 공모 수상작

초등부 금상

나의 수학 교과서 속 세상

글 **한지혜**(서울창서초등학교 4 학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과목이 있을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와 체육이고, 싫어하는 과목은 수학이다. 수학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인지라 수학 교과서에는 낙서, 장난의 흔적이 많이 묻어 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분수, ……. 이런 문제들이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길 때마다 내 눈앞에서 어른거린다.

언제 한 번은 꿈속에서 수학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다. 수학 교과서를 펼치는데 갑자기 연산 기호들이 나와서 나를 책 속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는 1 단원 마을, 2 단원 마을이 있었다. 정말 낡고 많이 허물어져 있었다. 기호들이 "이렇게 마을이 망가진 이유는 너 때문이야."라고 하니 너무 부끄러워 후회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숫자와 연산 기호들이 모두 뛰쳐나왔다.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다.

그날은 수학 학력 평가 전날이라서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한 날이었다. 책을 괴롭히지 말라고 기호들이 이야기해 주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냥 수학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꿈을 꾼 것일까 ? 시험을 보고 점수가 나왔다. 100 점이었다. 나는 얼른 수학, 수학 익힘책을 펴 보았다. 네 귀퉁이에 구멍과 낙서가 마구 그려져 있었다. 그동안 습관이 되었나 보다. 앞으로는 고쳐야지, 고쳐야지 하는데 과연 이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 ?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겠다. "수학 교과서야, 정말 미안해……. 다음부터는 이 습관을 고치도록 노력할게."

사실 나는 교과서에게 많은 교훈도 얻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다. 보통 사람들은 시험을 볼 때 (단원 평가가 아닌 학력 평가 같은 큰 시험) 거의 문제집을 푼다. 나도 문제집에 집중하고, 교과서는 잘 보지 않았다. 그래서 기말 학력 평가 때 수학 문제 하나를 몰라서 조금 쩔쩔매었다. 여기서 내가 얻은 교훈은 바로 '교과서는 세계 최고의 문제집이다.' 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문제집을 많이 풀어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익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건 나의 경험이다.

작년 여름 휴가 때 제주도에 있는 닥종이 박물관에 갔었다. 거기에서 인형도 보고, 엄마, 아빠가 어릴 적에 보시던 만화, 로봇을 보기도 하고, 뽑기나 달고나 같은 추억의 과자를 먹기도 했었다. 옛날 교과서를 보았는데, 처음에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다. 요즘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인데 그곳에 있는 교과서는 국어, 산수, 사회, 자연이었다. 교과서까지 옛날과 오늘날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내용은 어느 정도 비슷했다. 엄마는 교과서를 보니 옛 추억이 생각난다고 했었다. 나도 지금의 교과서를 추억으로 남겨 둘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교과서는 어떤 면에서 지루한 공부 관련 책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옛 추억을 되살려 볼

보통 사람들은 시험을 볼 때 거의 문제집을 푼다.
나도 문제집에 집중하고, 교과서는 잘 보지 않았다.
그래서 기말 학력 평가 때 수학 문제 하나를 몰라서 조금 쩔쩔매었다.
여기서 내가 얻은 교훈은 바로 '교과서는 세계 최고의 문제집이다.' 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문제집을 많이 풀어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익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수 있는 사진첩 같은 책이기도 하고, 교훈을 일깨워 주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해 주는 중요하고 좋은 책이기도 하다. 이제는 먼 옛날이야기가 되어 박물관에 있는 엄마의 교과서처럼, 우리의 교과서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때의 우리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교과서의 소중한 추억을 잘 기억하고 옛날의 교훈을 일깨워 주고, 초등학교 시절 내가 얼마나 바르게 행동하였는지, 친구들과 얼마나 사이좋게 지냈는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반성하게 해 주는 교과서로 만들고 싶다. 특히 괴롭혔던 수학 교과서는 더욱 알차게 만들어야지 ! 연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주최 – 제 5 회 교과서 관련 수필 공모 수상작

중등부 금상

나만의 특별한 일기장, 교과서

글 유경연(조선대학교 부속 여자중학교 1 학년)

나는 이상하게도 초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부터 교과서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것 같다. 다른 친구들이 책상 속에 교과서를 우겨넣고 다닐 때에도, 나는 공책과 함께 교과서를 차곡차곡 쌓아서 커다란 가방 안에 정성스럽게 모두 넣어 들고 다녔다. 어른들은 "너, 이제 키 안 큰다.", "쪼끄만 애가 지 몸집만 한 걸 들고 다니네. 좀 놔두고 다녀." 하시며 말리셨지만 왜일까, 교과서를 놔두고 다니면 어딘가 한구석이 허전하고 아쉬웠다.

교과서에 관한 내 일화는 여러 가지다. 초등학교 3 학년 때, 막 '사회' 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을 적에 '사회과 탐구' 라는 책이 없어진 일이 있었다. 가방 안의 우유가 터져서 교과서가 다 젖어 안 그래도 울먹거리려던 차였는데, 교과서까지 없으니 더욱 안절부절못하여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께서는 "학교에 두고 왔겠지. 누가 교과서를 가져갔겠어?" 하고 달래 주셨고, 정말로도 학교에 있었지만 나는 그날 내내 칭얼대고 울먹이며 교과서를 찾았다. 그날 이후 나는 우유를 가방에 넣어 다니지 않았고, 학교가 끝난 뒤 가방을 쌀 때에는 내용물과 책상 속, 사물함 속을 완벽히 확인한 뒤에야 학교를 나서곤 했다. 성격이 몹시도 칠칠맞은 탓에 집에서도 자주 교과서를 찾지 못하곤 했는데, 집에 있는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늘 주먹만 한 눈물을 흘려댔다. 아마 나의 이 눈물 바람 때문에 엄마께서도 많이 머리 아프셨을 것 같다. 중학생이 되어 교과서가 두껍고 많은 지금도, 나는 모든 교과서와 공책들을 가방 속에 넣고 다닌다. 누가 "왜 모두 넣고 다니니? 무겁지도 않니?" 하고 물으면 난 대답하지 못한다. 나도 모르니까! 나도 내가 왜 교과서를 모두 가지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아마 다 놔두고 다니고 싶다.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고 걱정되는 어렸을 때부터의 고질병 때문에 도저히 그러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교과서에 대한 애착이 강한 나에게는 또 다른 특이한 습관이 있다. 바로 교과서를 버리지 못하는 것. 지금 중학교 1 학년인 나에게는 4, 5, 6 학년 때의 전 과목 교과서들이 책꽂이 두 칸을 자랑스레 차지하고 있다. 이것도 왜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하겠다. 그냥 버리기가 싫다. 오랜 동료를 버릴 수 없듯 나는 교과서를 버릴 수가 없다. 교과서의 부드러운 앞면을 손으로 쓰윽 훑어보고 나면 왠지 모르게 아쉬워 버리려던 마음을 접고 다시 책꽂이에 꽂아 버리고 만다. 책 꽂을 공간도 없는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보면 종종 나도 나 자신이 답답하지만, 어쩌겠는가! 버리지 못하겠는데. 그래도 이 애물단지 같은 옛 교과서들이 아주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1 년씩, 1 년씩 가지고 다녔던 만큼, 애정도, 추억도 촉촉하게 배어들어 바랜 색깔도, 상처도, 낙서 하나까지도 모두 기억이고, 추억이다. 4 학년 과학 교과서가 검게 물든 것은 이산화망간과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산소 발생 실험을 할 때, 잘못하여 약품이 흘러넘친 것이 유난히 내게 다 튀어 생긴 것이고, 수학 교과서에 빨갛게 비가 내리는 이유는 그때까지 수학을 좋아하지 못했던

탓이고, 5학년 국어 교과서에 있는 사인들은 선생님께서 '쓰기' 부분을 읽으시고는 맞춤법을 고쳐 주신 뒤에 해 주신 애정어린 흔적이고, 6학년 교과서 윗부분이 하얗게 바랜 이유는 수업 시간에 친구랑 글로 써서 이야기한 흔적을 지우개로 박박 지운 탓이며, 유난히 사회 교과서에 낙서가 많이 있는 것은 사회에 흥미를 잃어 시간마다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었기 때문이다. 다 기억할 수 있다. 낙서 하나까지도. 그때의 추억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한다. 국어 교과서나 도덕 교과서에 써 놓은 걸 보며, "어머, 내가 진짜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하며 혼자 낄낄대기도 하고, 수학 교과서에 있는 틀림 표시를 보며, "그때도 곱하기에 약했구나." 하며 즐거운 우울함을 느끼기도 하고, 사회 교과서에 끼워진 쪽지 시험 종이들을 보며, "나 이런 것도 배웠었나?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하며 나의 빠른 두뇌 초기화를 탓하기도 하고……. 행복한 일이다. 교과서를 보는 것은 한 권의 일기장을 보는 것 같다. 아니, 오히려 일기장보다 훨씬 솔직하며, 그때의 생각들과 느낌들을 꾸밈없이 표현하여 검사를 맡기 위해 어설프게 지어 썼던 일기와는 달랐다. 막 접어든 청소년기에 수줍게 써 내려갔던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 인생관, 원하는 일, 우정, 사랑, 느낌, 따뜻함, …….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세상, 내가 살았던 그때, 나의 추억들. 내게 옛 교과서를 읽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부나 복습과 같은 것이 아니다. 나는 교과서의 내용을 읽기 위해서 교과서를 펼치지 않는다. 묻어 있는 추억들을 더듬고, 잘 찾아야만 발견할 나의 숨결을 느끼고, 변화되어 가는 나의 생각들을 찾고, 또 그 기억들을 다시 저장하기 위해, 그 따뜻한 느낌을 다시 저장하기 위해, 나는 내가 힘들 때 우리 집 가장 구석의 방으로 향한다. 나의 책들이 있는 곳으로.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퍽퍽해지고 아파올 때 앨범을 찾듯, 난 나의 교과서를 꺼내 든다. 그곳에서 겪는 힘든 일을 헤쳐 나가게 하는 힘도, 방법을 찾게 하는 힘도 아니다. 다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힘, 따스한 기억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힘을, 나는 옛 교과서들에게서 얻는다. 다른 사람들이 숱하게 버렸을 교과서들을 읽으며 나는 다른 이들이 잃어버렸을 느낌을 찾는 것이고, 간직하는 것이다.

나는 다른 이들이 답답해하든 어쩌든 교과서에 대한 애착을 버리려고 노력하지 않기로 했다. 교과서를 찾지 못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도, 교과서를 애지중지해 모두 들고 다니는 것도, 교과서의 낙서 하나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것도 그냥 계속 하기로 했다. 내가 조금 답답해도 그냥 하기로 했다. 이렇게 애정을 듬뿍 바르면 바를수록, 내 마음속에 있는 추억을 위한 자리가 더 커질 거니까. 내가 줄 수 있는 따뜻함의 농도가 더 짙어질 거니까.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주최 – 제 5 회 교과서 관련 수필 공모 수상작

고등부 금상

전학, 새로운 교과서와의 만남
–교과서를 사랑하는 친구에게–

글 **신현상**(가평고등학교 2 학년)

영호야, 학생에게 있어서 교과서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 그동안 많이 궁금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용기를 내서 담임 선생님께 여쭈어 봤어. 그랬더니 "교과서란 학교 교수·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구현 자료라고 보면 된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지. 또,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은 이러한 교과서를 통해서 민주 시민 의식과 가치관, 다양한 지식과 기능, 그리고 창의성이나 비판성 같은 사고력을 배우게 된단다."라고 부연 설명을 해 주셨어.

영호야, 그런데 말이야. 교과서는 이처럼 학교 교육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자료잖아. 그런데 근래에 와서 음향이나 영상을 통한 교육 자료들이 늘어나면서 왠지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아쉽단다. 왜냐하면 교과서와는 그동안 애틋한 사연들이 많고, 또한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고 해도 우리 학생들에게는 교과서만큼 우수한 교육 자료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야.

영호야, 너도 잘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께서는 직업 군인이시잖아. 올해로 벌써 30 년째 군대 생활 중이신데, 푸른 옷에 젊은 청춘을 국가에 다 바치셨단다. 물론 나는 직업 군인의 자녀로 태어나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군인의 자녀이기에 좋은 점도 많았지만, 그 이면에는 애환이 더 많았단다. 특히 잦은 이사에 따른 학교 전학과 교과서 변경 문제는 어린 나를 정말로 힘들게 했어. 한번 생각해 봐. 대전의 한 병원에서 태어나서 경남 고성, 증평, 부여, 대구, 서울, 안양, 가평 등 무려 12 번씩이나 이사를 하였고, 또한 학교도 초등학교 6 번, 중학교 3 번, 고등학교 1 번 등 도합 10 번을 전학하였으니 오죽 힘이 들었겠어.

영호야, 그런데 말이야. 아이러니한 일은 내 친구들 중에 이렇게 전학을 많이 다닌 나를 오히려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이야. 그것은 전학을 자주 다니다 보면 새로운 세계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또한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기 때문일 거야. 하지만 전학생들은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아픔이 있어. 특히, 학교마다 교과서와 수업 진도가 다르다는 것은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란다.

영호야, 초등학교 4 학년 때의 일이었어. 대구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로 전학을 하게 되었는데 글쎄 '사회과 탐구' 교과서가 바뀐 거 있지. '대구의 생활' 이 아니라 '서울의 생활' 인 거야. 그러니 수업 시간에 얼마나 놀랐겠어. 나중에 알고 보니 '사회과 탐구' 교과서는 각 시·도별로 서로 다른 지역 교과서였던 거야. 물론 지금이야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땐 정말 많이 놀랐단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나은 편이야. 중학교 2 학년 때는 2 번씩이나 전학을 하게 되었는데, 글쎄 국어, 도덕, 국사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바뀐 거 있지. 특

히,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서 안양에 있는 중학교로 전학했을 때는 겨우 3주일을 배우고 교과서를 다시 바꿔야 했어. 더구나 사회 과목은 수업 중 첫 발표자로 지정되어 여러 날을 준비했었는데, 결국 발표도 못하고 떠나게 되니 정말 속상하더라고.

영호야, 그런데 교과서와의 아픈 추억은 이것뿐이 아니란다.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인데 통상 전학을 가면 텃세라는 것을 하잖아. 처음에는 "공부 잘해?", "싸움 잘해?"로 시비를 걸어 왔어. 하지만 나는 가급적 대응을 하지 않았단다.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께서 친구들과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신신 당부를 하셨기 때문이야. 하지만 새로운 친구들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점점 강도를 더해 갔어. 그리고 결국에는 학교 앞 다리 밑으로 불러내더라고. 나는 몇 번을 망설이다 결국 그들의 요구에 응하기로 했어. 왜냐하면 여기서 물러서면 학교 생활이 점점 힘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야.

결국, 그날 오후, 학교 앞 다리 밑에서는 1대 4의 결투가 벌어졌단다. 절대 불리한 상황에서 나는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순간 가장 설치는 녀석을 향하여 주먹을 날렸어. 그런데 기습을 당한 그 녀석은 한 방에 나가떨어지는 거 있지? 물론 내 위력에 놀라서였겠지만 다른 녀석들은 슬슬 꽁무니를 빼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지 뭐니. 글쎄, 도망가던 녀석들 중 1명이 내 책가방을 옆에 있는 하수구로 집어던진 거야. 아뿔싸, 그날따라 책가방 속에는 교과서도 많이 들어 있었는데…….

참으로 당황스러웠었어. 부랴부랴 책가방을 하수구에서 건져 올렸으나 이미 책가방에서는 시커멓게 오염된 물이 줄줄 흘렀고, 또한 썩은 냄새가 진동하여 도저히 그 상태로는 집으로 갈 수가 없었단다. 그래서 궁리 끝에 책가방을 검은 봉지에 담기로 했어. 왜냐하면 냄새 때문에 버스를 탈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야. 결국 버스를 타고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개울가에 도착하여 책가방을 깨끗한 물에 빨기 시작했어. 물론 가방 속에 들어 있던 교과서들은 모두 꺼내어 물속에 다시 집어넣었단다. 그것은 교과서에 배인 썩은 냄새를 없애려는 생각에서였어. 대략 30분 정도 지났을까, 교과서를 물속에서 다시 꺼내어 바위 위에 올려놓았는데, 글쎄 시간이 흐를수록 교과서들이 점점 불어나는 거야. 심지어 국어 교과서는 원래 두께의 3배 정도는 되었지 뭐니. 그렇다고 두께만 커진 것은 아니야. 꼬불꼬불 라면처럼 뒤틀린 수학 교과서는 정말 가관이더라고. 그리고 그 고약한 냄새는 바지지를 않았어. 하여튼 그해 여름은 더위만큼이나 냄새에 시달려야 했단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상황에서도 우등은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야. 정말 놀랍지 않니?

영호야, 내가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구현이며 교실 수업의 핵심 자료라고 할 수 있단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학생을 교과서로 가르치고, 또한 학생은 교과서로 배우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교과서는 누가 뭐라고 하던 일련의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겠구나. 물론 아버지의 직장 관계로 전학을 수시로 다닌 나로서는 학교별로 교과서가 서로 달라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그래도 오늘날 내가 민주 시민으로서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준 근저에는 바로 교과서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란다. 따라서 아무리 과학 문명의 발달로 첨단 교육 방법들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그 기저에는 교과서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 영호야, 너도 나와 같은 생각이길 바라. 연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주최 – 제 5 회 교과서 관련 수필 공모 수상작

일반부 금상

두 아들 이야기

글 민은경(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나에게는 고등학교 2 학년과 초등학교 6 학년인 두 아들이 있다. 요즘 엄마들처럼 나 또한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지극해서 언론, 서적, 설명회 등등 내 눈에 띄기만 하면 없는 시간도 내서 관심을 충족시키곤 했다. 이렇게 여러 매체를 통해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교육 이론은 그날로 실험 대상인 두 아들들에게 적용되기 일쑤였고,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좋은 게 좋은 거겠지 하는 착한 마음으로 엄마의 지시를 잘 따라 주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이론만 많았지 철학은 없었던, 그때그때의 유행 따라 하기에 불과한 모습들이었다고 반성해 본다. 이런 반성과 더불어 확고한 교육 철학을 가지게 되었던 계기가 나에게 생겼다.

작은 아이가 5 살 때, 언어 지체로 종합 병원 소아 정신과 상담을 받았는데 경계선급 정신 지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큰아들과는 다르게 활발하지도 않고 말을 더듬거려도 성격 탓이려니 혹은 남자 아이라 말이 늦게 터지려나 하고 유치원에 보내고 있었는데 또래보다 학습 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유치원 교사의 조심스러운 충고를 받고 낙관적이었던 나의 태도가 심각함으로 바뀌었다.

그날로 일반 유치원을 나와 특수 교육을 담당하는 조기 유치원과 발달 장애 아동을 교육하는 개별 교육 기관들 –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놀이 치료 등등 – 을 늘 아이와 같이 다니게 되었다. 이런 교육 기관들은 등·하원 때 데려다 주는 일반 유치원과는 달리 교육 내용을 엄마가 관찰하게끔 시설을 만들어 놓고 집에서 연계 교육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었다.

안타깝고 절망스러웠던 심정이 그래도 희망 쪽으로 빨리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교육 내용을 통해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 내 아이가 얼른 일반 아이들처럼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1 년여의 특수 유치원 생활을 마치고 통합 교육의 중요성을 알기에 아이에 대한 확신은 없었지만 일반 유치원에 입학시켰다. 역시 힘들고 마음 졸이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나와 내 아이는 다른 아이들의 영특함과 빠른 학습 능력에 좌절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간격이 더 벌어지는 느낌이었다. 배워야 할 것들은 많은데 아이는 더디고 시간이 부족했으며 서서히 지쳐갔다. 같은 반 아이들은 수업이 끝나면 태권도, 영어, 미술 학원을 다니면서 유치원 과제를 훌륭히 해내고 있는데 내 아이는 많은 시간을 그날 유치원에서 배운 내용과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힘이 쭉 빠져 버렸다.

그래도 유치원 선생님의 배려와 특수 교육 기관 선생님들의 개별 교육에 힘입어 본인과 엄마, 아빠의 이름과 집 주소, 전화번호를 익히고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거의 모든 시간을 작은아이에게 바치고 있던 상황에서 큰아이는 어쩔 수 없이 학원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고,

아이를 가르치면서 교과서를 경시했던 나의 태도가 점차 바뀌게 되었다. 특히, 아이가 어려워하는 수학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실생활에서 수학적인 개념들을 찾아내 원리를 설명하고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단원을 마무리할 때에는 수학 놀이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집보다는 교과서 위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엄마로서 학교 담임 선생님 얼굴도 모른 채 학년을 올라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의 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무난한 학교 생활과 자칭 뛰어난 성적을 받고 있음을 전해 들었다. 난 큰아이에게 고마웠고 더욱 학원에 의지했다.

작은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후 나의 큰 고민은 학년 초마다 아이를 통해 전달되는 상태 보고서였다. 아이에 대한 참고 사항란에 아이가 특수 교육을 받았다는 내용을 적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큰 숙제였다. 며칠을 미루다가 마감일에 이르러서야 無로 적어서 아이의 가방에 넣어 주었다. 원치 않게 아이가 선입관으로 인한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리 알리지 않음으로 인해 특별한 보살핌이나 배려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이 서질 않았다. 다행히 아이는 어눌한 말투와 평균 이하인 학습 능력에도 불구하고 밝고 순수한 성격을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인정받으며 나름대로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해 나갔다.

아이는 전에 특수 교육 기관에서 받았던 내용대로 나와 함께 예·복습을 해 나갔다. 이때 교과서와 시중의 문제집을 병행하여 공부해 나갔다. 사실 내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로 공부해 본 기억이 없다. ○○ 전과, ○○ 출판사가 지금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문제집 위주로 공부했었고, 교과서는 학기 초에 목차나 훑어보고는 학교에 가지고 다닌 적이 별로 없다. 사물함도 없었던 시절이라 가방에 교과서는 빼고 문제집, 참고서를 더 즐겨 가지고 다녔고, 교과서는 교생 선생님 수업 시간이나 외부 손님에게 수업을 공개할 때나 필요한 존재였다.

그러나 아이를 가르치면서 교과서를 경시했던 나의 태도가 점차 바뀌게 되었다. 특히, 아이가 어려워하는 수학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실생활에서 수학적인 개념들을 찾아내 원리를 설명하고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단원을 마무리할 때에는 수학 놀이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아이는 특히 놀이를 즐겼으며, 수 개념과 사칙연산을 쉽게 익혀 나갔다. 따분하고 힘겹게 배웠던 나의 과거 기억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큰 산을 넘은 기분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집보다는 교과서 위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방학이 시작되면 나는 아이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교과서를 사러 서점에 간다. 학기말에 학교로부터 받는 교과서는 학교 사물함에 두고 다니기 위함이고, 서점에서 구입한 교과서는 아무 때나 집 안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에 두고 연관된 도서들을 함께 비치하였더니 자연스레 독서도 함께하게 되었다.

아이는 공부라는 강박감 없이 교과서를 대한다. 요즘의 영특한 아이들이라면 다 알고 시시한 내용일 수 있는 교과서를 읽고 또 읽는다. 문제집 대신 수학 익힘책을 여러 권 사서 풀고 또 풀게 한다. 문제를 다 외울 정도로……. 그런

후 아이의 의향에 따라 시중 문제집의 응용 문제에 도전하게 했더니, 처음에 10 % 내외였던 정답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보통 아이들보다 많게는 3 년, 적게는 1 년의 발달 지체를 가지고 초등학교 입학마저도 유예했던 아이가 학년이 높아질수록 기초를 넘어 긴 문장의 문제도 풀어 보려고 턱을 괸 모습이 정말로 대견스럽다.

아이가 처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나는 학원이나 방문 선생님의 지도는 꿈도 꾸질 못했다. 짧은 집중력과 낮은 이해력을 가진 아이에게 꼭 맞는 맞춤 교육은 엄마인 나 이외에는 해 줄 수 없다는 절박감은 나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주었다. 군인에게 총이 생명이듯이 학생에겐 교과서가 생명이라고 주장한다면 과장일까 ?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난 그것을 우리 아이를 통해 발견했고 오늘도 아이와 나는 교과서를 펼쳐 들고 예습과 복습을 해 나간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이나 사실들도 교과서 내용에 맞게 정리한다. 단편적인 사실 암기나 문제 풀이를 넘어 교과서가 요구하는 바대로 요약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조금은 귀찮고 많은 생각을 요구하는 작업이, 당장은 시간 낭비인 것 같지만 언젠가는 아이의 사고력을 키우고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일조하리라 믿는다.

교과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서면서 큰아이도 중학교 2 학년 때, 다니던 학원을 끊게 했다. 학원 시스템에 의존해 교과서를 시험 때나 겨우 펼쳐 보던 큰아이에게 교과서에 있는 사고력, 창의력 문제들을 해결해 보도록 권유했다. 학원 선생님을 통해 쉽게 얻었던 답을 혼자 찾고 깊이 고민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동생의 놀라운 발전과 '동생도 하는데' 하는 라이벌 의식으로 차차 적응해 갔다.

남과 다른 특별한 아이와 함께 초등학교 6 년의 지난했던 시간을 보내며 난 엄마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느낀 바가 많다.

흔히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교과서 같은 사람이야. 말이 안 통해.' 라며 무시하고 시대에 동떨어진 사람으로 취급하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교과서대로만 한다면 공부는 물론 사회에서도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컴퓨터 시대에서도 인간뿐만 아니라 사회 본연의 의미를 잃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내가 얻은 교훈이다.

교과서를 바라보는 '마음의 눈'

요즈음에는 흔하면서도 귀해 보이는 것이 교과서이다. 단일 책으로 백만 권 가까이 발행하여 도처에 널려 있는 것이 교과서이고, 몇십 년 전의 교과서를 참고하려면 구하기 어려워 아주 귀한 것이 교과서이다.

그리하여 교과서를 바라보는 관점도 각양(各樣)이다. 단순히 교과서를 바라본 것을 글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 재미나게 교과서를 읽은 내용을 글로 적어 놓는 것도 있다. 공부하면서 겪은 교과서와의 관계를 인상적으로 쓴 글도 있다. 이 모두가 교과서를 바라보는 방법이며, 교과서와 관련한 소중한 체험을 자기화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중한 체험을 글로 옮기는 데에는 좀 더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다. 단순히 겪은 일을 사건 위주로 나열하기보다는 글에 생명력이나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 즉 생각이나 마음의 깊이를 달리하여 자기만의 창조성을 발휘해야 한다. 교과서에 대한 자기만의 '마음의 눈' 이 필요하다.

이번 응모에는 초 중 고등 학생의 작품 수가 현저하게 줄고, 작품 수준에 양극화 현상을 보이지만, 교과서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더 다양해지고 내용 전개에서 새로운 기법(技法)을 시도하여 글에 생명력이나 가치를 부여한 작품이 많다는 데 특징이 있다. 교과서를 '마음의 눈' 으로 바라보고 내면 세계를 세련되게 표현한 글이 많았다.

교과서에 대한 단순한 경험을 극적 구성을 통하여 흥미를 배가하고 감동을 유발시킨 작품이 눈에 띄고, 외국의 교과서와 비교하여 우리 교과서의 좋은 점을 내세우면서도 개선점을 지적하는 등 교과서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음이 엿보인다. 일본의 역사 왜곡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거나, 역사 왜곡 교과서에 대한 일본 학생의 심적 변화를 담은 글도 있어 우리 교과서의 국제화를 실감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미국이나 필리핀에서 외국 교과서를 대하면서 교과서의 장단점, 교과서 제도까지 비교하여 우리 교과서의 우수한 점을 찬양한 글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세계사 교과서에 '한국이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속국' 이라고 묘사하고, 지도에 동해를 'Sea of Japan' 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이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할 한국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모습에서는 우리 교과서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게 한다.

자기만의 경험과 매끄럽게 연결되어 내용 전개에 순기능과 암시로 작용하도록 글의 제목을 재미있게 붙이거나, 경험을 단순히 서사의 형태를 빌리지 않고 새로운 형식의 전개 방식을 택하여 하나의 완결된 구성을 이룬 작품이 돋보인다. 교과서의 일부 내용과 관련된 경험이지만 소설적 구성으로 독자에게 교과서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호소력을 지닌 작품에도 눈길이 갔다.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교과서와 관련된 평범한 경험이지만 창의적 구성과 표현력으로 교과서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부각한 작품도 다소 있었다.

반면에 교과서에 얽힌 경험을 옴니버스 식으로 단순하게 나열한다든지, 교과서에 얽힌 재미난 에피소드를 작품성으로 승화시키지 못해 감동을 주지 못하는 작품도 꽤 많았다. 교과서의 제목을 바꾸는 좀 진부(陳腐)한 '튜닝'을 다루어서 다른 소중한 경험을 훼손한 글도 있었다. 글의 내용은 좋지만 수필이라기보다는 논설적인 요소가 너무 강하거나, 글의 전개나 표현력은 남다르지만 내용에서 참신성, 일관성이 결여되어 등위에서 탈락한 아쉬운 작품도 있다.

글에 생명력과 호소력, 감동의 요소를 지니려면 교과서를 바라보는 자기만의 슬기로운 눈〔慧眼〕이 필요하다. 교과서와 함께한 경험이 단순히 삶의 일부라고 작위적(作爲的)으로 치장하기보다는 삶의 가치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진취적 자세가 요구된다. 이러할 때 교과서는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온다. 앞으로 교과서 관련 글쓰기에서 유념할 사항이라고 본다.

이번에 응모한 작품의 심사에서는 '교과서의 중요성'을 글자 그대로 실감할 수 있는 기회였다. 교과서는 일상에서 쉽게 접하여 단순히 지식을 쌓아 주는 보고(寶庫)만이 아니라, 성장기에 인성을 아름답게 형성하고 미래에 대한 바람직한 비전을 가지게 하는 귀중한 자료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교과서에 대한 글을 써 보는 것은 그 만큼 인생의 가치를 높이고 풍요롭게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2007년 9월 21일

제5회 교과서 관련 수필 공모
심사위원장 박삼서
(서울창덕여자중학교 교장)

자 료 2

교육과정·교과서 주요 정책 공지 사항

-교육인적자원부-

시행 일자	개 요
2007. 2. 28.	●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별책 1]~국제 계열전문 교과교육과정 [별책 28] 개정(고시 원문 참조) - 학교급별 학년별 시행 시기 · 2009. 3. 1. : 초등 1 2 학년 · 2010. 3. 1. : 초등 3 4 학년, 중학교 1학년 · 2011. 3. 1. : 초등 5 6 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 2012. 3. 1.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 2013. 3. 1. : 고등학교 3학년 ※단, 수학과 및 외국어과(영어) 시행 시기 · 2009. 3. 1. : 초등 1 2 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 2010. 3. 1. : 초등 3 4 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 2011. 3. 1. : 초등 5 6 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2007. 7. 31.	● 2008~2012학년도 국정 교과용 도서 발행 대행 공고(조달청 내자 공고 제200707-23501-00호) - 입찰 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제안서 제출) 일시 : 2007. 8. 30. 14 : 00 - 납품 기한 : 2008. 7. 30. - 낙찰자 선정 방법 : 제안서 기술 평가서(80%)와 가격 평가(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세부 사항 : 제안 요청서(교육인적자원부)에 따름.
2007. 6. 21.	● 초 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구분 고시(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81호) - 도서 구분(교과별 도서명 고시 원문 참조)

시행 일자	개 요

급별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초등학교	· 185책(교과서 117책, 지도서 68책) · 보조 자료 6종	· 22책(교과서 11책, 지도서 11책) · 보조 자료 10종	· 48책(교과서 32책, 지도서 16책)
중학교	· 15책(교과서 5책, 지도서 10책) · 보조 자료 5종	· 94책(교과서 55책, 지도서 39책) · 보조 자료 8종	–
고등학교 (보통 교과)	· 8책(교과서 3책, 지도서 5책)	· 102책(교과서 90책, 지도서 12책) · 보조 자료 2종	–
고등학교 (전문 교과)	· 343책(교과서)	· 10책(교과서)	· 컴퓨터 13책, 예체능 44책, 국제 전문 25책

2007. 8. 6.

● 교과용 도서 검정 실시 공고(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7-91호)

– 검정 대상(학교급별 도서명 고시 원문 참조)

·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검정 : 중학교 43종

· 2006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검정(수정) : 초 16종, 중 12종, 고 4종

● 검정 신청 기간 및 장소

·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구 분	기 간	장 소
중 1	2008. 12. 1.(월)~12. 5.(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 2	2009. 12. 7.(월)~12.11.(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 3	2010. 12. 6.(월)~12.10.(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06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구 분	기 간	장 소
중 1, 고 1	2007. 12. 3.(월)~12. 7.(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초 34, 중 2	2008. 12. 1.(월)~12. 5.(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초 56, 중 3	2009. 12. 7.(월)~12.11.(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검정 신청 예정자 등록 기간 및 장소(2008년도 검정 신청 대상)

– 2007. 12. 3.(월)~12. 7.(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3차년도 검정 신청 예정자 등록 기간 및 장소는 별도 공고 예정)

연구재단 소식 NEWS

※ 이사회 개최

○…우리 연구재단은 2007년 8월 23일 오전 11시 코리아나호텔에서 2007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다음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정관 중 개정 정관
- 임원 선임

※ 임원 동정

○…김홍섭, 신상조, 권인택 이사 및 박제윤 감사 퇴임

- 우리 연구재단의 신상조 이사(전 서라벌고등학교 교장), 권인택 이사(이천중학교 교장)는 2007년 8월 29일 임기 만료로, 김홍섭 이사(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국장), 박제윤 감사(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정책과장)는 타 부서로 전출함에 따라 2007년 8월 31일 퇴임하였습니다.

○…김영일, 박삼서 이사 취임

- 우리 연구재단은 2007년 8월 23일 이사회에서 김영일(경복고등학교 교장), 박삼서(창덕여자중학교 교장) 씨의 이사 선임 및 정강정, 곽병선, 김만곤 이사의 중임을 의결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2007년 8월 30일 취임하였습니다.

○…김동원 감사 취임

- 정부의 인사 발령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부임한 김동원 과장은 우리 연구재단의 감사에 2007년 9월 1일 취임하였습니다.

○…심은석 이사 취임

- 정부의 인사 발령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정책관으로 부임한 심은석 정책관은 우리 연구재단의 이사에 2007년 10월 12일 취임하였습니다.

※ 2007학년도 2학기 교과용 도서 수증

○…우리 연구재단은 각급 학교에서 현재 사용중인 2007학년도 2학기 교과용 도서를 각 발행사로부터 기증 받아 '교과서정보관'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기증한 도서는 대한교과서(주) 90권, (주)교학사 42권, (주)천재교육 30권입니다. 기증에 협조해 주신 발행사 관계자께 감사를 드립니다.

※ '교과서 출판 교실' 운영

○…우리 연구재단에서는 교과서 발행사 편집 직원의 자질 향상과 교과서 출판에 관한 전문 지식 습득으로 우리나라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교과서 출판 교실'을 연중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에는 '교과서 출판 교실'을 다음과 같이 2회 운영하였습니다.

- 교육과정명 :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 특강, 교과서 출판 기획 및 편집론, 교과서 관련 법규, 교과서 문장론, 저작권법, 교과서 편집 디자인론

- 운영 단위 : 3일(18시간)
- 운영 시기(참가 인원) : 10.10.~12.(32명), 10.17.~19.(30명)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강의를 맡아 주신 여러 강사님과 '교과서 출판 교실'에 참가해 주신 발행사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교과서 발행사 편집 직원 산업 시설 답사

○…우리 연구재단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후원으로 교과서 발행사의 편집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국가 기간 산업 시설을 시찰하고 교과서 편찬 자료 수집을 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기간 : 2007. 11. 1.~2.(1박 2일)
- 장소 : 울진 원자력 발전소
- 참석 인원 : 31명

바쁘신 중에도 답사에 참가해 주신 발행사 직원 여러분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관계자께 감사를 드립니다.

※ 교육과정·교과서 정보(CUTI) 축제 지원

○…우리 연구재단은 권역별(수도, 충청, 영남, 호남권)로 개최하는 교육인적자원부 주최 「교육과정 교과서 정보 축제」의 「교과서 홍보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외국 교과서 225책을 전시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수도권(강원도교육청) : 2007. 10. 9.~12. 삼척 실내 체육관
- 영남권(대구교육청) : 2007. 10. 24.~26. 대구 학생 문화 센터

※ 제5회 교과서 관련 수필 공모 입상자 시상

○…우리 연구재단은 '제5회 교과서 관련 수필 공모'를 실시 2007년 9월 21일 입상자를 발표하고 2007년 10월 5일 시상하였습니다.

시상은 금상에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상장과 부상을, 은상, 동상, 장려상에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 상장과 부상을 각각 수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교과서(주), (주)금성출판사, (주)천재교육, (주)지학사에서 사전류 등 부상품을 협찬해 주셔서 입상한 학생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의 심사를 맡아 주신 심사위원장 박삼서 교장 선생님, 심사위원 한명희, 박남화, 윤광원 선생님과 후원해 주신 교육인적자원부, (사)한국검정교과서, (주)교학사, (주)금성출판사, 대한교과서(주), (주)지학사, (주)천재교육 관계자께 감사를 드립니다.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 상(4명)

한지혜(서울창서초등학교), 유경연(광주조선대부속여자중학교), 신현상(가평고등학교), 민은경(인천광역시 부평구)

- 은 상(8명)

김혜민(수원곡선초등학교), 박진한(김해동광초등학교), 이재윤(서울장위중학교), 송영훈(서울국사봉중학교), 최유진(여수화양고등학교), 최유진(인천신명여자고등학교) 곽홍렬(대구광역시 달서구), 노경희(서울특별시 성북구)

- 동 상(12명)

권연수(대전원앙초등학교), 전대원(목포북교초등학교), 정규민(서울수암초등학교), 권예은(인천만성중학교), 김영우(광주동신중학교), 박은

영(부산국제중학교), 황보영(인천신명여자고등학교), 허선(수원권선고등학교), 이남경(고양세원고등학교), 송옥선(경기도 고양시), 정은주(경기도 군포시), 강용철(경희여자중학교 교사)

– 장려상(40 명)

김하윤(용인마성초등학교), 정지훈(서울은석초등학교), 김가언(경산장산초등학교), 조서은(서울금호초등학교), 강하은(충주용산초등학교), 조아영(대전서부초등학교), 임연주(김포서초등학교), 변예솔(광명광문초등학교), 조연수(용인성복초등학교), 김은영(용인성복초등학교), 서한빛(광주대성여자중학교), 박민지(경산여자중학교), 김혜수(부천북여자중학교), 허은(성남불곡중학교), 함채윤(성남창곡여자중학교), 최한솔(상주중동중학교), 남연주(경산영남삼육중학교), 임수민(성남불곡중학교), 조수환(천안중학교), 김용욱(가평청심국제중학교), 김민희(시흥소래고등학교), 박보배(아산둔포고등학교), 장유리(광양여자고등학교), 천문일(충주중산외국어고), 곽은지(민족사관고등학교), 김선(원주여자고등학교), 이고은(서울중대부속고등학교), 이상권(부산동인고등학교), 온주영(서울월계고등학교), 유효정(울산현대청운고등학교), 이재성(홍성광천고등학교 교사), 박희정(호치민한국학교 교사), 이혜경(성남하원초등학교 교사), 최분임(경기도 시흥시), 이상무(충청남도 서산시), 김선혜(광주광역시 광산구), 김희정(고양백양초등학교 교사), 원숙경(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지원(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지예(부산남항초등학교 교사)

알립니다

고(古) 교과용 도서 수집

우리 연구재단은 국내 유일의 교과서 전문 연구 기관으로
고(古) 교과용 도서를 수집합니다.
기증해 주신 자료는 『교과서정보관』에 비치하여 교과서 연구가는 물론,
일반인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역사적 자료로 소중히 보존하겠습니다.

- **대 상** : 전 교과용 도서(교과서, 인정 교과서, 지도서, 참고서, CD, 테이프 등)
- **수 량** : 제한 없음.
- **기 간** : 수시 접수
- **보 상** : 기증자에게는 '기증서' 교부와 아울러 명단을 영구히 보존하고, 실비 보상도 할 수 있음.
- **연락처** : (우) 158-86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1동 1018-2 세원빌딩 4층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정보관』 담당자 앞
  Tel : (02) 2651-1950(대), Fax : (02) 2651-1954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이 전학이나 교과서 분실 등의 사유로 교과서를 개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과서 발행사 홈페이지, 발행사 직매장, 개별 지정 판매 서점, 지역별 검정 교과서 공급인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과목 출판사와 저자(지은이)를 정확히 알아야 구입이 편리함을 알려 드립니다.

교과서 발행사 연락처

구 분	발행사명	전화 번호	홈 페이지	발행 도서 (각 발행사 홈페이지 참조)
검정 교과서	(사)한국검정교과서	(02) 3663-5409~12	www.ktbook.com	※ 중·고등 학교 검정 도서 전과목
국정 교과서	대한교과서(주)	(041) 861-3183(ARS)	www.daehane.com	※ 초등 학교 : 국어, 수학, 영어를 제외한 전체 과목(도덕, 사회, 과학, 실과, 예·체능) ※ 중 학 교 : 국어, 생활 국어(1, 2, 3학년) ※ 고등 학교 : 해양 과학, 공업계, 수산·해운계, 가사·실업계 31책, 2·1 체제
	(주)교 학 사	(02) 7075-120	www.kyohak.co.kr	※ 초등 학교 : 1~6 학년 국어(읽기, 말하기·듣기, 쓰기) ※ 중 학 교 : 국사 ※ 고등 학교 : 국어, 문법, 국사, 농업계, 상업계
	(주)금성출판사	(02) 2077-8145	www.kseshop.co.kr	※ 초등 학교 : 3~6 학년 영어(영어 CD, 영어 TAPE 포함) ※ 중 학 교 : 생활 외국어 ※ 고등 학교 : 아랍어 I·II, 외국어계
	(주)지학사	(02) 330-5302	www.jihak.co.kr	※ 중 학 교 : 도덕 1, 2, 3학년 ※ 고등 학교 : 도덕, 시민 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 생활과 과학, 체육계 5책
	(주)천재교육	(02) 3282-2851	www.chunjae.co.kr	※ 초등 학교 : 1~6학년 수학(수학, 수학 익힘책) ※ 고등 학교 : 확률과 통계, 이산 수학, 과학계 15책
	향우산업(주)	(02) 790-5947		※ 고등 학교 교련

발행사 직매장

구 분	위 치	전화 번호
(사)한국검정교과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377-2 선일 빌딩 2층(6호선 망원역 부근)	(02) 323-4682~3

※ 기타 개별 지정 판매 서점·지역별 검정 교과서 공급인 판매소 및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cutis.moe.go.kr) 교과서 소식 참고

교과서 전문 연구지

교과서연구

원 · 고 · 모 · 집

「교과서연구」지의 발간에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여 분야 : 〈현장 교육〉, 〈논단〉, 〈단상〉, 〈나의 제언〉, 〈교과서 편집자의 변〉

교육과정과 교과서 관련 연구 활동
교과 운영과 교과서 활용 사례 연구 활동
교과서와 관련된 제언 또는 단상
기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등

- **원고 매수** : 200자 원고지 30매 기준(A4, 10P 3.5 매)
- **원고 제출** : 수시 접수
- **원고료** :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 지급
- **보내실 곳** : E-mail 접수(editor@ktrf.re.kr)
- **기타 문의** : ☎ (02) 2651-1950 연구지 담당자 앞

'교과서정보관' 이용 안내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이 분야의 전문가와 교과용 도서 개발의
기획·집필·편집·제작을 담당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운영 개요

- □ 우리나라 교과서의 수집 및 보존
- □ 외국의 교과서 수집 및 보존
- □ 교육과정·편수 자료의 수집 및 보존
- □ 교육과정·교과서 제도 관련 자료 수집 및 보존
- □ 교과서 관련 자료의 DB 및 정보 인프라 구축
- □ 교과서 관련 연구 단체 협력 체제 구축
- □ 교과서 및 교육과정 정보 제공
- □ 교과서 비교 전시회 개최 등

보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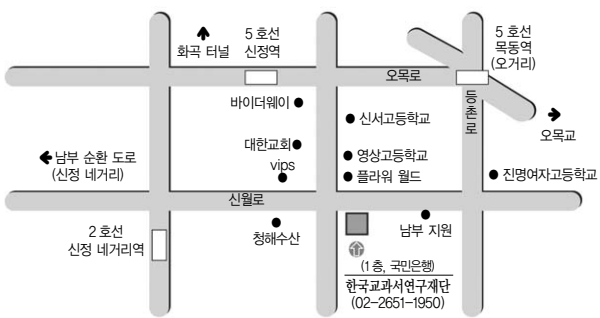
구 분	국 내	국 외	계
교과용 도서	26,045	6,553	32,598
일반 자료	2,521	–	2,521
계	28,566	6,553	35,119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집트, 중국, 대만, 베트남,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즈베키스탄, 태국, 이란, 호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의 교과서 보유

열람 시간

구 분	시 간
▣ 평일	09 : 00 ~ 17 : 00
▣ 토요일	09 : 00 ~ 12 : 00
▣ 공휴일	휴관

교통편



● **전철** : 전철 5호선 신정역, 2호선 신정 네거리역 각 3번 출구
● **버스** : 603, 5012, 6614, 6624, 6640번